

E 14-2025-05

KREI

World · Grain · Market · Trends



2025 제14권 제5호

World · Grain · Market · Trends

해외곡물시장 동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E 14-2025-05

2025 제14권 제5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Trend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박준기 선 임 연구 위원 jkpark@krei.re.kr (061-820-2173)

박도연 연구 위원 dypark@krei.re.kr (061-820-2055)

◆ 그동안 월간으로 발간되었던 해외곡물시장동향 보고서가 2019년도부터는 격월간으로 바뀌었습니다.

CONTENTS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0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1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45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중국의 중앙1호문건과 식량안전보장법 분석 및 시사점	73
---------------------------------	----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로이터	125
-----------------	-----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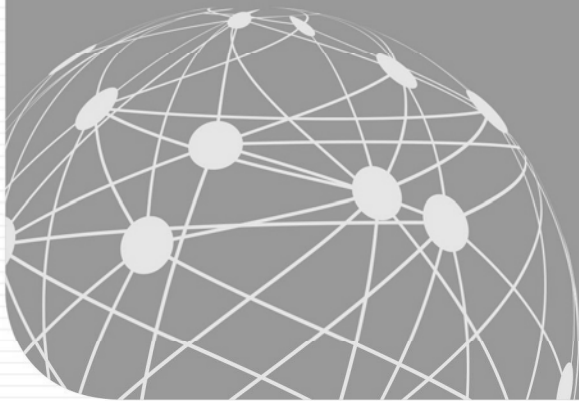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63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167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0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1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45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박도연(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¹⁾

2025년 9월 기준 2025/2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3,01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7%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량은 29억 1,600만 톤으로 이전 2024/25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 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년보다 0.6%p 감소한 26.1%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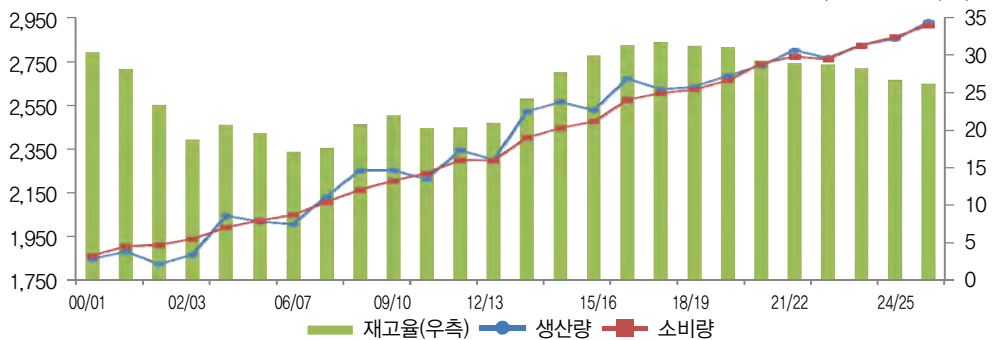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9월 전망)
생산량	1,846	2,212	2,526	2,729	2,824	2,852	2,930
소비량	1,861	2,239	2,474	2,739	2,823	2,861	2,916
재고율	30.4	20.3	29.9	29.3	28.2	26.7	26.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dypark@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1.2. 품목별 수급 동향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쌀은 2025년 9월 기준 생산량,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5억 4,107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4만 톤(0.03%) 늘겠으며, 소비량은 같은 기간 981만 톤(1.9%)이 증가한 5억 3,882만 톤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34.8%이다.

다음으로 밀의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34만 톤(1.9%) 증가한 8억 1,619만 톤이며, 소비량은 1,140만 톤(1.4%) 증가한 8억 1,039만 톤으로 전망된다. 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32.6%로 전망된다.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12억 8,657만 톤으로 전년 대비 5,767만 톤(4.7%)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12억 8,0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44만 톤(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재고율은 22.0%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는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5/26년 대두 생산량은 4억 2,586만 톤으로 2024/25년보다 167만 톤(0.4%)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4억 2,389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344만 톤(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재고율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29.3%이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9월 전망)
쌀	생산량	399	451	478	509	524	541	541
	소비량	394	444	468	499	521	529	539
	재고율	37.3	23.2	30.8	37.9	34.4	35.6	34.8
밀	생산량	583	650	739	773	792	801	816
	소비량	584	653	714	777	797	799	810
	재고율	35.3	30.6	34.7	36.7	34.0	32.8	32.6
옥수수	생산량	592	849	1,021	1,134	1,231	1,229	1,287
	소비량	609	868	1,007	1,154	1,226	1,249	1,281
	재고율	28.7	13.2	31.1	25.8	25.7	22.7	22.0
대두	생산량	176	265	316	370	396	424	426
	소비량	171	253	317	367	384	410	424
	재고율	20.0	29.1	25.1	26.9	30.0	30.1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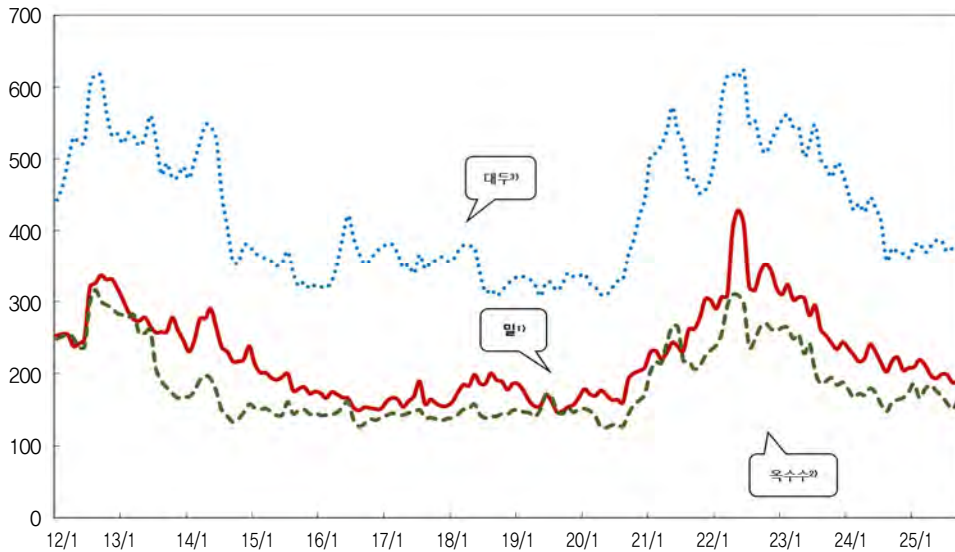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가격 동향

2025년 9월 곡물 선물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공급 전망과 미·중 간 무역 관계 불확실성, 남미산 공급 확대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미국은 가을 수확 시즌을 앞두고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었으며, 특히 옥수수의 경우 수확 예상 면적과 수확량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밀 또한 호주 및 흑해 지역의 양호한 생산 전망이 유지되면서 글로벌 공급 여건이 우호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곡물 및 대두 관련 수출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하면서 대두 선물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곡물 구매가 제한적이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하고 남미산 대두 구매를 늘리면서 대두 가격 하락을 견인하였다. 이후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 소식이 전해지며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12.01~2025.9)

(단위: 달러/톤)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Sep and ERS Sep

8월과 9월 밀 선물가격은 각각 187달러/톤, 189달러/톤으로 평균 188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6~7월 평균 199달러/톤보다 5.4% 하락했다(그림 3, 표 3). 옥수수 선물가격은 8월과 9월 각각 151달러/톤, 163달러/톤으로 평균 157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개월 평균 가격(165달러/톤)보다 4.7% 하락했다(그림 4, 표 3). 대두 선물가격은 8월과 9월 톤당 각각 370달러/톤, 376달러/톤으로 평균 373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앞선 2개월 평균(378달러/톤)과 비교하여 1.5% 하락했다(그림5, 표 3).

2025년 8월과 9월 현물가격은 이전 2개월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밀, 대두, 쌀은 하락하였으나, 옥수수는 상승하였다. 품목별 톤당 평균 가격은 밀 232달러, 옥수수 202달러, 대두 404달러였으며, 쌀의 경우, 태국 장립종은 370달러,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800달러였다(표 4).

〈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3/24	2024/25	2024.9	2025.8	2025.9	변동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22	203	211	187	189	-8.1	-10.5	1.0
옥수수 ²⁾	174	172	160	151	163	-1.0	1.7	7.8
대두 ²⁾	444	374	379	370	376	-15.6	-0.8	1.7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자료: USDA AMS Sep and ERS Sep

〈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3/24	2024/25	2024.9	2025.8	2025.9	변동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99	257	270	231	234	-14.1	-13.4	1.1
옥수수 ²⁾		203	209	205	200	205	3.4	-0.1	2.6
대두 ²⁾		473	410	418	403	405	-13.3	-3.0	0.5
쌀 ³⁾	태국	624	474	569	370	369	-24.0	-35.1	-0.3
	캘리포니아	1,011	789	835	800	800	-21.9	-4.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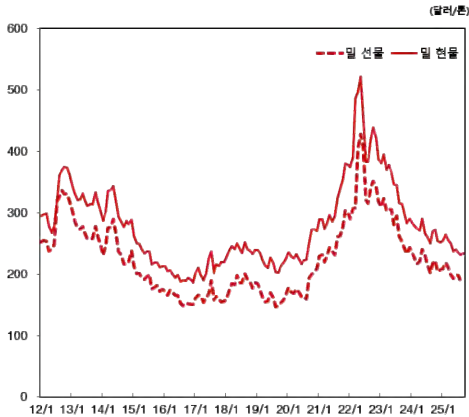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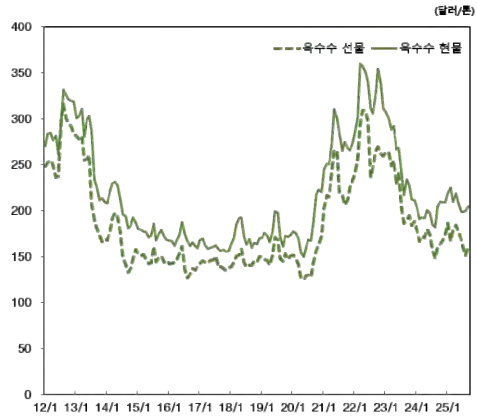
자료: IGC Market Data Sep 2025, USDA Rice Outlook Sep 2025.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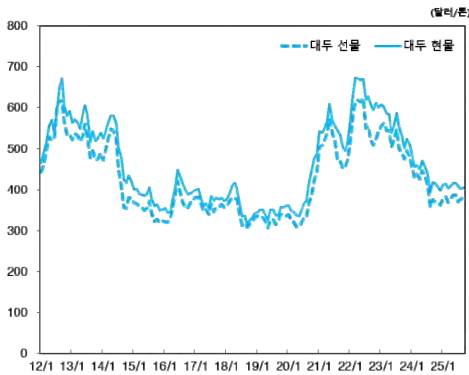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Sep and ERS Sep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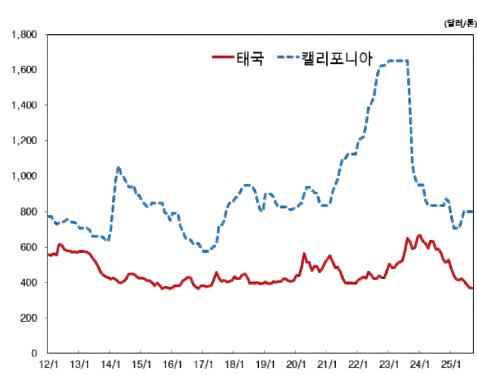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Sep and ERS Sep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9)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Sep and ERS Sep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12.1~2025.9)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AMS Sep and ERS Sep IGC Market Data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미국 의회에서 새 예산안은 물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 정부의 통상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섀도우가 발생했으며 미국 농무부(USDA)는 10월 9일로 예정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곡물이사회(IGC)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내놓은 자료를 통해 쌀, 밀, 잡곡을 합한 세계 곡물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10월 전망을 살펴보면 9월 전망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세계 쌀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10월 전망은 9월 전망 대비 IGC의 경우 생산량을 제외하면 변동 없었다. FAO의 경우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IGC의 경우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FAO의 경우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이 증가했으나 교역량이 감소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IGC와 FAO는 세계 밀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10월 전망이 9월 전망 대비 좋은 것으로 발표했다.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해서도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세계 옥수수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10월 전망은 9월 전망 대비 IGC의 경우 생산량은 변동 없었으나 소비량이 증가했다. 교역량은 감소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FAO의 경우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IGC의 경우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FAO의 경우 세계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이 증가했으나 교역량이 감소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세계 대두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10월 전망은 9월 전망 대비 IGC의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이 감소했다. 교역량은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FAO의 경우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IGC의 경우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과 교역량이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FAO의 경우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 agscouter@naver.com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2025/26년 주요 품목의 세계 수급 전망을 다룬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9월 12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곡물 전체¹⁾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3,000만 톤으로 2.7%, IGC는 29억 6,700만 톤으로 3.5%, FAO는 29억 7,100만 톤으로 3.8%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36억 9,400만 톤으로 1.2%, IGC는 37억 4,500만 톤으로 2.5%, FAO는 38억 3,900만 톤으로 2.5%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3,300만 톤으로 1.7%, IGC는 29억 4,000만 톤으로 2.2%, FAO는 29억 3,000만 톤으로 1.9%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5억 2,200만 톤으로 3.6%, IGC는 5억 톤으로 3.5%, FAO는 4억 9,700만 톤으로 2.5%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7억 6,100만 톤으로 0.4% 감소를 전망한 반면, IGC는 8억 500만 톤으로 3.5%, FAO는 9억 톤으로 3.7%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25.9%로 0.6%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IGC는 27.4%로 0.4%포인트, FAO는 30.7%로 0.5%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9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852	2,930	2.7	2,868	2,967	3.5	2,862	2,971	3.8
공급량	3,650	3,694	1.2	3,655	3,745	2.5	3,747	3,839	2.5
소비량	2,885	2,933	1.7	2,878	2,940	2.2	2,876	2,930	1.9
교역량	504	522	3.6	483	500	3.5	485	497	2.5
기말재고량	764	761	-0.4	778	805	3.5	868	900	3.7
기말재고율	26.5	25.9		27.0	27.4		30.2	30.7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 쌀

2.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는 5억 4,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5억 4,200만 톤으로 0.2%, FAO는 5억 5,600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7억 2,900만 톤으로 1.3%, IGC는 7억 2,700만 톤으로 1.4%, FAO는 7억 6,700만 톤으로 2.5%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5억 4,200만 톤으로 1.9%, IGC는 5억 4,000만 톤으로 1.3%, FAO는 5억 5,100만 톤으로 2.0%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6,200만 톤으로 1.6%, IGC는 6,000만 톤으로 1.7%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6,000만 톤으로 1.6%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700만 톤으로 0.5% 감소를 전망한 반면, IGC는 1억 8,700만 톤으로 1.1%, FAO는 2억 1,600만 톤으로 2.4%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34.5%로 0.8%포인트, IGC는 34.6%로 0.1%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FAO는 39.2%로 0.1%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9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541	541	0.0	541	542	0.2	550	556	1.1
공급량	720	729	1.3	717	727	1.4	748	767	2.5
소비량	532	542	1.9	533	540	1.3	540	551	2.0
교역량	61	62	1.6	59	60	1.7	61	60	-1.6
기말재고량	188	187	-0.5	185	187	1.1	211	216	2.4
기말재고율	35.3	34.5		34.7	34.6		39.1	39.2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2 국가별 수급²⁾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5,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3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150만 ha로 2024/25년 대비 8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4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2,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50만 톤, 2023/24년 대비 1,0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0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0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80만 ha로 2024/25년 대비 8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86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2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2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6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7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만 톤,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2023/24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6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5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0만 ha로 2024/25년 대비 15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1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4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2,2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11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9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9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7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97톤으로 2024/25년 대비 0.2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5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12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5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1만 톤, 2023/24년 대비 1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0만 ha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7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10만 톤으로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1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7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3〉 주요 수출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51.00 (▲1.00/▲13.17)	126.50 (▲4.50/▲10.10)	25.00 (▲1.00/▲10.57)	45.50 (▼0.50/▲3.50)
태국	20.40 (▼0.15/▲0.40)	12.65 (▲0.15/▲0.35)	7.20 (0.00/▼2.69)	3.71 (▲0.60/▲1.50)
베트남	26.30 (▼0.65/▼0.90)	22.70 (▲0.10/▲0.20)	7.90 (▼0.30/▼1.14)	2.94 (▼0.20/▼0.05)
파키스탄	9.80 (▲0.08/▼0.07)	4.20 (▲0.10/▲0.20)	5.30 (▼0.50/▼1.23)	1.53 (▲0.31/▲0.14)
미얀마	12.00 (▲0.10/▼0.30)	10.10 (▲0.10/▲0.10)	1.80 (▼0.10/▼1.00)	0.73 (▲0.10/▲0.11)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2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50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55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3만 톤,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5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1.9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7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1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77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12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72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8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필리핀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2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7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15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4,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2만 톤, 2023/24년 대비 1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900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1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4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6만 톤, 2023/24년 대비 10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72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45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88톤으로 2023/24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3만 톤, 2023/24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4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6만 ha로 2024/25년 대비 4만 ha 감소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91톤으로 2024/25년 대비 0.0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8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만 톤, 2023/24년 대비 3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41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4〉 주요 수입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3 (▼0.05/▲0.21)	7.25 (▲0.30/▲0.67)	5.05 (0.00/▲0.41)	1.70 (▲0.03/▲0.40)
나이지리아	5.54 (▼0.23/▼0.07)	8.40 (▲0.20/▲0.40)	3.00 (▲0.10/▲1.11)	2.02 (▲0.14/▲0.61)
유럽연합	1.77 (▲0.17/▲0.40)	3.55 (▲0.15/▲0.30)	2.20 (▼0.20/▲0.09)	0.96 (▲0.02/▲0.26)
인도네시아	33.60 (▼0.50/▲0.58)	35.30 (▼0.20/▼0.90)	0.80 (▲0.10/▼3.85)	4.57 (▼0.90/▼1.60)
필리핀	12.30 (▼0.07/▼0.03)	17.60 (▲0.20/▲0.80)	5.00 (▼0.43/▲0.50)	3.50 (▼0.30/▲0.10)
중국	146.00 (▲0.72/▲1.38)	146.70 (▲0.74/▼1.42)	2.60 (▲0.26/▲1.07)	104.50 (▲1.00/▲1.50)
멕시코	0.18 (▲0.01/▲0.03)	1.02 (▲0.01/▲0.03)	0.90 (▲0.02/▲0.05)	0.19 (▲0.05/▲0.07)
일본	7.28 (▼0.01/▼0.02)	8.00 (▼0.13/▼0.15)	0.69 (▼0.11/▼0.03)	1.35 (▼0.13/▼0.25)
한국	3.44 (▼0.15/▼0.26)	3.81 (▼0.07/▼0.38)	0.41 (0.00/▲0.01)	0.98 (▼0.16/▼0.23)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3. 밀

3.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1,600만 톤으로 1.9%, IGC는 8억 2,700만 톤으로 3.4%, FAO는 8억 1,000만 톤으로 1.4%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0억 7,900만 톤으로 0.7%, IGC는 10억 9,400만 톤으로 2.0%, FAO는 11억 2,800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1,500만 톤으로 0.7%, IGC는 8억 2,000만 톤으로 1.6%, FAO는 8억 400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1,500만 톤으로 2.4%, IGC는 2억 800만 톤으로 5.6%, FAO는 2억 200만 톤으로 4.7%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억 6,400만 톤으로 0.8%, IGC는 2억 7,500만 톤으로 3.0%, FAO는 3억 2,000만 톤으로 0.6%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USDA는 32.4%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33.5%로 0.4%포인트 상승을 전망한 반면, FAO는 39.8%로 0.2%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9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801	816	1.9	800	827	3.4	799	810	1.4
공급량	1,072	1,079	0.7	1,073	1,094	2.0	1,116	1,128	1.1
소비량	809	815	0.7	807	820	1.6	795	804	1.1
교역량	210	215	2.4	197	208	5.6	193	202	4.7
기말재고량	262	264	0.8	267	275	3.0	318	320	0.6
기말재고율	32.4	32.4		33.1	33.5		40.0	39.8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1억 4,010만 톤으로 8월 대비 18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798만 톤, 2023/24년 대비 4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385만 ha로 2024/25년 대비 11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5.80톤으로 2024/25년 대비 0.4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00만 톤, 2023/24년 대비 2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250만 톤으로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46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5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179만 톤으로 8월 대비 82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0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은 8,500만 톤으로 8월 대비 1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6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6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3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21톤으로 2024/25년 대비 0.2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970만 톤으로 8월 대비 7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5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0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

은 1,119만 톤으로 8월 대비 18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2,3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5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18톤으로 2024/25년 대비 0.32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10만 톤으로 8월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500만 톤으로 8월 대비 5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5만 톤, 2023/24년 대비 35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93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52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밀 수급 전망은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5,2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480만 ha로 2024/25년 대비 77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54톤으로 2024/25년 대비 0.0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14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8만 톤, 2023/24년 대비 12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449만 톤으로 8월 대비 68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1만 톤, 2023/24년 대비 52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296만 톤으로 8월 대비 68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40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3,6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만 톤, 2023/24년 대비 25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7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37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35만 톤으로 8월 대비 6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92만 톤, 2023/24년 대비 3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로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22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5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6만 톤으로 8월 대비 87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92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밀 생산량은 3,450만 톤으로 8월 대비 3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9만 톤, 2023/24년 대비 85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270만 ha로 2024/25년 대비 36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72톤으로 2024/25년 대비 0.1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70만 톤으로 8월 대비 6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8월 대비 2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28만 톤으로 8월 대비 9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3만 톤, 2023/24년 대비 23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급 전망은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950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96만 톤, 2023/24년 대비 36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3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1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47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15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9만 톤, 2023/24년 대비 39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1,7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22만 톤, 2023/24년 대비 69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76만 ha로 2024/25년 대비 93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5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2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5만 톤, 2023/24년 대비 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2023/24년 대비 9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6〉 주요 수출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40.10 (▲17.98/▲4.72)	113.00 (▲4.00/▲2.50)	32.50 (▲4.69/▼5.51)	11.79 (▲0.10/▼4.00)
러시아	85.00 (▲3.40/▼6.50)	39.70 (▼0.30/▲0.70)	45.00 (▲2.00/▼10.50)	11.19 (▲0.60/▼0.50)
우크라이나	23.00 (▼0.40/0.00)	7.10 (▼1.10/▲1.10)	15.00 (▼0.75/▼3.58)	1.93 (▲1.00/▲0.52)
미국	52.45 (▼1.20/▲3.35)	31.41 (▲0.38/▲1.23)	24.49 (▲2.01/▲5.28)	22.96 (▼0.19/▲4.01)
캐나다	36.00 (▲0.06/▲2.59)	9.35 (▲0.92/▲0.39)	27.00 (▼2.28/▲1.56)	4.36 (▲0.25/▼0.92)
호주	34.50 (▲0.39/▲8.54)	8.70 (▲0.70/▲0.90)	25.00 (0.00/▲5.16)	5.28 (▲1.03/▲2.37)
아르헨티나	19.50 (▲0.96/▲3.65)	7.30 (▲0.15/▲0.25)	13.00 (▲2.00/▲4.77)	4.15 (▼0.79/▼0.39)
인도	117.51 (▲4.22/▲6.96)	112.51 (▲3.75/▲0.17)	0.25 (▲0.06/▼0.09)	17.00 (▲5.00/▲9.5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소비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97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8만 톤, 2023/24년 대비 9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033만 톤으로 8월 대비 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6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0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4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수입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75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1만 톤, 2023/24년 대비 1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6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205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5만 톤, 2023/24년 대비 4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소비량은 2,950만 톤으로 8월 대비 4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22만 톤, 2023/24년 대비 1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17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53만 톤, 2023/24년 대비 11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4,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4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360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93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8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5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6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7〉 주요 수입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19.78 (▼3.78/▼0.99)	40.33 (▲0.20/▲0.63)	20.20 (▲2.64/▼0.14)	11.38 (▼1.36/▼1.11)
북아프리카	17.55 (▲1.51/▲1.18)	46.40 (▲0.25/▼0.08)	32.05 (▲0.45/▲0.47)	11.64 (▲1.08/▲0.10)
동남아시아	0.00 (0.00/0.00)	29.50 (▲1.22/▲1.64)	31.70 (▲2.53/▲1.14)	4.82 (▲0.86/▲0.31)
중국	140.00 (▼0.10/▲3.41)	148.00 (▼2.00/▼5.50)	6.00 (▲1.83/▼7.63)	124.78 (▼3.00/▼9.74)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2억 8,700만 톤으로 4.7%, IGC는 12억 9,700만 톤으로 4.7%, FAO는 12억 9,800만 톤으로 6.6%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 역시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5억 7,100만 톤으로 1.7%, IGC는 15억 8,700만 톤으로 3.2%, FAO는 15억 7,900만 톤으로 3.5%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2억 8,900만 톤으로 2.3%, IGC는 12억 8,800만 톤으로 3.2%, FAO는 12억 6,900만 톤으로 2.4%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2억 200만 톤으로 4.1%, IGC는 1억 9,100만 톤으로 2.1%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1억 9,000만 톤으로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8,100만 톤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2억 9,900만 톤으로 3.1%, FAO는 3억 500만 톤으로 8.2%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1.8%로 0.7%포인트 하락

을 전망했다. IGC는 23.2%로 동일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FAO는 24.0%로 1.2%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9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229	1,287	4.7	1,239	1,297	4.7	1,218	1,298	6.6
공급량	1,544	1,571	1.7	1,538	1,587	3.2	1,525	1,579	3.5
소비량	1,260	1,289	2.3	1,248	1,288	3.2	1,239	1,269	2.4
교역량	194	202	4.1	187	191	2.1	190	190	0.0
기말재고량	284	281	-1.1	290	299	3.1	282	305	8.2
기말재고율	22.5	21.8		23.2	23.2		22.8	24.0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4억 2,711만 톤으로 8월 대비 18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948만 톤, 2023/24년 대비 3,7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3,644만 ha로 2024/25년 대비 289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11.72톤으로 2024/25년 대비 0.4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3,225만 톤으로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1,486만 톤, 2023/24년 대비 9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557만 톤으로 8월 대비 254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68만 톤, 2023/24년 대비 1,8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358만 톤으로 8월 대비 19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992만 톤, 2023/24년 대비 87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소비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3,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1,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26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80톤으로 2024/25년 대비 0.25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5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1,10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43만 톤으로 8월 대비 16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40만 톤, 2023/24년 대비 49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5,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2023/24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750만 ha로 2024/25년 대비 6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07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5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0만 톤, 2023/24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1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1만 톤, 2023/24년 대비 7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소비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4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27톤으로 2024/25년 대비 0.7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43만 톤으로 8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3만 톤, 2023/24년 대비 10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9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15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9만 톤, 2023/24년 대비 5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1,410만 톤으로 8월 대비 9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5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64톤으로 2024/25년 대비 0.4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110만 톤으로 8월 대비 1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00만 톤으로 8월 대비 6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3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6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수출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65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3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00만 ha로 2024/25년 대비 4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5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8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3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85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주요 수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427.11 (▲49.48/▲37.44)	332.25 (▲14.86/▲9.38)	75.57 (▲3.68/▲18.29)	53.58 (▲19.92/▲8.79)
브라질	131.00 (▼4.00/▲12.00)	95.00 (▲2.00/▲11.00)	43.00 (0.00/▲4.74)	3.43 (▼5.40/▼4.90)
아르헨티나	53.00 (▲3.00/▲2.00)	15.60 (▲0.40/▲1.00)	37.00 (▲2.50/▲0.74)	3.19 (▲0.41/▲0.71)
우크라이나	32.00 (▲5.20/▼0.50)	6.43 (▲0.63/▲1.05)	25.50 (▲4.90/▼3.99)	1.15 (▲0.09/▲0.51)
러시아	14.10 (▲0.10/▼2.50)	11.10 (▲0.50/▲0.90)	3.00 (▼0.30/▼3.60)	0.96 (▲0.05/▲0.20)
남아공	16.50 (0.00/▲3.07)	14.20 (▲0.20/▲0.36)	2.00 (▲0.20/▼0.27)	1.85 (▲0.30/▲1.2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5,530만 톤으로 8월 대비 27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01만 톤, 2023/24년 대비 66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800만 ha로 2024/25년 대비 7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91톤으로 2024/25년 대비 0.10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69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0만 톤, 2023/24년 대비 1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300만 톤으로 8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0만 톤, 2023/24년 대비 31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4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0만 톤, 2023/24년 대비 10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

산 면적이 65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82톤으로 2024/25년 대비 0.2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0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30만 톤, 2023/24년 대비 3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5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0만 톤, 2023/24년 대비 15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집트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7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95만 ha로 2024/25년 대비 3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63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30만 톤, 2023/24년 대비 1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9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1,1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15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3,126만 톤으로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12만 톤, 2023/24년 대비 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220만 톤으로 8월 대비 1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4만 톤, 2023/24년 대비 3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150만 톤으로 8월 대비 1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98만 톤, 2023/24년 대비 2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억 9,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만 톤, 2023/24년 대비 6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430만 ha로 2024/25년 대비 44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6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2023/24년 대비 1,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33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10〉 주요 수입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55.30 (▼4.01/▼6.65)	76.90 (▼0.70/▼1.20)	23.00 (▲3.00/▲3.17)	5.88 (▼0.40/▼1.43)
멕시코	24.80 (▲1.70/▲1.09)	50.50 (▲2.30/▲3.50)	25.80 (▲0.80/▲1.58)	5.75 (▲0.08/▼0.04)
일본	0.02 (0.00/▲0.01)	15.50 (▲0.25/▲0.20)	15.50 (▲0.30/▲0.21)	1.29 (▲0.02/▼0.01)
이집트	7.25 (▲0.25/▲0.05)	17.10 (▲1.30/▲1.80)	10.00 (▲1.00/▲1.98)	1.78 (▲0.15/▲0.35)
한국	0.10 (▲0.01/▲0.01)	11.60 (▲0.05/▲0.10)	11.50 (0.00/▼0.05)	2.08 (▼0.01/▲0.04)
동남아시아	31.26 (▲0.12/▲0.64)	52.20 (▲0.74/▲3.20)	21.50 (▲0.98/▲2.21)	2.84 (0.00/▼0.35)
중국	295.00 (▲0.08/▲6.16)	321.00 (▲5.00/▲14.00)	10.00 (▲7.00/▼13.33)	177.07 (▼16.02/▼34.12)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4억 2,600만 톤으로 0.5%, FAO는 4억 3,000만 톤으로 0.5% 증가를 전망한 반면, IGC는 4억 2,800만 톤으로 0.2% 감소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4,900만 톤으로 1.9%, IGC는 5억 900만 톤으로 1.6%, FAO는 4억 9,900만 톤으로 1.4%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도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4억 2,400만 톤으로 3.4%, IGC는 4억 3,000만 톤으로 2.6%, FAO는 4억 2,900만 톤으로 3.9%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800만 톤으로 2.7%, IGC는 1억 8,700만 톤으로 1.6%, FAO는 1억 8,400만 톤으로 2.8%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USDA는 1억 2,400만 톤, FAO는 6,9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7,900만 톤으로 2.5%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9.2%로 1.0%포인트, IGC는 18.4%로 0.9%포인트, FAO는 16.1%로 0.6%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9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10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24	426	0.5	429	428	-0.2	428	430	0.5
공급량	539	549	1.9	501	509	1.6	492	499	1.4
소비량	410	424	3.4	419	430	2.6	413	429	3.9
교역량	183	188	2.7	184	187	1.6	179	184	2.8
기말재고량	124	124	0.0	81	79	-2.5	69	69	0.0
기말재고율	30.2	29.2		19.3	18.4		16.7	16.1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1억 1,705만 톤으로 8월 대비 23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7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7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50만 ha로 2024/25년 대비 232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6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254만 톤으로 8월 대비 49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66만 톤, 2023/24년 대비 7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586만 톤으로 8월 대비 54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17만 톤, 2023/24년 대비 4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817만 톤으로 8월 대비 28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81만 톤, 2023/24년 대비 11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7,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0만 톤, 2023/24년 대비 2,0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880만 ha로 2024/25년 대비 14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5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2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20만 톤, 2023/24년 대비 4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90만 톤, 2023/24년 대비 7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726만 톤으로 8월 대비 3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5만 톤, 2023/24년 대비 7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4,850만 톤으로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2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650만 ha로 2024/25년 대비 8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94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한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990만 톤으로 8월 대비 6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600만 톤으로 8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385만 톤으로 8월 대비 8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20만 톤씩 감소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8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9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 주요 수출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7.05 (▼1.79/▲3.78)	72.54 (▲3.66/▲7.10)	45.86 (▼5.17/▼0.41)	8.17 (▼0.81/▼1.15)
브라질	175.00 (▲6.00/▲20.50)	62.30 (▲1.20/▲4.04)	112.00 (▲9.90/▲7.83)	37.26 (▲1.05/▲7.50)
아르헨티나	48.50 (▼2.40/▲0.29)	49.90 (▼0.50/▲6.07)	6.00 (▼1.30/▲0.89)	23.85 (▼0.20/▼0.20)
파라과이	11.00 (▲0.80/0.00)	3.30 (▲0.02/▲0.20)	7.70 (▲0.90/▼0.29)	0.45 (▲0.02/▲0.16)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수급 전망은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5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7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00톤

으로 2024/25년과 동일한 것으로 전망됐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인해 전체 소비량은 1억 3,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10만 톤, 2023/24년 대비 1,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3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77만 톤으로 8월 대비 16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8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58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682만 톤으로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8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430만 톤으로 8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대두 수급 전망은 생산량을 제외하면 8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5만 톤으로 8월 대비 2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8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2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 주요 수입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21.00 (▲0.35/▲0.16)	133.00 (▲6.10/▲11.20)	112.00 (▲5.50/0.00)	43.38 (▼0.10/▲0.07)
유럽연합	2.77 (▼0.15/▼0.04)	16.82 (▲0.30/▲0.82)	14.30 (▼0.30/▲0.84)	1.83 (▼0.05/▲0.55)
멕시코	0.25 (▼0.02/▲0.05)	6.89 (▲0.15/▲0.29)	6.70 (▲0.30/▲0.24)	0.60 (▲0.06/▼0.02)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4 Sep. 12, 2025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 (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펄펄 끓는 중입니다. 'AI'라는 용어가 스치기만 해도 대박이 터지는 양상입니다.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가 과연 그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여의도는 더 뜨겁습니다. 실물 경기나 투자자들의 체감지수가 그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AI 시대'가 펼쳐지면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시장 분석 틀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뜨거운 자산시장을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으로 해석하고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수확공식은 일단 암기부터 해야 하듯이 시장에 몸담고 있는 이상 납득이 가지 않는 장세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추세에 거스르는 의사결정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뜨거운 자산시장 시장이 믿는 구석은?

주가지수가 붐(boom)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경제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을 요즘 월가에서는 'K자형 경제 (K-shaped economy)'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K자형 '양극화'는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고율의 관세 (tariff)를 부과한다는 엄포를 통해 전후(戰後) 자유무역체제를 무위로 돌리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고, AI(인공지능) 열풍이 지구촌을 강타하는 와중에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료 1]에서 보듯이 대다수 세계 증시는 불을 뿜고 있다. 아침마다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뉴스를 접해도 별 감흥이 없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특히 대한민국 증시(KOSPI)는 지난 몇 년간의 부진에 대한 한풀이에라도 나선 듯이 금년 들어 글로벌 증시 중 최고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 gfm5298@gmail.com

[자료 1] 美 S&P500 지수 & 韓 KOSPI 월간 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10월 24일 장 마감 후)

주식뿐만 아니라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치솟기만 하는 이른바 'Everything rally'의 배경은 무엇일까? 필자는 (자산)시장이 믿는 구석 세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화수분처럼 뿜어져 나오는 유동성의 향연이다. [자료 2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추이를 보여준다.

중국의 유동성 팽창이 워낙 방대하기에 여타 주요 선진국들의 '돈 풀기' 속도가 완만해 보이지만 개별 지표로 들어가 살펴보면 금년 들어 우상향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美, 中, 日 경제 대국들의 국가 지도자들이 '저금리와 돈 찍어내기'라는 손쉽지만 상당한 부작용과 비극적 후과(後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호하거나 지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뼈아픈 역사를 겪었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했던 독일마저도 유로존 출범 이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왔던 재정 준칙을 스스로 깨뜨려가며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부활보다는 돈 찍어내기로 뭇가를 도모해 보고자 나서는 중이다.

[자료 2]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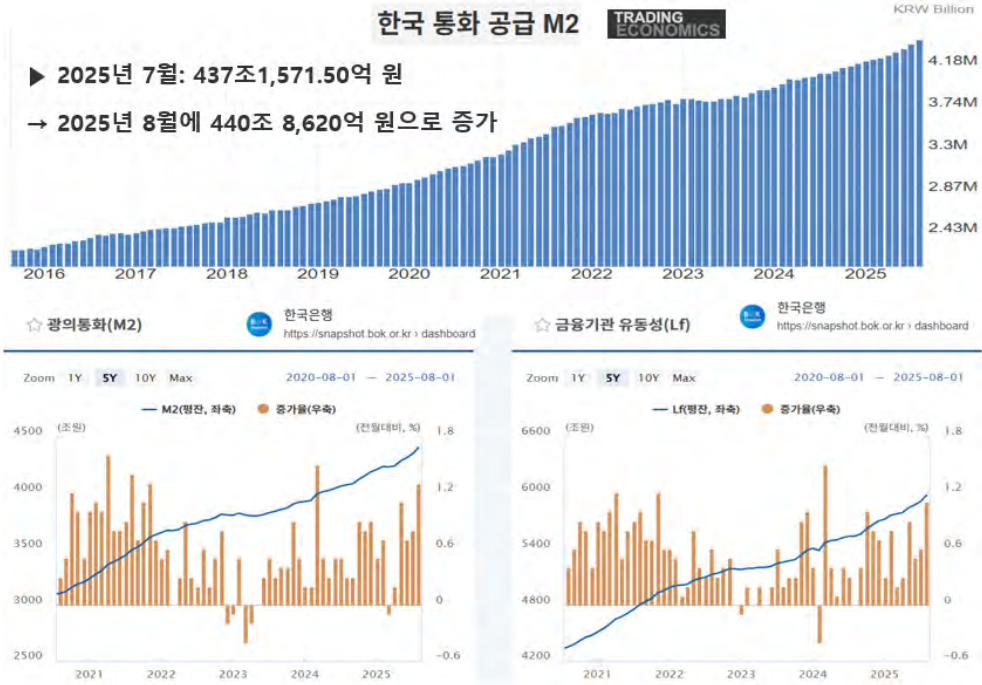
인용: Trading View, 구글

[자료 3] 화폐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그만큼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비싸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가 요즘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자산가격의 급등이고, 그래서 요즘 또 자주 듣는 용어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이다(자료 3 참조). 금화(金貨)의 금 함유량을 줄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나 액면가가 상평통보의 100 배에 달하지만 구리의 함량은 6~8배에 불과한 당백전(當百錢)을 찍어냈던 흥선 대원군 등이 이 용어를 공부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역사적 인물들이다(종이에 0의 숫자만 늘려 인쇄하면 고액권인줄 알았던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도 끼워줄 것인지는 각자의 취향이다). [자료 4]는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8월까지의 통계만 반영되어 있는데, 가팔라진 상승 기울기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료 5]는 국외 유동성의 급격한 유입 현상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인데, 특히 중국 자본의 한국 자산 매수 열기는 앞으로 경계감을 지니고 관찰해야 할 현상일 것이다.

[자료 4] 대한민국의 유동성 추이



인용: Trading Economics, 한국은행

[자료 5] 한국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 자본

[단독] 차이나 머니의 공습.. 韓 국채·주식·부동산 닥치는 대로 사들이
"中 보유 한국 국채, 美의 2배 이상"

2025.09.29. 18:52
朝鮮日報



대(對)한국 외국인 직접 투자액

전체 345억7000만달러

중국(홍콩 포함) 67억9400만달러	일본 61억2100만	미국 52억3600만	EU(유럽연합) 50억9900만
-------------------------	----------------	----------------	----------------------

※2024년 신고액 기준, 기타 113억2000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대륙별 한국 국채 보유 현황

138조 7860억원	109조 6650억	27조 4860억	14조 5360억	16조 1900억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	기타

※8월 말 기준, 합계 306조6630억원 자료=국회 최은석 의원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 등기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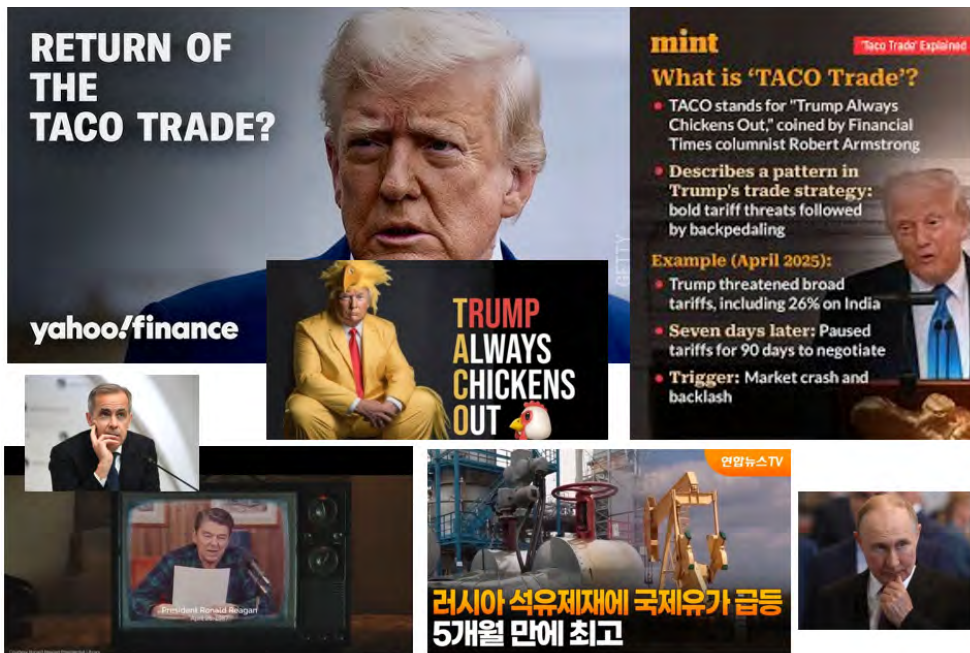
중국 1만1363명	베트남 576
미국 2531	러시아 298
캐나다 671	※2024년 연간

자료=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인용: 조선일보(9/29)

시장이 믿는 구석 두 번째로는 금년 들어 모든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코(TACO)’를 꼽을 수 있겠다(자료 6 참조). 4월 2일 ‘해방의 날’ 운운하며 상호 관세 부과라는 충격파를 던졌다가 금융시장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자 일주일 만에 ‘對중국 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시장은 그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이후 세상이 황당해할 만한 超강경책을 발표했다가 상대가 수그러들거나 협상을 시도하면 금세 누그러지는 행태를 보이자 SNS에서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내뺀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밈(meme)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약속한 對美 투자금액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놓으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고,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교묘히 이용하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흠집을 내러 한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전격 중단하고, 러시아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기도 했지만 한국 증시나 캐나다 증시, 그리고 국제유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자료 6]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금융시장이 어지간한 악재에는 둔감한 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 세 번째로는 'Fed Put'과 'Trump Put'을 꼽고자 한다(자료 기 참조). 폴 볼커 시절의 연준(1979.8월~1987.8월)은 단호했다. 앨런 그린스펀(1987.8월~2006.1월)은 현란한 화술과 선제적(preemptive) 통화정책으로 '마에스트로'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배아(胚芽)는 그의 재임 중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이후 벤 버냉키(2006.2월~2014.1월)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까지 '양적 완화(QE)'라고 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물꼬를 튼 이후 재닛 옐런과 제롬 파월로 이어지는 연준(Fed) 의장들은 'QE'를 일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처럼 구사해 왔다. 당장 이번 10월 FOMC(10/28~29)에서는 '양적 긴축(QT) 중단'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 파월 의장 후임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조금이라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일 경우 'QE 재개 가능' 운운하는 기사들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풋 옵션(가격 하락 헤지 수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트럼프 풋'에 대한 설명은 앞서 살펴본 'TACO'의 내용으로 같음한다.

[자료 기] '연준 풋' & '트럼프 풋'



Fed Put

◆ 시 개요

'페드 풋(Fed Put)'은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가 금리인하, 양적완화(QE) 등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을 방어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을 막아주는 '풋 옵션(Put Option)'에 빗대어 사용되며, 연준 의장의 이름(예: 파월 풋)을 붙여 특정 시기 연준의 시장 개입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E 이데일리 2025. 3. 8.

美재무장관 "트럼프 풋 없다..재정 중독된美경제 디톡스 필요"

'풋 옵션'은 특정 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계약인데, '트럼프 풋'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방어를 위해 직접적 개입을 할...

연합뉴스 2025. 4. 10.

뉴욕증시, '사라 했다' 트럼프 풋 나왔다...나스닥 12% 폭등 마감

트럼프는 이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



Markets gave up on the 'Trump put,' but Bank of America says it's alive and well

March 27, 2025 at 4:57 AM EDT

FORTUNE

■ 가까운(먼?) 미래의 걱정거리 & ‘소문난 잔치’ APEC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 나가보면 간조(썰물) 때의 모습과 만조(밀물) 때의 모습은 전혀 딴 바다처럼 보인다. 드러난 뺨 위에는 작은 어선들을 비롯해 온갖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뜨거나 그 깊은 물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지금은 유동성의 밀물로 인해 모든 것이 붕 떠오르고 있지만 그 물 속에는 쓰레기나 유해물도 적지 않을 터이다. [자료 8]에서는 살짝 그림자는 비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찝찝한 그 무언가를 일부 정리해 두었다. AI 붐을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자신이 가장 먼저 제기했던 ‘AI 투자 버블론’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원화로 1경(京)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에 나서겠다고 한다. 오픈 AI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노리는 듯한데, 투자에 이은 수익 창출이 관건이다.

[자료 8] 새롭게 등장하는 ‘회색 코뿔소’

[자료 8]의 오른쪽 부분은 미국의 퇴직연금 401K가 사모펀드, 가상화폐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 최근의 미국 상황, 그리고 때 이르게 발생한 일부 기업과 지역은행의 사모펀드 관련 파산 소식을(제이미 다이먼은 바퀴벌레의 출현이라고 경계함) 소개하고 있다. 또 한 마리의 회색 코뿔소가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10월 말과 11월 초에 걸쳐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일정이 잡혀있다 ([자료 9] 참조). 韓-美(10/29), 美-中(10/30), 韓-中(10/31) 정상회담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쟁쟁한 거물급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한국 방문에 나서는 큰 행사다.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실제적인 결과물이 다를 수 있기에 향후에도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기술 경쟁력도 갖춘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APEC을 계기로 세계 우수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도약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9] APEC 2025 개요 및 방한 예정된 경제계 거물들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APEC 2025 KOREA website. The main content area is green and white. It includes a header with the APEC logo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section is titled '회의 개요' (Meeting Overview) and lists the following details:

- 행사명** (Event Name):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장소** (Venue): 경주, 제주, 인천, 부산
- 주제 및 중점과제** (Theme and Key Tasks):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

Below the text, there are two rows of speaker photos. The first row shows three men: Jenson Huang (엔비디아), Matt Garman (아마존), and Andy Jassy (아마존). The second row shows three men: Anthony C. (마이크로소프트), Sam Altman (메타), and Eric E. (티톡). A small video player shows a news clip of Kim Jong-un and Donald Trump meeting in Pyongyang on June 30, 2019.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맷 가먼 아마존 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문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부사장, 사이먼 밀러 메타 부사장, 에릭 이벤스타인 틱톡 공공정책 총괄

■ 한국 증시, 조정 없이 내달릴 것인가?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몸소 겪고 있는 시장참여자들라면 “큰 장이 섰다!”는 표현에 딱히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 같다(자료 10 참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TACO’를 확인한 지난 4월 초 이후의 지수 상승 폭과 속도는 지난 2020년의 ‘코로나 랠리’를 능가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뒷받침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등하기도 했지만 국내적으로 6월 4일 대선(大選)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적으로 강력한 증시 부양에 나선 것도 크게 작용했다. 연초 이후 10월 29일까지 KOSPI 시장에서 누적 개념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4조 4천억, 기관투자자들이 11조 3천억, 기타법인이 11조 6천억(상당 부분이 자사주 매입일 것으로 추정)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27조 4천억 원의 순매도에 나서며 모처럼의 차익실현과 그 간의 손실 복구를 즐겼지만 포지션 정리 이후에도 계속 ‘날아가는 증시’에 당황하는 양상이다. 80조 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이 사사하듯이 많은 개인들은 지금도 증시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 10] KOSPI 주간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10월 28일 12:00 현재, 이하 같음)

[자료 11] 삼성전자 & 에코프로 주가 월간차트



[자료 11]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마침내 별이 들었다. 2020년 3월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랠리’ 때 그토록 갈망했던 ‘10만 전자’를 마침내 달성하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비현실적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이클 산업으로 여겨져 온 반도체 부문이 ‘AI 시대’를 맞아 지금은 성장주처럼 인식되고 주가도 평가받는 양상이다. 코스피나 삼성전자 주가나 월간차트, 일간차트 가릴 것 없이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이 무색해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단기 이동평균선에서도 발을 떼고 구름 위를 날듯이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조지표들의 과매수 경고가 오랜 기간 무시되고 있다. 이차전지 광풍이 휘몰아치던 당시 대장주로 인식되었던 에코프로의 주가도 포효하기 시작했다.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른바 ‘파블’을 내는 급등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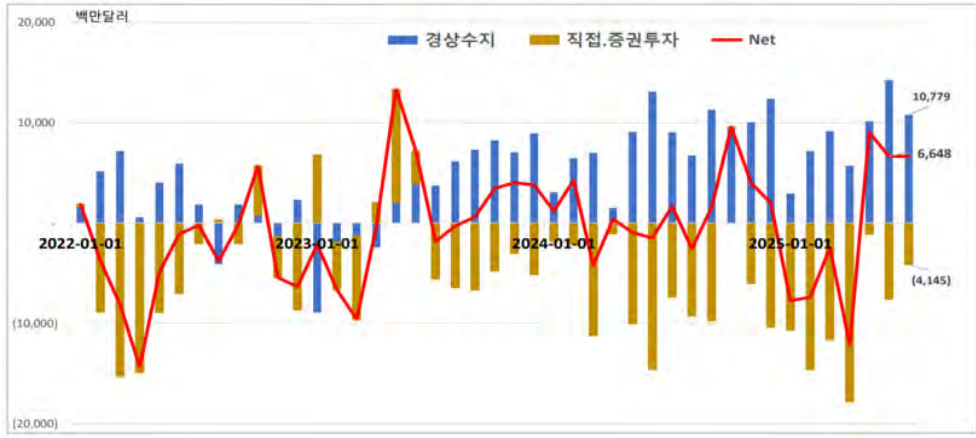
연출하고 있지만 고점 대비로는 아직도 -70% 가까운 손실 구간이다. 언제 어디서 배터리 부문의 지식과 경력을 쌓았는지 알 수 없고, 무모해 보일 정도의 주가 예측과 매수 권유 이후 사이비 종교 교주 행세를 하던 몇몇 ‘마바라’들은 팔자 고쳤지만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심신이 피폐해지는 몇 년 혹은 몇 달을 보낸 뒤 마침내 ‘큰 장’을 맞이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는 밈 주식(meme stock)이, 서울에서는 테마주(theme stock)가 황당한 시세 분출 이후 급락하고, 그러면 다른 섹터의 ‘털 주목받았고 오랜 기간 낮은 주가에 머물렀던 주식’을 찾아 또 급등시키는 소위 ‘발 빠른 순환매 장세’는 이럴 때 주식 시황에서 거의 매일 마주하는 단골 코멘트다. 상승 마감 종목보다 하락 마감 종목들이 더 많은 날을 자주 접하게 되는 ‘강세장’에서 지혜롭게 파티를 즐길 때다.

2. 환율 동향 및 전망

■ 외환시장의 수급(需給) 구도에 구조적 변화가 고착화되는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달러인덱스의 고점은 2022년 9월 28일의 114.78이었다. 당시 달러/원(USDKRW) 환율은 1,444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졌을 당시인 금년 4월 9일에 달러/원 환율은 1,487.60원의 장 중 고점을 찍었고 당시 달러인덱스는 102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10월 중 달러인덱스가 98 근처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인 와중에 달러/원은 다시 1,440원 선을 건드린 뒤 10원 정도 낮아진 레벨에서 FOMC를 기다리고 있다. 즉 달러/원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 중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글로벌 달러 시세와 비교해보면 우리 원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다(다만 ‘아베노믹스 2.0’을 기대하게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집권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엔화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12] 국내 외환시장 내 수급(需給) 현황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면 7개월 연속 흑자, 환율 하락에 영향력 전무

해외투자 확대로 달러 실수요 증가, 환율 레벨과 상관없이 기업 외화예금 증가



출처: Bloomberg, 우리은행 외환시장운영부

인용: 류현정(전북은행), 민경원(우리은행)

[자료 12]는 무역수지 내지 경상수지의 흑자(또는 적자) 여부를 먼저 살피던 환율 전망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수지 흑자를 능가하는 규모로 해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할 판이니 바깥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굳이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줄어든다. ‘서학 개미’들은 금년 들어 한국 증시가 불을 뿜으며 여타 글로벌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로 회귀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달러를 직접 매수하든지 ‘바이 앤 셀스왑(Buy & Sell swap)’으로 조달하든지 해서 미국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래저래 달러 수요는 많다 보니 FX 스

왁 포인트는 마이너스(-) 구간에서 회복될 기미가 없어 수입업체들은 나중에 필요한 달러조차도 미리 싼 가격에 매입해두려 든다.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 추이에서도 보듯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굳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달러약세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적지 않게 발간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심 달러약세를 원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지만 원화보다는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시장 심리가 강한 것이다.

[자료 13] 달러/원(USDKRW) & 달러인덱스 주간 일목균형표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면 옥수수 가격은 8월 중반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9월 중반까지 오른 이후 10월 중순까지 박스권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다. 대두 가격은 8월 초반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4월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됐으나 이후 급반등했다. 9월 중반부터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10월로 들어서면서 다시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밀 가격은 6월 중반 급등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타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연중 최저치를 거듭해서 갈아치우고 있다.

2025/26년 세계 밀, 옥수수, 대두 생산량은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량과 교역량 증가로 인해 기말재고율은 낮아지고 있다. 옥수수의 기말재고율이 18.9%로 2024/25년 대비 0.6% 떨어졌으며 대두는 20.3%로 0.5%, 밀은 25.7%로 0.1% 내려갔다.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기말재고율 하락 정도가 심해 가격은 상승 지지를 받고 있음에 반해 기말재고율 하락 정도가 미미한 밀 가격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외부 시장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회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강력한 대중 무역 보복 위협,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우려로 뉴욕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9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미·중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회동 기대감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 셋다운 장기화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으며 달러 가치는 강세로 전환됐다. 중동 및 흑해에서의 지정학적 위험,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했다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 합의 소식에 유가는 급락했다.

새 회계연도 미국 연방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셋다운이 10월 1일부터 발생해 미국 농무부(USDA)는 주요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수급 관련 지표 부재로 인해 곡물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러 가치 상승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약세 위주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 agscouter@naver.com

1.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선물가격 동향¹⁾

1.1 밀

2025년 9월 이후의 밀(연질 적색 겨울밀)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12월물이 기준이 되는 9월 1주 차(9/1~9/8) 평균 가격은 5.23달러, 최고가는 5.28달러, 최저가는 5.19달러이다. 가격은 5.28달러에서 개시되어 5.2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4달러 하락했다. 글로벌 공급량 증가와 수출 경쟁 심화, 기술적인 매도세 등으로 인해 밀 가격은 내려갔으나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낙폭은 줄어들었다.

9월 2주 차(9/9~9/15) 평균 가격은 5.21달러, 최고가는 5.25달러, 최저가는 5.15달러이다. 가격은 5.20달러에서 개시되어 5.2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5달러 상승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밀 가격은 내려갔다가 수급 전망 악화로 인해 반등했다.

9월 3주 차(9/16~9/23) 평균 가격은 5.23달러, 최고가는 5.34달러, 최저가는 5.11달러이다. 가격은 5.34달러에서 개시되어 5.2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3달러 하락했다. 달러 강세에 따른 기술적인 매도세와 캐나다의 생산량 증가 전망, 흑해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밀 가격은 다시 내려갔다.

9월 4주 차(9/24~9/30) 평균 가격은 5.19달러, 최고가는 5.27달러, 최저가는 5.08달러이다. 가격은 5.20달러에서 개시되어 5.0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2달러 하락했다.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양호, 달러 가치 하락과 기술적인 매수세 등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분기 재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

10월 1주 차(10/1~10/7) 평균 가격은 5.12달러, 최고가는 5.15달러, 최저가는 5.07달러이다. 가격은 5.09달러에서 개시되어 5.0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와 달러 가치 상승, 기술적인 매도세 등으로 인해 밀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다.

10월 2주 차(10/8~10/15) 평균 가격은 5.01달러, 최고가는 5.07달러, 최저가는 4.97달러이다. 가격은 5.07달러에서 개시되어 4.99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8달러 하락했다. 과매도 인식으로 인해 밀 가격은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글로벌

1)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가격임

공급량 증가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했다.

10월 3주 차(10/16~10/23) 평균 가격은 5.05달러, 최고가는 5.13달러, 최저가는 5.00달러이다. 가격은 5.03달러에서 개시되어 5.1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0달러 상승했다. 저가 매수세 유입과 외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밀 가격은 반등했다.

〈그림 1〉 CME 밀(SRW)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셀)



자료: CME

1.2 옥수수

2025년 9월 이후의 옥수수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12월물이 기준이 되는 9월 1주 차(9/1~9/8) 평균 가격은 4.20달러, 최고가는 4.23달러, 최저가는 4.18달러이다. 가격은 4.23달러에서 개시되어 4.2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1달러 하락했다. 유가 급락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내려갔으나 미국의 주간 수출 검사 실적 양호로 인해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9월 2주 차(9/9~9/15) 평균 가격은 4.22달러, 최고가는 4.30달러, 최저가는 4.17달러이다. 가격은 4.20달러에서 개시되어 4.2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3달러 상승했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옥수수 가격은 내려갔다가 수급 전망에서 미국과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이 하향 조정되어 반등했다.

9월 3주 차(9/16~9/23) 평균 가격은 4.25달러, 최고가는 4.30달러, 최저가는 4.22달러이다. 가격은 4.30달러에서 개시되어 4.26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4

달러 하락했다. 미국에서의 생육 상태 악화로 인해 옥수수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다시 반락했다.

9월 4주 차(9/24~9/30) 평균 가격은 4.22달러, 최고가는 4.26달러, 최저가는 4.16달러이다. 가격은 4.24달러에서 개시되어 4.16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8달러 하락했다. 멕시코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 소식은 이어졌으나 달러 강세로 인한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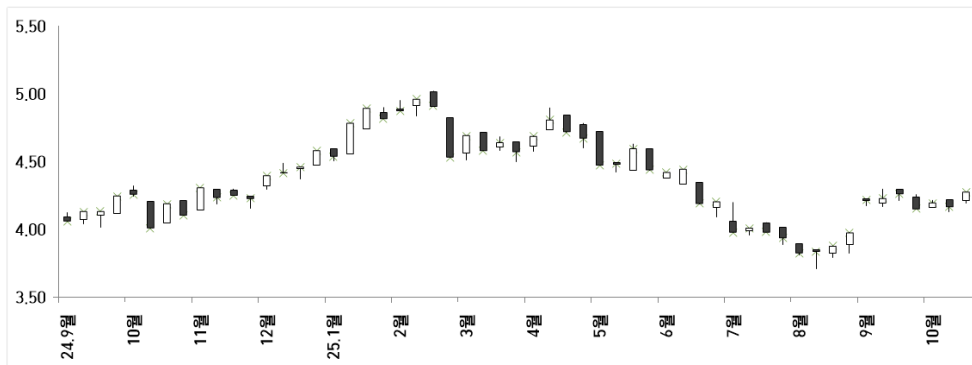
10월 1주 차(10/1~10/7) 평균 가격은 4.20달러, 최고가는 4.22달러, 최저가는 4.17달러이다. 가격은 4.16달러에서 개시되어 4.2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4달러 상승했다. 미국 콘벨트 동부 지역 비 소식과 수확 지연 우려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반등했다.

10월 2주 차(10/8~10/15) 평균 가격은 4.16달러, 최고가는 4.22달러, 최저가는 4.13달러이다. 가격은 4.22달러에서 개시되어 4.1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5달러 하락했다. 미국 연방 정부 섰다운 장기화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우려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져 옥수수 가격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은 줄어들었다.

10월 3주 차(10/16~10/23) 평균 가격은 4.23달러, 최고가는 4.28달러, 최저가는 4.20달러이다. 가격은 4.22달러에서 개시되어 4.2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6달러 상승했다. 미국의 옥수수 수출 수요 증가 기대감과 유가 폭등에 따른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반등했다.

〈그림 2〉 CME 옥수수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1.3 대두

2025년 9월 이후의 대두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11월물이 기준이 되는 9월 1주 차(9/1~9/8) 평균 가격은 10.33달러, 최고가는 10.41달러, 최저가는 10.27달러이다. 가격은 10.41달러에서 개시되어 10.3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7달러 하락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대두 가격은 내려갔다.

9월 2주 차(9/9~9/15) 평균 가격은 10.36달러, 최고가는 10.46달러, 최저가는 10.25달러이다. 가격은 10.31달러에서 개시되어 10.4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2달러 상승했다.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호조와 수급 전망에서 세계 대두 수급이 전월 대비 악화하자 대두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9월 3주 차(9/16~9/23) 평균 가격은 10.30달러, 최고가는 10.50달러, 최저가는 10.11달러이다. 가격은 10.50달러에서 개시되어 10.1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38달러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과 기술적인 매도세, 미국의 주간 판매 실적 부진,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배제와 계절적 하락 요인, 아르헨티나의 임시 수출세 면세 조치 등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급락했다.

9월 4주 차(9/24~9/30) 평균 가격은 10.09달러, 최고가는 10.14달러, 최저가는 10.09달러이다. 가격은 10.09달러에서 개시되어 10.0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7달러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세 일시 폐지,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다.

10월 1주 차(10/1~10/7) 평균 가격은 10.19달러, 최고가는 10.24달러, 최저가는 10.13달러이다. 가격은 10.13달러에서 개시되어 10.2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9달러 상승했다. 대내외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대두 구매 중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두 가격은 반등했다.

10월 2주 차(10/8~10/15) 평균 가격은 10.13달러, 최고가는 10.30달러, 최저가는 10.07달러이다. 가격은 10.30달러에서 개시되어 10.0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3달러 하락했다.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 장기화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우려로 인해 대두는 약세로 전환됐다.

10월 3주 차(10/16~10/23) 평균 가격은 10.29달러, 최고가는 10.45달러, 최저가는 10.11달러이다. 가격은 10.11달러에서 개시되어 10.4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34달러 상승했다. 미국 내 착유용 소비량 증가와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시장

에 대한 수출 활로 개척 기대감,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과 유가 폭등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반등했다.

〈그림 3〉 CME 대두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셀)



자료: CME

2. 수급 지표와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2)

2.1 밀

2.1.1 세계 밀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3%, 생산량이 0.2% 감소하고 수입량이 0.3%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1% 감소했으나 수출량이 0.2%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6%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25.4%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망은 8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1.2%, 수입량이 0.5%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0.6%씩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1.5%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도 25.7%로 8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2) 미국 연방 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미국 농무부(USDA)는 10월 1일부터 10월 24일 현재까지 수급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9월까지의 수급 지표를 중심으로 작성됨

〈표 1〉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9(A)	262.42	816.20	210.56	814.56	214.72	264.06	25.7
25/26.8(B)	262.70	806.90	209.46	809.53	213.53	260.08	25.4
25/26.7(C)	263.59	808.55	208.84	810.62	213.06	261.52	25.5
증감률(A/B)	-0.1	1.2	0.5	0.6	0.6	1.5	
증감률(B/C)	-0.3	-0.2	0.3	-0.1	0.2	-0.6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1.2 밀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겨울밀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9월부터 파종이 시작됐으며 9월 말까지 파종 속도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뒤쳐져 있다. 9월 후반부터 발아가 이루어졌으며 발아 속도는 9월 31일 현재 13%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 앞서있다.

〈표 2〉 미국 농무부의 겨울밀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8/24	8/31	9/7	9/14	9/21	9/28
파종률			5(6)	11(13)	20(23)	34(36)
발아율					4(4)	13(12)

※ 파종률, 발아율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임

봄밀의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수확 속도가 8월 말부터 최근 5년 평균보다 앞섰으며 9월 후반 수확을 마무리했다. 8월 24일 기준 봄밀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49%로 작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표 3〉 미국 농무부의 봄밀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8/24	8/31	9/7	9/14	9/21	9/28
수확률	53(54)	72(71)	85(84)	94(92)	96(96)	
GTE	49(69)					

※ 수확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생산량이 0.1%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4% 감소했으나 수출량이 2.9%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2.4%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42.8%로 7월 전망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망은 8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는 변동 없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2.9%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2.9%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41.1%로 8월 전망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표 4〉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9(A)	23.15	52.45	3.27	31.41	24.49	22.96	41.1
25/26.8(B)	23.15	52.45	3.27	31.41	23.81	23.64	42.8
25/26.7(C)	23.15	52.49	3.27	31.54	23.13	24.23	44.3
증감률(A/B)	0.0	0.0	0.0	0.0	2.9	-2.9	
증감률(B/C)	0.0	-0.1	0.0	-0.4	2.9	-2.4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9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4,540만 에이커로 8월 전망과 동일했으나 2024/25년 대비 70만 에이커 감소했다. 생산 면적은 3,660만 에이커로 8월 전망과 동일했으나 2024/25년 대비 190만 에이커 감소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9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2.7부셸로 제시되어 8월 전망과 동일했으나 2024/25년 대비 1.5부셸 증가했다.

〈표 5〉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7월 전망	8월 전망	9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46.1	45.5	45.4	45.4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38.5	36.6	36.6	36.6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51.2	52.6	52.7	52.7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유럽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을 2,300만 톤, 수출량을 1,5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7%, 수출량은 4.8%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러시아의 밀 생산량을 8,500만 톤, 수출량을 4,5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4.2%, 수출량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을 1억 4,010만 톤, 수출량을 3,2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4.7%, 수출량은 16.9% 증가할 전망이다.

다. 기타

호주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호주의 밀 생산량을 3,450만 톤, 수출량을 2,5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1% 증가함에 반해 수출량은 동일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밀 생산량을 3,600만 톤, 수출량을 2,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2% 증가함에 반해 수출량은 7.8%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을 1,600만 톤, 수출량을 8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3.9%, 수출량은 21.6%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을 1,950만 톤, 수출량을 1,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5.2%, 수출량은 18.2%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인도의 밀 생산량을 1억 1,751만 톤으로 제시했으며 수출 통제로 인해 밀 수출량은 2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7%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

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밀 생산량을 1억 4,000만 톤, 수입량을 6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1% 감소함에 반해 수입량은 18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2.2 옥수수

2.2.1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4%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2.0%, 수입량이 2.3%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1.0%, 수출량이 2.6%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3.8%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도 19.0%로 7월 전망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9월 전망은 8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4%, 수입량이 0.5% 증가했으나 생산량이 0.2%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0.4%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4%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18.9%로 8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표 6〉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9(A)	284.18	1286.58	193.20	1289.36	201.71	281.40	18.9
25/26.8(B)	283.11	1288.58	192.16	1289.15	200.86	282.54	19.0
25/26.7(C)	284.18	1263.66	187.76	1275.76	195.81	272.08	18.5
증감률(A/B)	0.4	-0.2	0.5	0.0	0.4	-0.4	
증감률(B/C)	-0.4	2.0	2.3	1.0	2.6	3.8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2.2 옥수수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옥수수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호숙(dough) 단계 진입은 9월 초반에 마무리됐으며 황숙(dented) 단계 진입도 9월 말 마무리됐다. 8월 중반 등숙(mature)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9월 중반을 지나면서 최근 5년 평균 대비 등숙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 9월 초반부터는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 속도는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하다. 9월 28일 기준 수확률은 18%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 뒤처졌다. 생육 상태의 우

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작년 대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점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9월 28일 기준 옥수수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은 66%로 작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표 7〉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8/24	8/31	9/7	9/14	9/21	9/28
호수률	83(84)	90(91)	96(95)			
황수률	44(44)	58(60)	74(75)	85(86)	91(93)	95(96)
등수률	7(7)	15(14)	25(25)	41(41)	56(59)	71(74)
수확률			4(3)	7(7)	11(11)	18(19)
GTE	71(65)	69(65)	68(64)	67(65)	66(65)	66(64)

※ 호수률, 황수률, 등수률, 수확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2.6%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6.6%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2.1%, 수출량이 7.5%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27.5%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도 13.3%로 7월 전망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9월 전망은 8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1.5%, 생산량이 0.4%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3.5%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4%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13.1%로 8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표 8〉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9(A)	33.66	427.11	0.64	332.25	75.57	53.58	13.1
25/26.8(B)	33.15	425.26	0.64	332.25	73.03	53.77	13.3
25/26.7(C)	34.04	398.93	0.64	325.48	67.95	42.17	10.7
증감률(A/B)	1.5	0.4	0.0	0.0	3.5	-0.4	
증감률(B/C)	-2.6	6.6	0.0	2.1	7.5	27.5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살펴보면 9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9,870만 에이커로 8월 전망 대비 14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810만 에이커 증가했다. 생산 면적은 9,000만 에이커로 8월 전망 대비 13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710만 에이

커 증가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9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186.7부셀로 제시되어 8월 전망 대비 2.1부셀 감소했으나 2024/25년 대비 7.4부셀 증가했다.

〈표 9〉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7월 전망	8월 전망	9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90.6	95.2	97.3	98.7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2.9	86.8	88.7	90.0
단위당 수확량(부셀/에이커)	179.3	181.0	188.8	186.7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10월 14일 2022/26년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 전망을 발표했으며 전체 생산량은 1억 3,8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2023/24년 대비 20.0% 증가했다. 1기작 생산량은 2,56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8%, 2023/24년 대비 11.6% 증가했다. 2기작 생산량은 1억 1,04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 감소했으나 2023/24년 대비 22.7% 증가했다. 3기작 생산량은 2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3.1% 감소했으나 2024/25년과는 동일했다. 수출량은 4,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6.3%, 2023/24년 대비 20.8% 증가했다.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을 1억 3,100만 톤, 수출량을 4,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0% 감소함에 반해 수출량은 변동 없을 전망이다.

〈표 10〉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23/24	2024/25	2025/26
전체 생산량	115.53	141.10	138.60
1기작 생산량	22.96	24.94	25.63
2기작 생산량	90.06	113.27	110.46
3기작 생산량	2.51	2.89	2.51
수출량	38.50	40.00	46.50

자료: CONAB, SAFRA 2025/26 1st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5,300만 톤, 수출량을

3,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6.0%, 수출량은 7.2% 증가할 전망이다.

다. 유럽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3,200만 톤, 수출량을 2,5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9.4%, 수출량은 21.4%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을 5,530만 톤, 수입량을 2,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6.8% 감소함에 반해 수입량은 15.0% 증가할 전망이다.

라. 기타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을 1,650만 톤, 수출량을 2,0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변동 없겠으나 수출량은 20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을 1,555만 톤, 수출량을 22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3% 증가하겠으나 수출량은 55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을 2,480만 톤, 수입량을 2,58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7.4%, 수입량은 3.2%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2억 9,500만 톤, 수입량을 1,0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변동 없겠으나 수입량은 7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2.3 대두

2.3.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증가했으나 생산량이 0.3%, 수입량이 0.1%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0.1%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0.9%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20.4%로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망은 8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1.3%, 생산량이 0.1% 감소했으나 수입량이 0.2%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3% 감소했으나 수출량이 0.2%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7%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20.3%로 8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9(A)	123.58	425.87	186.21	423.89	187.78	123.99	20.3
25/26.8(B)	125.19	426.39	185.86	425.10	187.44	124.90	20.4
25/26.7(C)	125.12	427.68	186.06	425.17	187.63	126.07	20.6
증감률(A/B)	-1.3	-0.1	0.2	-0.3	0.2	-0.7	
증감률(B/C)	0.1	-0.3	-0.1	0.0	-0.1	-0.9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3.2 대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대두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9월 초반에 착협(setting pods) 단계 진입이 마무리됐다. 8월 중반부터 낙엽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9월 28일 기준 낙엽률은 79%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2%포인트 앞섰다. 9월 중반부터 수확에 들어갔으며 9월 28일 기준 수확률은 19%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 뒤처졌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8월 후반까지 작년 대비 높았으나 9월 이후로는 작년 대비 하락했다. 9월 28일 기준 대두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은 62%로 작년 동기 대비 2%포인트 내려갔다.

〈표 12〉 미국 농무부의 대두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8/24	8/31	9/7	9/14	9/21	9/28
착험률	89(89)	94(94)	97(97)			
낙엽률	4(4)	11(10)	21(22)	41(40)	61(60)	79(77)
수확률				5(3)	9(9)	19(20)
GTE	69(67)	65(65)	64(65)	63(64)	61(64)	62(64)

※ 착험률, 낙엽률, 수확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5.7%, 생산량이 1.0%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1%, 수출량이 2.3%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6.5%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6.7%로 7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망은 8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0.2%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7% 증가했으나 수출량이 1.2%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3.5%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도 6.9%로 8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표 13〉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9(A)	8.98	117.05	0.54	72.54	45.86	8.17	6.9
25/26.8(B)	8.99	116.82	0.54	72.05	46.40	7.89	6.7
25/26.7(C)	9.53	117.98	0.54	72.12	47.49	8.44	7.1
증감률(A/B)	-0.1	0.2	0.0	0.7	-1.2	3.5	
증감률(B/C)	-5.7	-1.0	0.0	-0.1	-2.3	-6.5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살펴보면 9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8,110만 에이커로 8월 전망 대비 20만 에이커 증가했으나 2024/25년 대비 600만 에이커 감소했다. 생산 면적은 8,030만 에이커로 8월 전망 대비 20만 에이커 증가했으나 2024/25년 대비 580만 에이커 감소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9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3.5부셸로 8월 전망 대비 0.1부셸 감소했으나 2024/25년 대비 2.8부셸 증가했다.

〈표 14〉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7월 전망	8월 전망	9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87.1	83.4	80.9	81.1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6.1	82.5	80.1	80.3
단위당 수확량(부셀/에이커)	50.7	52.5	53.6	53.5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2025/26년 브라질의 대두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10월 1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은 1억 7,76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6%, 2023/24년 대비 17.4% 증가하겠다. 수출량은 1억 1,21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1%, 2023/24년 대비 13.5% 증가하겠다.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을 1억 7,500만 톤, 수출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6%, 수출량은 9.7% 증가할 전망이다.

〈표 15〉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23/24	2024/25	2025/26
생산량	151.28	171.48	177.64
수출량	98.81	106.66	112.12

자료: CONAB, SAFRA 2025/26 1st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을 4,850만 톤, 수출량을 6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4.7%, 수출량은 17.8% 감소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을 1,100만 톤, 수출량을 77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7.8%, 수출량은 13.2% 증가할 전망이다.

다. 기타

중국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을 2,100만 톤, 수입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7%, 수입량은 5.2%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을 277만 톤, 수입량을 1,43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5.1%, 수입량은 2.1% 감소할 전망이다.

3. 외부 시장과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025년 9월 1주 차(9/1~9/8)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9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OPEC+ 회의를 앞두고 유가는 상승한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에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대두 및 밀 가격은 하락했다. 9월 3일 고용지표 악화로 다우지수와 달러 가치는 하락한 가운데 OPEC+가 증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되어 유가는 2% 넘게 떨어졌다. 유가 급락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9월 4일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해져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달러 가치는 소폭 오른 가운데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증가로 인해 유가는 내려갔다. 기술적인 매수세 및 숏커버링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소폭 반등했다. 글로벌 공급량 증가와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해 밀 가격은 추가 하락했다. 9월 5일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지표 악화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했으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짙어져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미국 고용지표 악화와 OPEC+의 증산 가능성에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약세로 전환됐으며, 주간 수출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해 밀 가격도 추가 하락했다. 9월 8일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반발 매수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으나 고용지표 악화 여파로 달러 가치는 추가 하락했다. OPEC+가 증산을 결정했으나 예상보다 증산 규모가 줄어 유가는 반등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표 16〉 9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9/2	9/3	9/4	9/5	9/8
DOW	45,295.81	45,271.23	45,621.29	45,400.86	45,514.95
Dollar Index	98.40	98.14	98.35	97.74	97.45
WTI(25.12월물)	64.64	63.24	62.69	61.18	61.62
옥수수(25.12월물)	423.00	418.00	419.75	418.00	421.75
밀(SRW,25.12월물)	528.25	522.00	519.50	519.25	523.75
대두(25.11월물)	1,041.00	1,031.50	1,033.00	1,027.00	1,033.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9월 2주 차(9/9~9/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9월 9일 미국의 연간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수치 예비치가 시장 예상 대비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달러는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고위층 사살을 위한 카타르 도하 공습 소식에 유가도 올랐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대두 시장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하락했다. 달러 강세와 금 가격 상승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밀 가격도 약세를 나타냈다. 9월 10일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외로 하락하자 다우지수는 내려갔다.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등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낙폭을 줄였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9월 11일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했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공급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유가는 2% 이상 하락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전환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9월 12일 미국의 9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으로 인해 다우지수는 내려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올라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 훈련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에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9월 15일 알파벳의 시총이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하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자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했다.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나 밀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 17〉 9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9/9	9/10	9/11	9/12	9/15
DOW	45,711.34	45,490.92	46,108.00	45,834.22	45,883.45
Dollar Index	97.79	97.78	97.53	97.55	97.30
WTI(25,12월물)	62.06	63.09	61.85	62.19	62.76
옥수수(25,12월물)	419.75	417.00	419.75	430.00	423.25
밀(SRW,25,12월물)	520.25	515.00	521.50	523.50	525.00
대두(25,11월물)	1,031.25	1,025.25	1,033.50	1,046.25	1,042.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9월 3주 차(9/16~9/23)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9월 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미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 가치는 내려갔으며 흑해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유가는 올라갔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9월 17일 시장 예상대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용 시장 악화 우려 발언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에너지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량이 줄었으나 유가는 조정을 받아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주요 곡물 가격은 반락했다. 9월 18일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가치도 올랐다. 미국에서의 경기둔화 우려와 OPEC+ 증산 전망에 유가는 내려갔다. 외부 시장의 영향과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추가 하락했다. 9월 19일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가치도 올랐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옥수수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으며 대두 가격은 하락했다. 글로벌 공급 증가 전망과 달러강세로 인해 밀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9월 22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오픈 AI에 거금을 투자키로 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세장이 형성됐으며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와 연내 50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외부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계절적 하락 요인에 눌려 옥수수, 대두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수출 경쟁 심화로 밀

가격도 내려갔다. 9월 23일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과 차익 실현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했으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태 이후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했다. 유가 상승과 기술적인 매수세로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며 달러 가치 하락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밀 가격도 반등했다.

〈표 18〉 9월 3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9/16	9/17	9/18	9/19	9/22	9/23
DOW	45,757.90	46,018.32	46,142.42	46,315.27	46,381.54	46,292.78
Dollar Index	96.63	96.87	97.35	97.64	97.34	97.26
WTI(25.12월물)	63.82	63.32	62.87	61.98	61.90	62.93
옥수수(25.12월물)	429.50	426.75	423.75	424.00	421.75	426.25
밀(SRW,25.12월물)	534.00	528.25	524.25	522.50	510.75	520.50
대두(25.11월물)	1,049.75	1,043.75	1,037.50	1,025.50	1,011.00	1,012.0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9월 4주 차(9/24~9/30)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9월 24일 인공지능 오픈 AI에 대한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감소와 흑해에서의 지정학적 위협 고조로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며 밀 가격도 소폭 내려갔다. 9월 25일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자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원유 시장은 강보합세로 장을 끝마쳤다. 달러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9월 26일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상승했으며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혀 유가는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하락 압력 요인에 눌려 옥수수,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9월 29일 미국 연방 정부의 섣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가치는 하락한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구상 합의 소식에 유가는 급락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으로 인해 옥수 가격의 상승세

는 제한을 받아 약보합세를 나타냈으며 대두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시장 관망세로 밀 가격도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9월 30일 미국 연방 정부의 섣다운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해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OPEC+ 회의를 앞두고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유가는 하락했다. 미국의 수확 시즌에 따른 계절적 하락 압력 요인과 브라질의 공급 확대 전망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내려갔으며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밀 가격도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

〈표 19〉 9월 4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9/24	9/25	9/26	9/29	9/30
DOW	46,121.28	45,947.32	46,247.29	46,316.07	46,397.89
Dollar Index	97.87	98.55	98.15	97.91	97.78
WTI(25.12월물)	64.39	64.40	65.14	63.01	61.96
옥수수(25.12월물)	424.25	425.75	422.00	421.50	415.50
밀(SRW,25.12월물)	519.50	527.00	519.75	519.50	508.00
대두(25.11월물)	1,009.00	1,012.25	1,013.75	1,010.50	1,001.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10월 1주 차(10/1~10/7)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0월 1일 연방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연방 정부는 섣다운에 들어갔으나 일시적일 것이란 낙관론과 의약품 관세 면제 기대감에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으로 인해 금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와 글로벌 공급 확대 전망에 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짙어졌으나 주요 곡물 가격은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10월 2일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으로 인해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 주가 상승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올랐다. 미국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과 숏커버링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가자지구 종전 추진과 산유국들의 증산 움직임에 유가는 하락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추가 상승했다. 10월 3일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 속에도 다우지수는 소폭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차익 실현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나 밀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10월 6일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이 길어지고 있어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프랑스 총리 사임과 일본 차기 총리 선출 소식 등으로 인해 유

로화 및 엔화 약세가 약세를 나타내자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OPEC+ 정례회의에서 산유국들의 증산 규모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유가는 상승했다.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대두,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기상 악화에 따른 수확 지연 우려로 옥수수 가격은 반등했다. 10월 7일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리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가는 큰 변동 없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으로 미국 농무부의 수급 관련 지표가 발표되지 못해 옥수수 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로 밀 가격은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표 20〉 10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0/1	10/2	10/3	10/6	10/7
DOW	46,441.10	46,519.72	46,758.28	46,694.97	46,602.98
Dollar Index	97.71	97.85	97.72	98.11	98.58
WTI(25.12월물)	61.39	60.16	60.53	61.34	61.32
옥수수(25.12월물)	416.50	421.75	419.00	421.75	419.75
밀(SRW,25.12월물)	509.25	514.75	515.25	512.75	506.75
대두(25.11월물)	1,013.00	1,023.75	1,018.00	1,017.75	1,022.0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10월 2주 차(10/8~10/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0월 8일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이 8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약간 하락했다. 일본과 프랑스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 지자 달리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흑해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와 달러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인식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반등했다. 10월 9일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인해 하락했으며 미국 연준 위원의 매 파적인 발언에 달리는 강세를 나타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평화구상 1 단계 합의 소식에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주요 곡물 가격은 내려 갔다. 10월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강력한 대중 무역 보복 위협 등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위기에 놓이자 안전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대거 쏠려 뉴욕 증시와 유가는 급락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과 미국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 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져

옥수수, 대두 가격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으며 밀 가격도 내려가는 장세가 형성됐다. 10월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발언 완화 메시지에 힘입어 전장에서 급락했던 뉴욕 증시와 유가는 상승했으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해 달러 가치도 올라갔다.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유가 상승에 힘입어 대두 가격은 올랐다. 10월 14일 미·중 무역 관계 긴장 속에 뉴욕 증시는 장중 급등락을 보였으며 혼조세로 장을 끝마쳤다. 미국 연방 정부 섣다운 장기화와 유로화 강세로 인해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유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다. 반발 매수세와 숏커버링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상승했으나 유가 약세로 인해 대두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10월 15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지속 속에 미국 주요 은행의 3분기 실적 증가로 뉴욕 증시는 급등락을 보였으며 혼조세로 장을 끝마쳤다. 미국 연준 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공급 과잉 및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기술적인 매도세로 밀 가격은 내렸으나 미국산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기대감에 옥수수 가격은 올랐다. 특별한 이슈는 없어 대두 가격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표 21〉 10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0/8	10/9	10/10	10/13	10/14	10/15
DOW	46,601.78	46,358.42	45,479.60	46,067.58	46,270.46	46,253.31
Dollar Index	98.92	99.54	98.85	99.27	99.05	98.79
WTI(25.12월물)	62.02	61.03	58.48	59.07	58.27	57.84
옥수수(25.12월물)	422.00	418.25	413.00	410.75	413.00	416.75
밀(SRW,25.12월물)	507.25	506.50	498.50	496.75	500.25	498.75
대두(25.11월물)	1,029.50	1,022.25	1,006.75	1,007.75	1,006.50	1,006.5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10월 3주 차(10/16~10/23)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0월 16일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로 뉴욕 증시는 하락한 가운데 미국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져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주간 에너지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10월 17일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해 뉴욕 증시는 상승했으며 달러 가치도 올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10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발언과 미국 연방 정부 섀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달러 가치도 올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이 체결됐으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낙폭을 줄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발언에 주목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10월 2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의 재정 확대 정책 우려로 엔화 가치는 내려가고 달러 가치는 올랐다. 휴전에 들어갔던 가자지구에 교전이 발생하면서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던 유가가 반등했다.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10월 22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이 자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뉴욕 증시와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과 인도 사이에 조만간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으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줄이게 될 것이란 전망에 유가는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10월 23일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정 짓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가치도 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러시아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로 유가는 폭등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표 22〉 10월 3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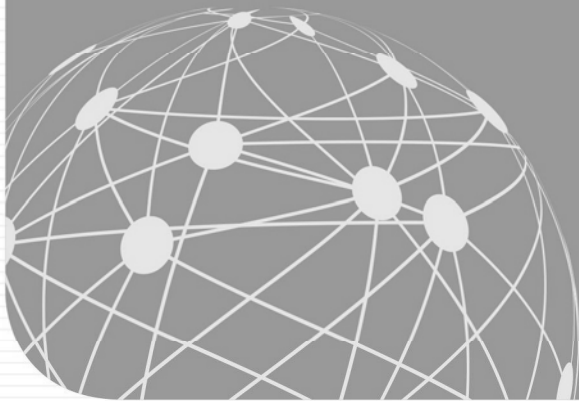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0/16	10/17	10/20	10/21	10/22	10/23
DOW	45,952.24	46,190.61	46,706.58	46,924.74	46,590.41	46,734.61
Dollar Index	98.34	98.43	98.59	98.93	98.90	98.94
WTI(25.12월물)	56.99	57.15	57.02	57.24	58.50	61.79
옥수수(25.12월물)	421.75	422.50	423.25	419.75	423.00	428.00
밀(SRW,25.12월물)	502.50	503.75	504.75	500.25	503.75	513.00
대두(25.11월물)	1,010.75	1,019.50	1,031.75	1,030.75	1,034.75	1,044.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71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Issue Box> 제1편

중국의 중앙1호문건과 식량안전보장법 분석 및 시사점¹⁾

허덕*

1. 머리말

1.1. 중앙1호문건

중국에서는 ‘중앙1호문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중앙1호문건’이란 그해 최초의 발출 문건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나타내는 문서이다. 농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연초(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언급하는 국정연설과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연설은 정책의 강제성보다 ‘공약’의 느낌이 더 강한 반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주안점도 크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강제성도 꽤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앙1호문건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는 곧 중국의 농업 문제가 어떻게 변모해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정표와 같다. 그중 품목과 관련된 사항은 당시의 해당 품목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반면, 농촌문제는 고쳐지기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농촌문제는 거의 매년 중앙1호문건에 등장하는데 중앙1호문건에 제시된 사항 중 특히 식량작물에 한하여 법적 뒷받침을 위한 ‘식량안전보장법’의 내용과 그 개정에 담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교수(huhduk@krei.re.kr)

1) 이 글은 百崎賢之, 「第2章 中国—对外情势不安定な中,食糧安全保障を最優先,「農業強国」を目指す—,「主要国農業政策·食料需給」プロ研資料,第6号, PRIMAFF, 2024년 3월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 pp.269-285 및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25년 4월호부터 7월호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논리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1.2. 2024년 및 2025년 중앙1호문건의 특징

2024년 중앙1호문건은 2022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이를 이은 당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2023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당과 정부 체제 확립을 위해 수립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공산당 총서기로서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사회에 대한 당의 지도나 정책운영에 대해서도 이론을 배제하고 통제가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PMI(Purchasing Manager Index²⁾, 제조업 구매 담당자 경기 지수)를 통해 중국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PMI 지수의 기준점은 50으로 PMI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데 최근 PMI 지수가 50 이상을 기록했다.

당초에는 포스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안정감이나 대외 마찰이 계속되었다. 즉, 코로나19 이후의 내수 확대가 강조되면서도 수요 회복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부동산 불황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전반, 특히 젊은 층의 고용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으며,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삼농(농업·농촌·농민) 분야나 ‘향촌진흥의 전면적인 추진’이 제20회 당대회 등에서 제시되어 기치(旗幟)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대회 시진핑 총서기의 보고 중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에 있어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무거운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라고 강조되었다. 즉, 농업·농촌을 우선으로 한 발전과 도시와 향촌이 융합한 발전을 견지한다고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향촌의 산업·문화·생태·조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할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식량 안전보장의 근간을 모든 방향에서 기초를 다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가 동일한 책임을 질 것, 1.2억ha 경지의 ‘레드라인(red line)’을 지켜낼 것, 고규격농전(高規格農田,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논과 밭) 건설 촉진, 중

2) PMI지수는 경제가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에 대해 구매전문가들에 하는 질문에 그 답을 모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출처: 백수와 함께하는 경제신문 읽는 법, <https://ecodemy.cafe24.com/pmi.html>)

사업 진흥, 농업과학기술과 설비의 대비를 강화할 것, 식량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익 보장 구조와 주산지의 이익보상 구조를 완전하게 하고, '중국인의 먹거리를 확실히 자급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25년 2월 23일에 2024년 중앙농촌공작 회의³⁾(中央农村工作会议; 12.17~18)에 제출하여 의결된 정책문서를 2025년도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하였다. 문건의 제목은 '농촌개혁의 진일보 심화 및 전면적인 농촌진흥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农村改革, 扎实推进乡村全面振兴的意见)'으로 2024년 중앙1호문건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3. 식량안전보장법의 특징

중앙1호문건에서 다룬 중요 사안들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중 식량안보와 관련된 법적 뒷받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량안전법이다.

2023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제14기·제7회 회의)의 회기 마지막 날에 식량 안전보장 법안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법안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⁴⁾. 2018년 당중앙·국무원의 중앙1호 문건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이미 '식량 안전보장 법안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다음 해인 2019년 1호 문건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삼농(三農)'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 '식량 안전보장 법안의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라고도 기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법안이 성립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호 문건에서는 드디어 '식량 안전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여, 여기에서 연간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명시된 공약이 실현된다는 것이다(2.1.3. 2023년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 부분 참조).

3) 당(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과 정부(국무원)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농업정책 논의기구로 매년 12월 중순에 개최함. 회의에서는 당해 연도 농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농정의 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 과제를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과 정부에 하달해 집행한다.

4) 이 법이 성립되기 이전인 2021년에 발표한 중국의 신 식량안보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百崎賢之, '第5章 中国. —「ややゆとりある社会, 完成目標の年に中国の食と農が直面した内外諸問題—',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6号, 2021.3과 허덕, 김태련, '중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표와 관련 문제', 『해외곡물시장동향』2021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2. 2023~25년 ‘삼농’(농업·농촌·농민) 상황

2.1. 2023년 1호 문건

2.1.1. 20년 연속으로 ‘삼농’(농업·농촌·농민)을 중시

시진핑 정부 3기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의미한다. 이에 2023년부터 현재(2025년)까지의 중앙1호문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 시기의 주요 키워드는 ‘향촌진흥’, ‘농업 강국 가속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국무원의 2023년 1호 문건의 제목은 ‘2023년의 향촌진흥 중점업무의 전면적 추진을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한 의견’⁵⁾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20년 연속 ‘삼농’에 관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중앙1호문건은 표제가 전년인 2022년을 2023년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당인건(唐仁健) 농업농촌부장이 “향촌진흥 추진의 ‘조작 핸드북’이 주어졌다.”⁶⁾고 말한 바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정책의 기본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중앙·지방정부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방법을 해설하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성격이 강함을 시사한다. 공산당 중앙이 정책 전반을 주도하여,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으로써을 해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 리스트를 명확하게 하고, 정부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색깔이 강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12월 당중앙·국무원의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초안이 토의되었으며, 2024년 1월에 발표(공표는 2월)된 ‘2024년 중앙1호 문건’의 제목은 ‘1천 개소의 마을을 모델로 하는 천촌시범(仟村示範), 1만 개소의 마을을 개선(정비, 整備)하는 프로젝트인 만촌정치(萬村整治)’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되어 있다⁷⁾. 이는 시진핑 총서기가 농촌의 환경미화나 거주환경의 정비에 대해 2018년에 스스로 제창하여 전력을 쏟아 추진하

5) 중국농업농촌부,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 (http://www.moa.gov.cn/ztl/2023yhwj/2023nzyyhwj/202302/t20230214_6420529.htm), (2024년 1월 31일 참조)
 6) 1호문건과 관련된 기자회견(2023년 2월 14일)에서 당인건(唐仁健) 농업농촌부장의 설명, http://www.moa.gov.cn/hd/zbft_news/qmtjxczx/
 7) 2023년 12월 20일 신화사(新華社), 「중앙 농촌공작회의 재경 소개 시진핑 대 ‘삼농’ 공작 작출 중요 지시(中央農村工作會議在京召開 習近平對“三農”工作作出重要指示)」,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2/content_6921467.htm

여 온 사고방식이다. 즉, 기존의 사고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이를 추진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2.1.2. 2023년 문건의 특징

2023년 중앙1호문건의 표제는 ‘농촌진흥의 전면적 추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농업강국이란 ‘공급의 보장이 강하고, 과학기술의 장비가 강하며, 경영체계가 강하고, 산업의 강인성이 강하며, 경쟁력이 강하다’는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2022년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말한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농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이 강해질 때 비로소 나라는 강해진다.”라며, 농업강국 건설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표제처럼 ‘살기 쉽고 일하기 쉬우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인 건설을 위한 양호한 스타트를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2.1.3. 2023년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

먼저 2023년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23년 중앙1호문건의 제1장은 ‘식량과 중요 농산품의 안정 생산·공급 보장을 확실히 실시한다.’이다. 여기에는 식량(곡물·콩류·감자류) 생산량 6.5억 톤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수를 증시하면서 ‘식량 생산 5천만 톤 향상’과 ‘1무(畝)⁸⁾당 1톤 수확(10a당으로 환산하면 1.5톤)하는 밭’ 만들기, 다모작, 재생 벼⁹⁾의 진전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2023년 4월 이후 농업농촌부는 ‘전국 양유(糧油, 식량 및 유지작물) 등 주요 작물 대면적 단산(단위 생산) 제승(올림) 행동(全國糧油等主要作物大面積單產提昇行動)’이라는 단수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요 작물은 옥수수과 대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 기술로 소(小)면적에 모델을 나타내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각 지

8) 도량형인 척관법에서 사용하는 경지 면적의 단위이다. 원래 무(畝)는 묘라고도 읽지만, 경지 면적의 단위로 쓰일 때는 무라고 읽는다. 1무는 667㎡이다. 즉, 논밭 넓이의 단위로서 1무는 한 단(段)의 10분의 1, 곧 3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원형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9) 한번의 모내기로 2회 이상의 벼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방정부에 대하여 ‘대(大)면적에서 종합적인 기술모델 집성을 요구하여 그것을 확실히 보급’ 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품종과 요소를 구분하여 ‘1현1방책(一県一方策)’의 형태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초년도인 2023년에 확실한 성과를 올리고, 2030년까지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방책을 결정하여 단수의 지속적인 향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¹⁰⁾.

문건에서는 밀의 최저 매입가격 인상, 농업 자재 공급과 가격 안정, 주산지 이익보상, 성(省) 차원의 당·지방정부의 경지보호와 식량 안전보장에 관한 책임제 철저(이 글의 ‘3.2.3. 식량 안전보장법의 주요 내용’의 제1장 총칙의 제3조 참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두·유지작물 재배 확대 강화를 계속하도록 하여 대두·옥수수를 대상으로 윤작재배¹¹⁾를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곡물과 대두의 윤작, 알칼리 토양지에 대두 식재, 대두의 코스트보험·재배수입보험의 시험적 실시¹²⁾, 유채에 대한 종합보조 조치, 오일티(油茶)¹³⁾ 재배 확대 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사료용 대두박은 감량·다른 원료로 대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현대적 시설농업, 산지 냉장·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 가속 등을 꾀하도록 하였다.

한편, ‘다원적인 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서 ‘대식물관(大食物觀)’¹⁴⁾에 입각하여 식

10) 중국농업농촌부 신문판공실(農業農村部新聞弁公室), ‘농업농촌부 부서개편 전국 양유 등 주요 작물 대면적 단산 제은행동(農業農村部部署開展全國糧油等主要作物大面積單產提昇行動)’, 2024년 1월 31일 참조 (http://www.moa.gov.cn/xw/zwdt/202304/t20230423_6426124.htm)

11) 중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연작장해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대두의 경지는 3년에 1번, 나머지 2년은 옥수수를 경작한다는 윤작체계를 취하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의 생산량이 많은 길림성에서도 이 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흑룡강성의 대규모 생산 농가는 1포장당 수 헥타르 규모의 포장을 3개를 정비하여 매년 1개 포장에서 대두를 경작하고, 나머지 2개 포장에서는 옥수수를 경작하는 윤작을 하고 있다. 동 성에서는 이 윤작으로 매년 일정량의 대두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간 재배경합에 대해서는 허 덕, ‘중국의 곡물 수급정책과 수급 동향-전망-옥수수와 대두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2025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2024년 이후 3대 식량작물에 대한 총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면 실시로 인하여 전국의 식량 생산 농가(농업경영체)는 생장기 내에 투입된 경상투입재와 고정자본 비용을 보장하는 기본 농업재해보험, 생장기 내에 투입된 모든 생산비를 보장하는 총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여 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출처: 財政部·農業農村部·金融監管總局, 關於在全國全面實施三大糧食作物完全成本保險和種植收入保險政策的通告(財金[2024]45號, 2024.5.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보고서(‘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현황 및 전망’, 『중국농업브리프』, 2022년 5월호에서 인용).

13) 동백나무의 일종으로 중국 특산의 식물로 만든 차

14) 최우선으로 그 확보를 꾀하여 온 ‘식량’이 일단 양적으로 충족되는 가운데, 국민의 보다 높은 차원의 음식에 대한 요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량에만 치우치지 않고, 생산 구조를 보다 나은 것으로 개혁하여, 부식품을 포함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음식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때문에 삼림이나 초원, 해양 등을 포함한 가능한 한 국토 자원을 개발하여 음식의 안정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2015년의 농촌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고, 그 후 각지의 시찰 등에서 몇 번인가 제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히, 2022년 3월의 전국인민 대표대회 기간에 실시된 전국의 농업 관계자의 회의에서 사용함에 따라 정착된 용어이다(百崎賢之 (2022) 『第4

량과 경제작물 및 사료작물, 농림목어업(農林牧漁業), 식물·동물·미생물의 종합된 공급체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료 생산, 임간(林間) 가축 사육, 해양목장, 균류·조류(菌類·藻類) 생산 확대를 중시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농산물의 품질이나 안전, 이력추적(traceability)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량과 중요 농산물의 조정 컨트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량의 긴급 보장 능력, 비축과 매입·판매 감독 관리, 돼지 생산·안정공급 관리에 대한 성(省) 정부의 종합책임제, 모돈(母豚)에 주안점을 둔 돼지 생산능력 조정 컨트롤, 부식품(장바구니 물가 관련)에 대한 시장(市長) 책임제 하 엄격한 심사 사정의 실시, 화학비료 등 농업자재 생산과 저장·수송 컨트롤 강화 등을 표방하였다.

동시에 농산품 국제무역 역할을 발휘하여 농산품 수입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식량 절약 활동 전개, 공급체인 전체적인 절약·손모 감소 추진·상태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2장은 '농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한다.'는 규정이다. 경지 보호와 용도 관리 제어를 강화할 것, 경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경지 보충을 철저히 하고, 그 균형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 시·현과 성¹⁵⁾에서의 중층적인 체크와 사회적인 감독의 구조를 정비할 것, 황폐한 경지 이용에 주력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章 中国「次の百年」への最初の年, 内外多難の中, 食の安全保障と郷村振興を強調—『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研究資料 第10号 令和3年度カンントリーレポート: タイ, ベトナム, インドネシア, 中国, インド, 西アフリカ』참조.

- 15) 중국의 행정구획은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중화민국이 설립된 이후 헌법의 관점에서는 제1급 성급행정구(省級行政區), 제2급 현급행정구(縣級行政區), 제3급 향급행정구(鄉級行政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로 나누고,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市)는 구(區), 현(縣)으로 나누며, 자치주(自治州)는 현(縣), 자치현(自治縣)과 시(市)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누며, 현과 자치현은 향(鄉), 민족향(民族鄉), 진(鎮)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아울러 헌법 95조 규정에는 성, 직할시, 현, 시, 시할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와 인민정부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행정구는 정부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3급 행정구획제도도 직할시의 기본 행정구획제도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개 직할시와 하이난성 및 부분적으로 성(省)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현과 현급시를 제외하고는 4급 행정구획제도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1급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제2급은 지급시(地級市), 자치주(自治州), 지구(地區), 맹(盟)(하이난성과 직할시 제외), 제3급은 직할시 및 하이난성 이외의 현급시(縣級市), 현(縣), 자치현(自治縣), 기(旗) 등 현급 행정단위. 하이난성과 직할시 경내의 향, 진 등 향급 행정구, 제4급은 향(鄉), 진(鎮)의 향급 행정구(하이난성과 직할시를 제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3급과 4급 제도가 병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성급(省級), 현급(縣級) 및 향급(鄉級)이며, 두 번째 유형은 성급(省級), 지급(地級), 현급(縣級) 및 향급(鄉級)의 구성이다. 이와는 별개로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에는 2급(二級)으로 이루어져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행정구획총람, 2010. 8. 1., 황매희 편집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52194&cid=43792&categoryId=51740>). 그렇지만, 헌장에서는 중국의 행정구역체계는 상위구역부터 성급 행정구역, 시급 행정구역, 현급 행정구역, 향급 행정구역의 4가지 주요 계층으로 간단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요노마, '중국의 행정구역 개요', 2024년 11월 18일 게재(<https://blog.naver.com/prs9988124/223663117301>)).

또한, 고규격농전(高規格農田) 정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알칼리 토양지 개선과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선발 육종에 진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리 인프라 정비와 농업 방재 감재 능력 정비 강화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농업 과학기술과 장치·설비에 의한 지지를 강화한다.’는 규정이다. 농업과 학기술 혁신 체계 구축과 현장시험 플랫폼 정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종자업 진흥을 위하여 전국 농업종자형질자원(農業種子形質資源) 센서스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가축과 가금에 대한 육종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옥수수·대두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¹⁶⁾ 등 생물학적 육종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도록 하여 시험적인 실시 구역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¹⁷⁾.

이밖에 선진적 농기계 연구개발·보급 가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업의 녹색발전(투입 자재 감량·효율 향상, 농업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오염경지 관리제어나 생태환경 보호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촌·농민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는 ‘빈곤 탈피 공략 성과의 정착화와 발전’(제4장), ‘향촌의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제5장, 농산품 가공 유통업, 현대적 향촌 서비스업, 향촌의 신산업·신업태의 육성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제6장은 ‘농민의 수입 증가·부유화로의 길 확대’로 규정하고, 농민의 취업 안정화, 출장 임금 지불 확보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농업경영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신형 농업경영 주체의 레벨업(가족형 농장의 연합조직화·기업화, 소농가도 포함한 공동경영), 경작대행이나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사회화 서비스’ 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경영권의 유동화에 의한 경영 규모 확대, 농지 세분화 문제 등의 해결방법 탐구,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 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16)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해서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와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라는 용어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LMO는 살아있어 생식,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의미하는 반면,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불가능한 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예를 들어, 땅에 심으면 자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대두는 LMO이지만, 유전자 변형 대두로 만든 두부는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없으므로 LMO가 아니다. LMO, GMO 외에도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지만, LMO법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미국에서는 Genetically Engineered(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생명공학(biotech)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소통) 농림축산산업용 LMO, https://www.naas.go.kr/10_gmo/Gmo_Info.do?menu_code=1&tg=1&mcode=41

17) 유전자 변형(GM) 옥수수, 대두에 대해서는 농업농촌부가 2023년 12월에 옥수수 37개 품종과 대두 14개 품종의 심사 결정을 공고(12월 6일)함과 동시에 85개 기업에 대한 농작물종자생산경영허가증 승인이 공고(12월 25일)되어 있다. http://www.moa.gov.cn/govpublic/nybzj1/202312/t20231207_6442285.htm 및 http://www.moa.gov.cn/govpublic/nybzj1/202312/t20231226_6443490.htm (2024년 1월 31일 참조).

아울러 농민에게 ‘충분한 재산 권익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만간 토지 청부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30년간 재연장 진행과 농촌 주택 용지의 제도 개혁 시행도 신중하게 진행한다. 또한, 농촌의 집단 소유 자산과 관련되는 재산권 제도 개혁을 진전시켜, 자원의 청부, 부동산업에의 대여, 중개 서비스, 자산의 주식화 등 다양한 이치로 농촌의 ‘집단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다.

기초가 되는 마을 수준의 경제조직으로서 ‘농촌집단 경제조직’의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농촌 집체 경제조직법 초안(農村集体經濟組織法草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22년 12월에 첫 회의를, 2023년 12월 두 번째 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제2심의고(第二審議稿))¹⁸⁾.

제7장에서는 ‘살기 쉽고, 일하기 쉬우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촌락 규정의 정비를 강화하고, 농민의 거주·향촌의 인프라·공공 서비스·산업 용지에 대한 요구를 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농촌 거주환경 정비 개선(세대별 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 등), 향촌 인프라 건설 강화,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능력 향상 등을 연달아 언급하였다.

제8장은 ‘당 조직이 지도하는 향촌 통치 관리 체계 정비’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향촌의 당 조직 체제 강화, 향촌 통치 관리 기능 레벨업(level up), 농촌 정신문명 건설 강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정책 보장과 체제 구조 혁신’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원적 투입 구조(농업 농촌 예산의 우선적 보장, 지방정부 채권 발행, 향촌 진흥기금 설립, 금융·사회 자본의 농업·농촌에 대한 투입 강화), 향촌 인재 육성과 도시로부터의 인재 이동, 도시·향촌 융합 발전(현 정부 주변 지역의 도시화나 농민공의 시민화, 도시·농촌의 공공 서비스 연합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앞의 ‘머리말’에서도 2024년과 2025년 중앙1호문건의 제목에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으로는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선 2023년 중앙1호문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2024년과 2025년 중앙1호문건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를 확인하여 볼 것이다.

18) 동 법 초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서 ‘제2심의고’의 퍼블릭 코멘트가 실시되었다.

2.2. 2025년도 중앙 1호문건의 주요 내용

2.2.1.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식량안보 이슈를 가장 앞자리에 배치하고, 식량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 작물 단수 증대 프로젝트 실시 규모 확대 및 제2차 식량 5,000만 톤 증산 계획(2024~2030년) 추진 강화를 통한 식량 증산을 최우선적인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만, 2024년에 식량 생산량 목표치를 6억 5천만 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과는 달리, 2025년에는 생산량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식량 증산과 함께 중국 주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지작물의 재배 확대와 축산업과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도 촉구하였다. 또한,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보장을 위하여 ▲경지 보호 및 우량 농지조성 강화, ▲농업 과학기술 지원 역량 강화, ▲농업재해 방재 및 복구 역량 강화, ▲식량 생산 지원 정책 추진 강화, ▲농산물 유통 및 생산 관리 강화, ▲다원적 식품 공급체계 구축, ▲식량 및 식품 절약체계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1〉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 목표 관련 주요 추진 과제 및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식량·유지작물 단수 증대사업 추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증산) ▲식량단수 증대 프로젝트 실시 규모 확대, 다수확 고효율 식량 재배기술 보급 역량 강화, 물·비료 일체화 추진, ▲제2차 식량 5,000만 톤 증산계획 추진 강화 • (유지작물 재배 확대) ▲대두 재배면적 확대 성과 공고화 ▲유채와 땅콩 재배 확대 잠재력 발굴 ▲오일티(油茶) 등 특색 본목 유지작물의 발전 지원 • (기타 중요 농산물 생산 안정 및 품질 향상) ▲면화, 설탕, 천연고무 등의 생산 안정 및 품질 향상 추진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산업, 육우산업,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 ▲양돈 수급 모니터링 및 조절 강화 ▲육우산업, 낙농업의 생산 능력 안정 추진 ▲멸균유 국가표준 제정,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의 낙농업분야 사육·가공 계열화 추진 지원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초원방목 축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 (도축 및 동물 전염병 관리 강화) ▲양돈 도축·검역 관리감독 강화 ▲중대동물 전염병 및 중점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강화

주요 과제	주요 내용
경지 보호 및 우량 농지조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 총량 보전 및 관리 강화) ▲각종 경지에 대한 경지 점용·보충 균형* 관리 실시, 성(省)내 경지 총량의 동태적 균형 보장 ▲보충경지 품질 평가 및 검수 표준 완비 ▲경지에 관련 농업시설 또는 농인 명의로 건축된 비농업 용도의 건축물(大柵房), 경지에 호수 경관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지속 단속, 경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 근절 ▲기본 농작물 목록 제정 및 경지의 재배 용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산물 수급 및 작물 생산기 등을 고려한 과도기를 설정해 경지 비식량화(非糧化) 시정 사업의 원만한 추진 보장 ▲성내 보전경지 총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천내 홍수 예방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경지 퇴출 추진 ▲전통적인 계단식 농지 보호 강화 * 경지 점용·보충 균형(耕地占瘡平衡): 경지를 점용해 비농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 동일한 면적 질의 경지를 보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우량 농지 조성 강화) ▲염류성·알칼리성 농지 종합적 이용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 ▲동북지역 흑토지대 침식 및 남부지역 산성화-퇴화 경지 관리 강화 ▲방치된 경지의 분류 및 복구 이용 추진
농업 과학기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 선도기업 육성) ▲핵심 애로기술 개발 가속화,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역량 통합 강화, 농업과학기술 선도기업 육성 • (종자) ▲종자산업 진흥 사업 추진 심화, 난판실리콘밸리(南繁硅谷)* 등 중대 농업과학기술 연구 플랫폼의 역할 강화, 일련의 혁신적 품종 개발 가속화 ▲생물 육종의 산업화 지속 추진 * 난판실리콘밸리: 겨울철 기온이 따뜻한 해남성 등 남부지역의 기후조건을 활용해 농작물 품종 육종, 종자 생산 및 종자유전물질 검정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과학 연구기지 • (농기계)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국산 농기계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가속화 ▲노후화된 농기계 폐기 및 갱신 추진 • (스마트농업 발전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 저공(low-Altitude) 등 기술 응용 확대
농업재해 방재 및 복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강화) ▲농업재해 리스크 모니터링 조치 경보체계 강화 및 지역 내 농업부문 서비스 센터 등의 역량 활용을 통한 재해손실 최대한 완화 • (현대적 홍수방재체계 구축) ▲위험 저수지의 위험 제거 및 보강 추진 ▲중소 규모 하천 관리 및 중대규모 관개지구 건설·개조 강화 ▲유수지(蓄滯洪區) 핵심 시설 건설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 ▲평야의 홍수 빈발지역에서 수리시설 건설 및 하천 정비 추진, 재해 농지 및 관개·배수 시설 복구 가속화 • (기타 농업재해 방재 강화) ▲방재림 조성 강화 ▲농작물 병충해 모니터링·조기 경보 및 통합방제 강화 ▲산림·초원지역의 화재 방재 역량 강화
식량 생산 지원정책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식량 관련 보조정책 안정적 실시) ▲쌀·밀 품목 대상 최저수매가 정책 안정적 실시 ▲옥수수·대두 품목 대상 생산제한 계획 하 직접지불(Blue Box) 및 쌀 품목 대상 직접지불 정책 완비 ▲경지 지역보호 보조정책 안정적 실시 ▲대규모 식량 생산 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보충의 현금 부담 비율 인하 ▲쌀·밀·옥수수·대두 품목 대상 총생산비 보장 농업재해보험(完全成本保險) 및 농업수입 보장보험(种植收入保險) 실시 지역 확대 추진 • (지역 대상 지원 정책 실시) ▲지방정부의 식량·유지작물 대상 대출이자 보조 시범사업 추진 장려 ▲식량 주산지 대상 보상·보조 인센티브 체계 완비 및 대규모 식량 생산 현 지원 강화 ▲중앙정부의 자금 조성 및 분배 통제하에 식량 주산지와 주소비지간 수평적 이익보상체계 구축 추진 ▲대규모 식량 생산 현의 공공서비스 역량 제고 사업 실시범위 확대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농산물 유통 및 생산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 및 시장 안정)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종합적인 시책 추진 및 시장 수급안정 보장 • (기타 관련 조치) ▲농산물 밀수 등 위법행위 엄단 ▲수입농산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 강화 ▲농산업분야 손실 조기경보체계 완비 ▲식량 수매업무 안정적인 실시 및 비축 식량 관리 감독 강화 ▲농산물 시장정보 공개 및 예측 지도 강화
다원적 식품 공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농업관점 및 대식품관점 실천)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식품 공급원 개발 ▲식량 및 대식품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속화 • (농산업 분야별 조치) ▲채소 응급 공급보장기지 건설 강화, 중대규모 도시 주변의 현대적 농업시설 개선 프로젝트 실시 ▲고품질 어업발전 촉진, 원해·심해 양식 발전 지원, 해양목장 건설 ▲임산물(forest food: 森林食品) 개발 ▲버섯산업 발전 촉진 ▲해조류 식품 개발 촉진 ▲생물농업 육성 및 새로운 식품 공급원 개발 • (식품안전 강화) ▲식품 안전 및 농산물 품질 안전 관리 감독 강화, 농산물 약물 잔류 관리 강화, 수의용 항생제 사용량 절감 추진
식량 및 식품 절약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및 식품 낭비·손실 최소화) ▲식량(식품) 절약·낭비반대 운동 추진 및 상벌 시스템 구축 ▲건강식단 장려, 공공 식당·요식업소에 대한 식용유 사용 지도, 기름·소금·설탕 사용량을 줄인 식단이나 통곡물 등의 식단 보급 ▲식량 수확의 기계화를 통한 손실량 감소 추진, 식량의 적정 가공 및 과학적 보관 추진

자료: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2.2.2.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중국에서 농촌 지역 빈곤 퇴치는 농촌진흥전략의 병행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21년에 절대 빈곤 인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샤오캉사회(少康社會¹⁹⁾) 실현 원년을 선언한 이후,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여,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소득 8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2년에 장쩌민(江澤民)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6,000달러에 이르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샤오캉사회(小康社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표 2〉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목표 관련 주요 추진 과제 및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정책 강화) ▲3대 보장(의무교육, 기본의료, 주택안전) 및 식수 안전보장 성과 공고화·향상 지속 추진 ▲빈곤 가구의 집단 이주 완료 후 후속 지원 강화 ▲빈곤 재발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효과 제고, 빈곤 재발 리스크가 있는 농가 즉시 지원 ▲빈곤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촉진 사업 추진 심화, 취업 공간 확대 및 탈빈곤 인구의 일자리 규모와 소득안정 ▲과학기술·의료·교육 행정 부처 간부들의 그룹형 지원 강화 ▲소비 지원 플랫폼 기업과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농촌 지역 빈곤 재발 방지 체계 및 저소득층·저개발 지역에 대한 계층별·분류별 지원제도 통합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 사업과 빈곤 재발 방지 사업의 연계 강화) ▲빈곤 퇴치 성과와 농촌진흥의 효율적 연계 관련 평가 사업 추진, 빈곤 탈피 과도기(5년) 이후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및 제정 추진 • (저소득층·저개발지역 지원 강화) ▲농촌 지역 저소득층 인구나 빈곤 재발 방지 대상의 분류 추진 ▲노동 능력을 지닌 농촌 지역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개발식 빈곤 지원 및 최저 한도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부조 강화 ▲저개발 지역에 대한 계층별·분류별 지원제도 확립, 동서부지역간 노무협력이나 지정지원(定点帮扶)* 등의 방식으로 차별화된 지원 제공 <p>* 지정지원(南定点帮扶): 주로 행정 부처나 공공기관별로 지원할 빈곤 지역이나 농촌 가구를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p>
빈곤 퇴치 목적의 국가 투자로 형성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등기관리 제도 확립) ▲빈곤 퇴치 목적의 국가 투자로 형성된 자산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통일적인 자산 등기 관리 체계 구축 ▲국가 빈곤 퇴치 지원 프로젝트의 자산 관리 방법 제정, 자산형성·권리확정·권리거래·관리운영·수익분배 등 전 과정 관리 감독 제도 확립, 경영성 자산의 가치 증식·수익증대 추진 및 공익성 자산의 역할 증대 ▲자산 종류별 관리제도 완비, 각 지역의 비효율적 유휴 자산 활성화 지원

자료: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그러한 가운데 2021년 중앙1호문건을 통하여 설정하였던 5년의 빈곤재발 방지 지원 기간(과도기로 명명)이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과도기 이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저소득층·저개발지역에 대한 계층별·분류별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빈곤 퇴치 목적의 국가 투자로 형성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통일적인 자산 등기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도 처음 제시되었다.

2.2.3. 현(县) 지역 산업 발전 촉진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은 우리나라의 군(郡)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현(县) 지역을 단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축산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역 내 소도시와 농촌(乡(乡)·진(镇))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중앙1호문건은 농촌 지역

별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산업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농촌산업간 융·복합 발전과 물류유통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표 3〉 현(縣)지역 산업 발전 촉진 관련 추진 과제 및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농촌 지역 특색 산업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 농촌산업 육성) ▲친환경·특색 농축산물 재배 및 사육 촉진 ▲농산물 가공업 발전 촉진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실시 ▲특색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농산업화 수준 제고 • (농촌산업 융합 발전 촉진) ▲농촌산업 융합발전 프로젝트 추진 심화, 농촌 지역 신산업·신업체 육성 ▲농촌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추진, 문화산업을 활용한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촌관광의 특색화·고품질화·규범화 수준 향상 • (농촌 지역 물류유통체계 구축) ▲현대적 농산물·농자재 유통망 구축 가속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공급망 구축 지원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촉진
대 농가 연계 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농업경영체와 농가간 연계 강화) ▲신형 농업경영체(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기업, 농기업 주도의 농업산업화연합체 등) 지원 정책과 농가 소득 증대 정책간 연계체계 완비 ▲신형 농업경영체와 농가간 연합·합작 유도, 배당·지분출자·서비스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한 농가와의 수익 공유 확대 • (사회자본의 투자 유도)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분야 투자 유도 및 규범화
농가 소득원 발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단위 농산업 경영 모델 발굴) ▲농가 경영에 적합한 소득 창출 농산업 육성 ▲지역 여건에 따라 농가 단위의 가내 농축산업·수공업(庭院经济), 산지복합경영(山下经济, 산지 재배·축산 등) 및 민박경영(民宿经济) 발전 촉진 • (취업 촉진) ▲농촌 지역 취업 촉진 정책 추진 강화, 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관련 협력 강화, 특색 있는 일자리 육성 및 제공 ▲가정흥농행동계획(家政兴农行动计划)* 추진 ▲고령 농민공 취업 지원 강화 ▲농민공 임금지불 보장제도 전면 개선 및 효과적 운영 추진, 각종 농민공 임금 체불 단속 ▲특색이 있는 현(縣) 지역 경제 발전 촉진, 고용 규모가 큰 산업 발전 지원, 농민들의 거주지 인접 지역 취업 및 소득 증대 촉진 <p>* 가정흥농행동계획(2021~2025년)(家政兴农行动计划(2021~2025年)): 상무부 등 14개 부처·기관 공동 명의로 2021년 10월 발표한 하우스키팅 서비스업(家政服务)을 통한 농촌진흥 및 농촌노동력 취업 촉진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소득 증대 조치) ▲디지털 농촌 강농(强农)·혜농(惠农)·부농(富农) 특별 사업 실시 ▲공공근로(以工代赈) 사업 실시 규모 확대, 정부 투자 중점 프로젝트 및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공공근로 방식 활용 확대

자료: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또한, 대다수의 영세 분산적인 개별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경영 규모가 큰 이른바 신형 농업경영체(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기업 및 농기업 주도의 농업산업화연합체 등)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연계 및 수익 공유 모델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별 농가 단위 경영에 적합한 소득 창

출 농산업 모델 육성과 농촌 지역 내 취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및 고용 규모가 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2.4. 농촌개발 추진 강화

농촌진흥전략은 도·농 통합발전전략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縣) 지역 단위의 통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및 농업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농촌 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縣) 지역 도·농 통합 개발계획의 수립을 최적화할 것을 촉구하고, 지역 내 경지 면적의 총량 보전 및 영구 기본농지 면적의 안정이라는 강한 제약하에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상수도·도로·교통·통신·물류유통·에너지·주택 등의 인프라 시설 확충, 교육·의료·보건·위생·복지·취약계층 보호 등의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및 농업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4〉 농촌개발 추진 강화 관련 추진 과제 및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현(縣) 지역 도·농 통합 개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화 계획 수립) ▲농촌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해 농촌진흥과 신형도시화의 유기적 결합 추진 ▲현(縣)과 향(鄉)의 국토공간계획 수립시 통합적 공간 배치 및 요소 보장 추진 ▲도·농간 산업·인프라·공공서비스 일체화 촉진 ▲마을계획 수립시 품질·실효성 제고 ▲마을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으며, 마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현(縣)·향(鄉) 국토공간계획에서 포괄적인 관리 규정 제시 가능 ▲마을개발의 중점 및 우선순위 합리적 결정, 개발과 관리·보호 통합 추진, 지역 특색의 맞춤형 농촌개발 모델 모색 • (경지 보전을 고려한 토지 정비 추진) ▲현(縣) 지역의 경지 면적 총량 보전 및 영구 기본농지(永久基本农田)* 면적의 안정을 전제로 향(鄉)·진(鎮)을 기본 실시단위로 하는 토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p>* 기본농지(基本农田): 각급 지방정부가 토지이용 총체규획을 통해 획정한 기본농지보호구역(성·자치구·직할시 기준 해당 행정구역 내 경지면적의 80% 이상)내 농지로 과거 우리의 절대농지와 같이 농업생산 용도 이외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지를 의미하며, 보호·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영구 기본농지(永久基本农田)라고도 표현</p>

주요 과제	주요 내용
<p>농촌 지역 인프라시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도·농 상수도 통합 추진, 대용량 급수 상수도 규모화 및 소규모 상수도 건설 추진 ▲조건 충족 지역의 경우 현(縣) 지역 단위로 농촌 상수도 관리·보호 • (도로·교통·통신) ▲또 한차례의 농촌 지역 공공도로 업그레이드 사업 실시, 농촌 지역 도로·교량·터널 위험 요인 조사 및 정비 추진 ▲47지(건설·관리·보수·운영)가 좋은 농촌도로(四好农村路) 건설 지속 추진 ▲농촌 지역 수로 교통 여건 개선 ▲농촌 지역의 통신 서비스 수준 제고 • (물류 유통) ▲농촌 지역 여객·화물·우편서비스 융합발전 촉진 ▲촌(村)지역 택배서비스(快递进村) 사업 추진 심화 및 택배 물류 종합 서비스 센터 건설 강화 ▲현(縣) 지역 상업체계 구축 강화, 대형 유통기업의 현(縣) 지역 시장 체인점 설치 지원, 향(乡)·진(镇) 지역에서 콜드체인 배송 및 즉시 배송 서비스 추진 ▲농촌 지역에서 낡은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以旧换新)을 장려하는 소비 진작 정책 추진, 폐가전이나 구가전 등의 회수 체계 완비 • (에너지) ▲농촌 지역 전력 공급 보장 수준 제고 및 공고화 ▲농촌 지역의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강화 ▲조건 충족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차량 배터리 공공 충전·교체 시설 건설 장려 • (주택) ▲농촌 지역 위험주택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사업 지속 추진,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피해 주택 복구 및 재건축 안정적 추진
<p>농촌 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숙학교의 학습 여건 및 소방·안정 등 관리 수준 제고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건설 안정적 추진 • (의료·보건·위생·복지) ▲농촌 지역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영양개선 계획 관리 강화, 식품안전 및 관련 자금 사용 관리 강화 ▲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현(縣) 지역의 밀착형 의료공동체 건설 추진, 중심 향(乡)·진(镇) 지역의 보건소 서비스 역량 강화,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농촌 지역 전염병 예방·통제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전 주민 체력단련 및 애국위생 운동 전개 ▲기본의료보험 가입 유인 메카니즘 개선,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없는 농촌 주민에 대해 차년도에 중증 질환 보험의 최대 지급액 한도 상향 조정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의 기초 연금액 상향 조정, 현(縣)-향(乡)-촌(村) 3단계 양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현(縣) 지역 양로서비스 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촌(村) 지역 상호부조형 양로서비스 추진 장려 • (취약계층 보호) ▲농촌 지역 영유아 돌봄서비스 강화 ▲농촌 지역 미성년자 지원·보호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농촌 지역 잔류아동(留守儿童, 돈 벌러 외지로 나간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 홀로 남겨진 아동)과 곤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준 제고 ▲장애인 보호 및 건강회복 서비스 강화
<p>농촌 지역 생태환경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정주 환경 정비 강화) ▲농촌 지역 화장실 개조 시행체계 완비, 사회화 관리·보호 및 서비스체계 완비 ▲농촌 지역별 여건에 맞게 오수·생활하수 처리 모델을 선택해 화장실 분뇨 및 생활하수 처리 추진, 농촌 지역 악취수계(黑臭水体) 기본적 처리 완료 ▲농촌 지역 생활 쓰레기의 배출량 감량, 현지·인근 지역 처리 및 자원 활용 추진 •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업비점오염이 두드러진 지역의 체계적 관리 강화 ▲가축 분뇨 자원 활용 및 수산 양식장 폐수 처리 강화 ▲토양 중금속오염 이력추적 및 처리 강화 ▲농산부산물(바이오매스)의 종합적 이용 지원, 농산부산물 소각 금지 지역 범위 확정 및 관리 강화 ▲3북 프로젝트(三北工程, 서북지역, 화북지역 및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방재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추진 강화, 사막화 방지 및 종합 관리 효과 제고 ▲초원 생태 보호·복원 강화 ▲소규모 하천 유역의 생태환경 개선 추진 ▲장강(长江) 10년 여획 금지조치 지속 추진, 장강(长江)의 희귀·멸종위기 어종 보호 및 주요 서식지 생태 복원 강화

자료: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2.2.5. 농촌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은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 당조직 주도하에 농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도 농촌 지역 당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실시와 함께, 업무 추진과정의 형식주의 배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조치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당조직 주도하에 문명화된 농촌, 평화로운 농촌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농촌 지역의 낡은 풍토, 풍속을 개선하여 문명적인 풍토, 풍속을 정착시키고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표 5〉 농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 관련 추진 과제 및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당조직 역량 강화) ▲당조직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 추진, 당조직의 인도 하에 농촌 지역을 관리하는 원칙 견지, 기층 당조직의 영도 역량 강화 ▲현(縣)급 당·정부 지도부의 임기 안정, 향(乡)·진(镇)급 당·정부 지도부 및 간부 인력 육성 지속 강화, 일부 젊은 간부들의 농촌 현지 부적응(水土不服) 문제 해결 주력 ▲농촌 지역 두 위원회(촌 당지부위원회, 촌민위원회) 지도부 교체 안정적 추진, 역량이 취약하고 분산된 촌급 당조직 집중 정비, 촌(村) 주재 촌급 당조직 제1당서기와 업무팀의 역할 수행 강화 ▲농촌 지역 당원 및 간부 대상 교육훈련 강화 • (농촌 지역 당조직 관리 강화)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 관리 감독 체계 완비, 농촌 지역 당조직 간부(특히 겸직 간부) 관리 감독 엄격 시행 ▲촌(村) 업무 공개 및 민주적 논의 제도 진일보 강화, 농민들의 다양한 방식의 논의 과정 참여 지원 ▲농촌진흥 사업 추진시 부정부패 문제 시정 조치 심화, 촌(村) 시찰 강화 및 농촌 지역 당조직 기층 간부들의 세분화된 업무 책임 및 사무 관련 규범 완비
형식주의 개선 및 기층 당조직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당조직 관리 강화)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의 업무 책임 및 사무 리스트 완비, 업무 집행 상황 감독·평가 강화 및 동태적 업무 조정 체계 완비 ▲현(縣)·향(乡)에서 업무 인력을 파견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 모색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에 대한 조사·검사·평가 엄격 관리 및 농촌진흥 관련 평가 간소화·최적화 ▲‘1표 부결(一票否决; 표결 과정에서 1표의 반대표만 있더라도 부결 처리)’ 또는 서명이 이루어진 ‘책임장(责任状; 서면 형식으로 업무 책임 사항을 적시한 문건)’ 관련 사항 처리 결과 공고화 ▲기층 당조직 대상 업무 시행 절차 명확화, 형식주의 시정 지속 추진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 업무 통합 관리 추진 ▲위를 줄여서 아래를 보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향(乡)·진(镇)급에 자원 배분 강화, 분류 관리 및 통합 사용 강화
문명적인 풍토·풍속 정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풍토·풍속 개선) ▲신시대 농촌 지역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 사상·정치의 인도 역할 강화, 문명적인 농촌 풍토·풍속 정착 프로젝트 실시, 당의 혁신 이론 체화 및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실천 추진 ▲신시대 새로운 풍모를 갖추고 ‘나는 대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한다’는 실천 활동 추진, 화목한 가정 및 조화로운 이웃 만들기 추진 ▲중화민족의 단결·진보 선전 및 교육 강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 (농촌 지역 문화 유산 보호 및 계승) ▲우수한 농촌 문화 자원 향유 체계 구축, 농촌 지역 문화 서비스 및 재화 공급 확대, 전통극 보급 등 문화 혜택 향유 활동 전개, 농촌 문화 보유 인재 지원 강화, 대중적 문화·체육 활동 발전 유도 ▲전통 농촌 마을 집락 보호구역 건설 추진, 농촌 문화유산 보호·계승 및 활성화 추진 강화, 농촌 지역 문물 보호 프로젝트 심화 실시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농촌 지역 넓은 풍토 · 풍속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풍토 · 풍속 개선) ▲농촌 지역의 고액 결혼지참금(결혼시 신랑측이 신부측에 주는 돈과 예물) 문제 종합 관리 지속 추진, 중화전국부녀연합회 ·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등 당조직의 역할을 강화해 농촌 지역 결혼 적령기 주민 대상 공익성 연애 · 혼인 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 ▲혼인상담소의 사기 행위 등 불법 행위 단속 강화 ▲조상을 모시는 사당 관리 강화 ▲장례 문화 개혁 심화, 공익성 생태 안장 시설 건설 추진 ▲경조사시 과도한 물질적 과시나 장례시 임의 매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관련 규범과 기준 제정 추진 ▲농촌 지역 문화 연출 시장 관리 및 지속적인 공연 활동 단속 강화 ▲농촌 지역 과학 대중화 기지 건설 강화 및 봉건적 미신 타파
농촌 지역 안정 · 평안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 해결 및 갈등 해소 방안 모색) 신시대 풍교경험(枫桥经验) 견지 및 발전, 갈등 · 분쟁의 조사 및 해결 강화, 정보 공유 및 협력적 해결 체계 완비,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 풍교경험(枫桥经验): 1960년대 초 절강성 주지(诸暨)시 평치아오(枫桥)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과 정부가 앞장서서 대중에 의거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안정을 유지해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추진 경험 • (농촌 지역 분란 세력 및 범죄 척결) ▲농촌 지역 불량세력 척결 및 정상화 메커니즘 완비 ▲농촌 지역 악의 무리(村霸) 및 가문종족 악질세력 척결 ▲농촌 지역 종교 관련 사무 관리 강화 ▲농촌 지역 도박 척결 및 마약 퇴치 강화 ▲다단계, 사기 등 경제범죄 근절 • (농촌 지역 위험 관리 및 재난 예방) ▲농촌 지역 응급상황 관리 조직체계 완비 ▲농촌 지역의 도로 · 교통, 가스, 소방, 건축 등 분야에서 위험 관리 및 조사 · 정비 강화

자료: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2.2.6. 자원의 최적 배분 및 배치 강화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농촌진흥과 함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농촌 개혁을 주로 토지(농촌 집체 경제조직 집단 소유의 농지, 임지, 농가 주택지와 국가 소유 농지) 재산권 제도 안정 및 토지 자원의 활용 강화, 농촌진흥 분야 인력 육성 및 투융자 체계 혁신과 관련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토지 재산권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인 농지 도급 기한 30년 재연장 이슈와 관련하여, 성 · 자치구 · 직할 시별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갈등이나 분쟁의 해소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농민공(농촌 호적 인구)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였지만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된 호적제도 등으로 인하여 도시 주민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공들은 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들 농민공을 조속히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6〉 자원의 최적 배분 및 배치 강화 관련 추진 과제 및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농촌 지역 토지 도급 관계 안정 및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토지 도급 기간 재연장 원만 추진) ▲ ‘큰 안정, 작은 조정’이라는 원칙 하에 제2차 토지 도급 기한 만료 농지에 대한 도급 기한 30년 재연장 성(省)급 지역 시범사업의 성(省) 내 실시 범위 확대 ▲토지 도급 기한 재연장 과정의 갈등·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대다수 농민들의 도급 기한 재연장 성사 및 토지 도급 관계 안정 보장 • (농촌토지 거래 촉진)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거래 관리서비스 제도 완비, 달성 목표와 임무를 하달하는 방식의 토지 거래 촉진 지양 ▲토지 거래 가격 지수를 발표하거나 현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实物计租) 등을 통해 토지 거래 비용의 안정화 추진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부문 서비스업의 품질·효율성 향상을 통해 농가와의 연대 역량 강화
농촌 지역 자원·자산 관리 및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자원 관리 및 활용)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농촌 지역 택지(宅基地) 권리 확정·등기·증서 발급 업무 안정적 추진 ▲농민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 지분출자, 합작 등 방식으로 이용을 활성화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도시 주민의 농촌 지역 농가 주택이나 택지 구입 불허 ▲당·정부 퇴직 간 부의 농촌 지역 토지 점유 및 주택 건축 불허 • (농촌 집체 경제조직 재산) ▲농촌 집체 경제조직이 소유하는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거래 개혁 추진, 농촌 집체 경제조직 수익의 구성원간 분배 및 권익 보호 체계 완비 ▲지역 여건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농촌 집체 경제 발전 촉진, 농촌 집체 경제조직의 과도한 수익 달성 목표 제시 지양 및 집단경영 리스크와 부채 엄격 관리 ▲농촌 집체 경제조직의 자금·자산·자원 관리 강화 ▲신규 증가 경지에 대한 규범적 관리 및 합리적 이용 추진
농촌진흥 투융자 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일반 공공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 관련 예산 우선 보장 및 성과관리·인센티브·제약 강화 ▲중앙정부 예산 투입, 초장기 특별 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 (금융·보험) ▲재대출(再贷款), 재할인(再贴现), 차별적 지급준비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들의 농촌진흥 분야 자금 투입 확대 추진 ▲금융기관들의 농업·농촌·농민 분야 특별금융채권 발행 지원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농촌진흥 채권 발행 장려 ▲농촌 지역 신용체계 구축 추진 심화, 농업·농촌·농민 분야 관련 신용 정보 수집 및 공유 강화 ▲살아있는 가축·가금이나 농업 관련 시설 등의 담보 용자·대출 보급 확대 ▲농촌 지역 중소형 금융기관의 농업 및 소농 지원 포지셔닝 견지, 성·자치구·직할시별로 농촌 신용사 개혁 가속화, 촌진은행(村镇银行)의 개혁 및 재편 안정적 추진 ▲다원적 농업보험 체계 구축, 특색 농산물 보험 발전 지원 ▲농촌 지역의 각종 불법 금융 활동 근절 ▲농업·농촌·농민 분야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항목 전 과정 관리 감독 강화 및 자금 편취·암거래·횡령·유용 등 문제 시정 주력

주요 과제	주요 내용
<p>농촌진흥 분야 인재 육성체계 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 관련 인력 육성 강화) ▲농촌진흥 인재 지원 계획 실시, 농민 기술 기능 교육 훈련 강화, 농촌진흥 관련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 및 실용 인력풀 확대 ▲농촌진흥 관련 장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농산업 수요에 따라 농업 관련 학교의 전공 조정 및 최적화 ▲농업·농촌 관련 직업교육 수준 제고, 직업학교와 농기업 등의 산학협력체 조직 장려 ▲3지1부계획(三支一扶计划)*, 과학기술 분야 특별파견단 파견, 특설 일자리게획(特岗计划)* 및 대학생들의 서부대개발계획 자원봉사 등의 프로젝트 안정적 추진 ▲농촌 여성 꿈나무계획(乡村巾帼追梦人计划)* 및 농촌진흥 청춘 공로 행동(乡村振兴青春建功行动)* 실시 심화 ▲과학기술 분야 소규모 연구소의 농촌 지역 정착 및 농업·농촌·농민 분야 봉사 지원 ▲대학생 농촌 의사 특별계획(大学生乡村医生专项计划)* 지속 실시 ▲도시의 각 분야 전문기술 인력의 농촌진흥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려,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채용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체계 완비 * 3지1부계획(三支一扶计划): 대학 졸업생이 농촌 지역에서 농업·교육·의료 지원 분야 및 빈곤 퇴치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특설 일자리게획(特岗计划): 교육부 등 4개 부처·기관이 2006년부터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정식 명칭은 ‘농촌 의무교육 과정 학교 교사 특설 일자리게획(农村义务教育阶段学校教师特设岗位计划)’. 수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공개 선발해 중서부지역 빈곤 현(县)에 소재한 농촌 지역 학교의 교사로 임용하는 프로젝트 * 농촌여성꿈나무계획(乡村巾帼追梦人计划): 여성 대학 졸업생, 여성 기능인, 여성 기업가 등의 귀농·귀촌을 지원해 수준이 높은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 프로젝트 * 농촌진흥 청춘 공로 행동(乡村振兴青春建功行动):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이 주도해 청년들이 농촌진흥전략 실시 관련 분야에 종사하여 농촌진흥 전면적 추진 및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를 위해 공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운동 * 대학생 농촌 의사 특별계획(大学生乡村医生专项计划): 조건에 부합하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농촌 지역에 내려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 시험 및 등록을 면제해주는 프로젝트
<p>임지(林地), 국영농장 및 공소합작사 등의 개혁 통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지) 농촌 지역의 집체 소유 임지(林地) 재산권 제도 개혁 추진 심화, 임목 벌채 관리 제도 조정 및 최적화, 임지 사용권자의 임목 처분권 및 수익권 행사 강화 • (국영농장·공소합작사) ▲국영농장 자산 및 국영 농기업 관리 감독 체계 완비, 국유 농지 재산권 제도 개선 및 규범적 관리·이용 촉진 ▲공소합작사(供销合作社) 종합 개혁 추진 • (농업 용수 관련 제도 개혁) 농업 용수 가격 종합개혁 추진 심화, 농업 용수의 취수·이용 관리 강화, 지하수 과잉 개발 관리 강화, 절수 관계 기술 보급 확대
<p>도시 이전 농업인구의 시민화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추진) 보조금 지급(주택, 교육, 의료 등 분야), 신규 증가 건설용지 활용, 인프라 건설 투자 등과 연계 하여 도시 이전 농업인구의 시민화 추진 • (호적제도) ▲전국 통일의 호적관리 업무 서비스 공개 플랫폼 완비 ▲상주지역에 등록된 호적에 의거해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추진 ▲취업지역 내 보험 가입시 호적 제한 제도 전면 철폐 • (사회보장제도) ▲조건을 갖춘 도시 지역부터 안정적으로 취업해 생활하고 있는 도시 이전 농업인구를 주택보장 정책 범위에 포함 ▲도시 이전 농업인구의 자녀 중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자녀의 유입지 공립학교 취학 비율 제고 • (재산권 보장) ▲도시 정착 농민들의 토지 도급권, 택지 사용권, 집체 수익 분배권 등 권리 보호 및 자발적 권리 포기시 보상 방안 모색

자료: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2.3. 2024년 중앙1호문건과 2025년 중앙1호문건의 비교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농촌개혁과 농촌진흥을 핵심 키워드로 6대 목표와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7 참조). 6대 목표란 ▲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 ▲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 현(縣) 지역 산업발전 촉진, ▲ 농촌개발 추진 강화, ▲ 농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 ▲ 자원의 최적 배분 및 배치 강화를 말한다. 2024년의 중앙1호문건과 일맥상통한다. 즉, 지난해인 2024년 중앙1호문건에서 제시되었던 목표 6가지를 표현을 달리하여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7>을 통하여 2024년과 2025년 중앙1호문건의 중점 추진과제를 비교해 보면 이들 목표의 문서상 배치 순서도 지난해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2025년과 2024년의 중앙1호문건 개요 비교

2025년도 중앙1호문건		2024년도 중앙1호문건	
목표	중점 추진과제	목표	중점 추진과제
①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유지작물 단수 증대 사업 추진 강화 2.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지원 3. 경지보호 및 우량 농지조성 강화 4. 농업 과학 기술 역량 강화 5. 농업재해 방제 및 복구 역량 강화 6. 식량 생산 지원 정책 체계 완비 7. 농산물 유통 및 생산 관리 강화 8. 다원적 식품 공급체계 구축 9. 식량 및 식품 절약체계 구축 	① 식량 안보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 및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 2. 경지보호제도 실시 강화 3. 농업인프라 시설 건설 강화 4. 농업 과학 기술의 지원 역량 강화 5. 현대식 농업경영체계 구축 6. 식량 및 주요 농산물 관리 역량 강화 7. 식품 절약 관련 각종 운동 추진 강화
②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11. 농촌 지역 빈곤 재발 방지 체계와 저소득층 저개발지역에 대한 계층별·분류별 지원제도 통합 구축 12. 빈곤 퇴치 목적의 국가 투자로 형성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②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빈곤 회귀 방지 모니터링·지원체계 강화 9. 산업 및 취업·지원 지속 강화 10. 중점지역 지원 강화
③ 현 지역 산업 발전 촉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농촌 지역 특색 산업 발전 촉진 14. 대 농가 연계체계 완비 15. 농가 소득원 발굴 강화 	③ 농촌 산업 발전 수준 향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농촌 지역 1·2·3차 산업 융합발전 촉진 12. 농산물 가공업 업그레이드 촉진 13. 농촌 지역 물류·유통 질적 발전 촉진 14. 농가소득 증대 조치 강화

2025년도 중앙1호문건		2024년도 중앙1호문건	
목표	중점 추진과제	목표	중점 추진과제
④ 농촌개발 추진 강화	16. 현 지역 농촌 지역 통합 개발 계획 수립 17. 농촌 지역 인프라 시설 확충 18. 농촌 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19. 농촌 지역 생태환경 관리 강화	④ 농촌개발 수준 향상	15. 농촌개발의 선도 역량 강화 16. 농촌 지역 정주환경 정비 사업 업그레이드 추진 17. 농촌 지역 인프라 시설 확충 18. 농촌 지역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19. 농촌 지역 생태 문명 건설 강화 20. 현 지역 단위 도·농 통합 발전 추진
⑤ 농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	20.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21. 형식주의 개선 및 기층 당조직 부담 완화 22. 문명적인 풍토 정착 강화 23. 농촌 지역 낡은 풍토 풍속 개선 24. 농촌 지역 안정·평안 유지	⑤ 농촌 거버넌스 수준 향상	21. 당 조직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 추진 22. 농촌 문화 번영·발전 추진 23. 농촌 지역 낡은 풍토 풍속 개선 24. 평화로운 농촌 건설
⑥ 자원의 최적 배분 및 배치 강화	25. 농촌 지역 토지 도급 관계 안정 및 완비 26. 농촌 지역 자원·자산 관리 및 활용 강화 27. 농촌진흥 투융자 체계 혁신 28. 농촌진흥분야 인재 육성체계 완비 29. 임지(林地), 국영농장, 공소합작사 등의 개혁 통합 추진 30. 도시 이전 농업인구의 시민화 방안 모색	⑥ 삼농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	25. 농촌업무에 대한 당 영도체계 완비 26. 농촌 개혁·혁신 강화 27. 농촌진흥을 위한 다원적 투자체계 완비 28. 농촌 지역 인재풀 강화

주: 굵은 글씨체 부분은 2024년 중앙1호문건과 내용이 중복된 사항임을, 2024년도 내용 중 사선 글씨체 부분은 2025년도에서 제외된 사항임을 표시함.

자료: 2024년도 중앙1호문건, 2025년도 중앙1호문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를 기초로 필자 재구성

다만 2024년 중앙1호문건에 있었지만 2025년 중앙1호문건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 ① 식량안보(2025 문건에서는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의 '3. 농업인프라 시설 건설 강화', ② 대규모 빈곤 재발방지(2025 문건에서는 비곤 퇴치 성과 공고화)의 '9. 산업 및 취업·지원 지속 강화', ③ 농촌 산업발전 수준 향상(2025 문건에서는 현 지역 산업발전 촉진)의 '12. 농산물 가공업 업그레이드 촉진'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④ 농촌개발 수준 향상(2025년 문건에서는 농촌개발 추진 강화)의 '15. 농촌개발의 선도 역량 강화'과 ⑥ 삼농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2025년 문건에서는 자원의 최적 배분 및 배치 강화)의 '25. 농촌업무에 대한 당 영도체계 완비' 등도 해당된다.

대신 2025년 중앙1호문건에 있거나 강조되고 있는 항목도 있다. 예를 들면 2025년 중앙1호문건의 ①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2024년 문건에서는 식량안보 확보)의 '2.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지원'과 '5. 농업재해 방제 및 복구 역량 강화', '6. 식량 생산 지원 정책 체계 완비', '8. 다원적 식품 공급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들 관련 목표마저 아직 달성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② 비곤 퇴치 성과 공고화(2024년 문건에서는 대규모 비곤 재발 방지)의 '12. 빈곤 퇴치 목적의 국가 투자로 형성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⑤ 농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2024년 문건에서는 농촌 거버넌스 수준 향상)의 '21. 형식주의 개선 및 기층 당조직 부담 완화'도 해당한다. 이 외에도 ⑥ 자원의 최적 배분 및 배치 강화(2024년 문건에서는 삼농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의 '26. 농촌 지역 자원·자산 관리 및 활용 강화'와 '30. 도시 이전 농업인구의 시민화 방안 모색'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농촌문제의 심각성도 여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중국의 식량안보 -식량안전보장법 통과-

3.1. 법률 제정까지의 경위

3.1.1. 법안(초안) 심의의 경과

통상적으로 법안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세 번의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식량안전보장법안도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친 상무위원회를 거쳤다. 첫 번째는 2023년 6월 26~28일 개최되었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였으며, 두 번째는 2023년 10월 20~24일 개최되었던 제6차 회의, 그리고 세 번째는 2023년 12월 25~29일 개최되었던 제7차 회의 마지막날 법률이 성립되었다.

아울러 제1회째, 제2회째의 심의 후에는 각각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²⁰⁾)'

20)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란 시민들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시장과 시의원은 의무적으로 경청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규제 과정이다. 주요 목표는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법률 및 정책에서 효율성,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지(협의할 문제를 공개하기 위해), 협의(정보 및 의견 교환의 양방향 흐름) 및 참여(정책 또는 법률 초안에 이익 집단 참여)가 포함된다. 협의에서 다양한 수준의 커뮤니티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도구는 아르스테인(Arnstein)의 사다리 모델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르스테인의 사다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편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다.[1] 비효율적인 상담은 진정한 참여적 의사 결정이 아닌 의무 또는 표시로 이루어진 미용 상담(cosmetic consultation)으로 간주된다.(출처: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각각 ‘제2 심의고(第二審議稿)’, ‘제3 심의고(第三審議稿)’가 작성되었다.

3.1.2. 법안 심의과정에서의 주요 추가 사항 및 수정점

전국민대표대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동 대회 사무국명의 소개문(紹介文)이나, ‘법제일보(法制日報)’ 등 관계 미디어 보도를 종합해 보면 주된 수정 포인트를 <표 8>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표 8> 식량안보법 심의 과정에서의 주요 추가 사항 및 수정 사항

① 2023년 6월 제1회 심의 후, 추가·수정된 사항	
제6조 (정책·금융 지원)	‘농업 보험제도 정비’에 대하여 법문을 추가 ‘식량 생산자와 지방정부의 경지 보호와 식량 재배로의 의욕 환기’ 표현 삽입
제7조 (과학기술 혁신)	‘식량안보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제후, 국제무역 기능 발휘’를 추가
(또한, 상기 추가부분은 최종적인 법문에서는 제4조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조화 (등)’의 조항을 후단으로 이동	
제16조 (조항 신설)	‘황폐경지 정비·복경(復耕) 촉진’에 관한 조항 추가
제17조 (조항 신설)	‘알칼리 토양지의 종합적인 이용 촉진’에 관한 조항 추가
제20조 (조항 신설)	‘농업생산자재 안정공급과 사용 삭감·과학적인 사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
제57조 (조항 신설)	‘각종 조직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낭비 시정, 업계 단체로서의 절약 기준 수립·보급 교육’에 관한 조항을 추가
② 2023년 10월 제2회 심의 후, 추가·수정된 사항	
제2조 (식량안보의 기준)	‘(식량안보법’은...) 인민 대중의 먹거리의 풍부·다양화와 품질·영양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을 삽입
제7조 (식량안보보장에 관련된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인재육성, 장려 추진 정비’ 문언을 추가
제11조 (운용경지(運用耕地)에 대한 보상제도 실행)	‘각종 경지운용 행위를 엄격히 억제, 확실한 경지 운용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 이전에 먼저 운용억제가 전제임을 명시
제21조 (수자원 관리)	수리 인프라 건설, 수자원 배치 개선 등 문언을 추가
제22조 (농업기계화 작업 기초조건 만들기 강화)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추진’의 문언을 추가
제23조 (농업기술보급체계 만들기)	‘간작(間作)=혼작의 일종’ 등의 재배방법 보급...식량 단수 향상을 촉진’ 문언을 추가
제26조 (식량 파종면적 안정, 식량 생산자 수익보장 체계 정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식량 생산자 수입 증가 촉진’ 문언을 추가
제30조 (식량비축을 정부가 청부하는 기업 등의 책무)	기업의 비축업무와 상업성 업무를 구분, 분리하는 등의 의무에 대하여 문언을 추가
제42조 (국가에 의한 식량 가공업의 발전 지원 등)	후단에, ‘식량가공업자의 책무로 국가가 규정한 표준을 집행하고, 세세함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등의 문언을 추가

자료: 百崎賢之, ‘第2章 中国 —對外情勢不安定な中,食糧安全保障を最優先,「農業強国」を目指す—,「主要国農業政策・食料需給」ブク研資料」第6号, 2024년 3월

3.2. 식량안전보장법의 구성과 특색

3.2.1. 식량안전보장법의 내용과 구성

법률 전체는 11장·74조(제1장 총칙(9조), 제2장 경지 보호(8조), 제3장 식량 생산(11조), 제4장 식량 비축(6조), 제5장 식량 유통(7조), 제6장 식량 가공(5조), 제7장 식량 긴급대응(5조), 제8장 식량절약(6조), 제9장 감독 관리(7조), 제10장 법률책임(8조), 제11장 부칙(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9).

〈표 9〉 중국식량안전보장법 조문 일람

제1장 총칙

제1조 법률의 목적

식량 공급보장, 국가의 식량안전 확보, 식량안전 위험방지 제어능력 향상을 통한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안전보장

제2조 당의 지도, 국가 식량안전전략(이십문자전략, 二十文字戰略), 식량안보에 있어서 토지와 기술의 중요성, 곡물의 기본적 자급과 식용 식량의 절대 안전보장(=완전자급), 대식물관(다원적 음식공급체계 구축, 다면적인 음식자원 개발, 인민이 요구하는 양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하며 질적으로 영양있고 건강한 먹거리 충족)

제3조 식량안전 책임제 확립, 당·정부 동책임 실행, 지방정부의 구체적 책임과 부문 간의 협조

제4조 식량품종 구성, 지역배치 개선, 국내·국제 시장·자원 통일 조정, 국제연계 강화, 국제무역 기능 발휘

제5조 지방정부에 의한 국민경제·사회 발전규획(5개년 계획)에 대한 식량 안전보장을 규정하고, 식량 안전보장규획 제정

제6조 자금 등의 투입과 재정·금융 지지, 사회 자본의 투입, 농업보험의 정비

제7조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과 정보화

제8조 식량 안전강화를 위한 선전교육 강화와 사회적 의식 제고, 식량 절약 풍조 형성

제9조 식량안보에 공헌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장려

제2장 경지 보호

제10조 국토 공간 규정에 의한 제어, 경지와 영구 기본 농전의 레드라인 등에 의한 엄격한 경지 보호, 지방정부의 경지보호 임무, 경지보호 보상제도

제11조 전용 경지보상제도의 실행

제12조 경지의 임지, 초지, 원지 등으로의 전용 억제, 국가 계획 외 퇴경 범위 확대 금지

제13조 경지 이용과 관련된 재배 용도 컨트롤, 식량·면화·유지·당류·채소·조사료 중시, 지방정부의 경지용도 관리·감독 의무, 촌민위원회·농촌집단 경제조직의 위반행위 보고 의무

제14조 국가에 의한 엄격한 경지 질 보호제도 수립, 고규격 농전 정비 촉진

제15조 경지의 질 보호·향상, 토양 개량, 대중형 관개구 건설·개조, 흑토 토양의 보호 등, 휴경, 생태환경 개선 등

제16조 황폐지의 정비 촉진, 복경 유도·이용

제17조 알칼리화 토양지의 종합 이용

제3장 식량 생산

제18조 종자업 진흥, 종자형질자원 보호개발, 신품종권 보호 강화, 육종기술 연구 등의 지원

제19조 종자비축 제도

제20조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등 농업생산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절감·유기비료 사용 증가 등

제21조 수자원관리·수리 인프라 강화, 수도 유출·토양오염·지하수 과잉채취 대책 등

- 제22조 농업기계산업 발전, 식량생산 기계화 촉진
- 제23조 식량 생산기술 보급 서비스 수준 향상, 식량 단수 향상 촉진, 스마트농업 발전 촉진
- 제24조 식량 생산의 방재 감재 · 재해 구호 강화(자연재해, 병충해)
- 제25조 식량 생산 기능구와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역 창설 관리 강화
- 제26조 식량 파종면적의 안정적 확보, 식량 생산자 수익보장
- 제27조 신형 농업경영 주체의 식량 생산 보조육성, 사회화 서비스 지원, 대규모경영 장려 · 식량생산 집약화 지원
- 제28조 식량 생산 지역의 이익보상 정비

제4장 식량 비축

- 제29조 정부 식량 비축 체계 정비(비축 규모는 국무원이 확정)
- 제30조 식량비축 도급기업의 책임, 구분 경리 · 식량비축에 관한 전 과정 기록 의무
- 제31조 식량 비축 청부 기업의 적정한 대장 정비와 적정한 검사 모니터링 실시
- 제32조 식량 기업에 의한 사회책임 비축, 농업경영체에 의한 자주 비축
- 제33조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 비축 인프라, 저장기술 혁신, 정보화 추진
- 제34조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상황 보고 의무

제5장 식량 유통

- 제35조 국가에 의한 식량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 수급균형 · 시장안정 유지
- 제36조 지방정부의 식량 유통 인프라 정비 의무
- 제37조 식량 관계 기업의 대장 정비와 지방정부에 보고 의무
- 제38조 국무원에 의한 중점 식량 품종의 정책적 매입 실행
- 제39조 식량 관계 사업자의 정부 규정에 기초한 특정 상황의 식량 저장량 집행(증감) 의무
- 제40조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 시장 조정 컨트롤(정보 발출(發出), 식량 매입 · 매도, 사업자에 대한 식량 저장량 집행요구, 비축 식량 방출 수배, 식량 가공량 확보 유도 등)
- 제41조 국가에 의한 식량 리스크 기금(비축 지원, 시장안정에 활용) 정비

제6장 식량 가공

- 제42조 국가에 의한 식량 가공업의 발전 지원, 식량 가공업자의 책무 등
- 제43조 식량 가공 구조의 개선과 가공품의 질 향상 등 식용 식량의 우선(사료용, 공업용은 식용에 종속)
- 제44조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 가공업의 적절한 배치, 가공능력 확보 의무
- 제45조 식량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안정적인 생산 판매 관계 확립, 지역균형 확보
- 제46조 국가에 의한 식량 가공원료 기지, 인프라, 물류체계와 기술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7장 식량 긴급 대응

- 제47조 국가에 의한 식량 긴급관리 체제 창설, 지방정부에 의한 긴급 대응 네트워크 정비 등
- 제48조 중앙과 지방의 식량 긴급대책 제정
- 제49조 식량 시장 이상 변동에 대한 보고제도
- 제50조 지방정부에 의한 긴급처리 조치 발동
- 제51조 긴급처리 조치의 종료, 긴급상태 대응 능력의 회복

제8장 식량 절약

- 제52조 절약의 장려, 낭비에 대한 반대. 지방정부에 의한 장려, 교육, 지도관리
- 제53조 식량 생산자에 의한 생산 작업관리 강화와 손실 · 낭비 감소 의무. 국가에 의한 농업기계, 기술보급 등의 조건 정비
- 제54조 식량 저장 · 운반 · 가공시설의 정비로 인한 손모 감소
- 제55조 식량 가공기술의 보급
- 제56조 식량 식품 생산경영자에 의한 생산, 유통 등 관리제도의 창설 정비, 합리적인 소비 유도 의무. 국민 · 가정에 의한 적절한 소비와 낭비 방지 습관 육성
- 제57조 국가기관, 사회조직의 식량 관리 강화, 낭비의 시정. 업계 단체의 절약 기준 및 보급 의무

제9장 감독관리

- 제58조 지방정부의 생산, 비축,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감독 검사 등
- 제59조 중앙정부 부국의 모니터링, 사전경보, 리스크 평가 등
- 제60조 국가에 의한 식량 생산·비축·운수·가공 표준 정비, 경영자의 품질 확보 업무, 지방정부에 의한 품질 안전관리 업무 강화와 트레이서빌리티 체계 창설 등
- 제61조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 생산 경영 관계 조직에 대한 식량 안전 감독 검사 실시
- 제62조 중앙 정부부국에 의한 지방정부에 대한 경지 보호, 식량 안전보장 책임제 실시 상황의 고사(考察) 등
- 제63조 관계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 안전 심사
- 제64조 식량 안전보장과 관련된 신용체계 정비(경영자의 신용기록 정비 등)

제10장 법률책임

- 제65조 지방정부의 직책 불이행에 대한 처분
- 제66조 법을 위반하는 작물 재배에 대한 질책 교육, 벌금 등
- 제67조 식량 비축 계약자들의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처벌
- 제68조 정부 출연에 의한 식량 유통 인프라의 훼손, 철거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벌
- 제69조 식량 긴급상태에서의 정부 지휘 위배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벌
- 제70조 경지 식재 모독 훼손 시정명령

벌금

- 제71조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 처벌
- 제72조 관계법규 위반의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의 배상 책임

제11장**부칙**

- 제73조 법률상 식량의 정의, 잡량(雜糧, 잡곡 등)의 범위, 식물성 유지 원료·식물성 유지에 관한 참조 적용
- 제74조 시행일(2024년 6월 1일)

식량안전보장법 구성과 문언의 선택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읽을 수 있다.

① 식량 안전보장을 국가 안전과 직결시키는 자세, 이것을 향한 당의 역할, 존재감이 전면에서 나타나 있다.

법률 첫머리에 식량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국가의 식량 안전보장이 경제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전 보전에 직결되어 있다(제1조)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량 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중국 공산당 리더십 하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견지한다(제2조)는 것을 전면에서 내세웠다. 동시에 그 보장은 ‘공산당과 정부가 같은 책임을 진다’(제3조)고 하며, 법률 체계 안에도 당의 존재를 전면에서 내세우는 시진핑 정권(習近平 政權)이 기본적인 자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자, 국민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법이 관리 통제하는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당·정부)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안전보장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나 사업자의 임무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법에

는 국가가 주어로 된 조항도 상당히 많다.

우선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재차 국가(공산당 중앙과 중앙 정부)의 식량 안전보장에 대한 강한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다. 그 점을 기본에 두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각 레벨의 지방정부가 당 조직과 일체가 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방향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강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횡행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강한 훈계를 언외(言外)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③ 시진핑(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심 체제의 색채를 현저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후의 ‘식량안보의 기본적인 이념(이십문자 전략, 二十文字戰略²¹⁾’, ‘곡물의 기본적 자급과 식용 식량의 절대적 자급’ 등을 기본이념으로 조문 상에도 그대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그의 강한 지도하에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는 용어나 장의 구성(‘대식물관(大食物觀)’²²⁾의 강조(제2조), ‘식량 절약’에 하나의 장(제8장)을 충당하고 있는 것 등)이 중시되었다.

농업생산 관계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경지(제2장)와 종자(제3장(농업생산, 제18조, 제19조) 대책이 맨 앞에 놓여 있다. 또한, 식량 생산의 담보에 관해서 농민 수입 확보를 중시함으로써 향촌진흥을 향한 대처와의 관련에 대하여 시진핑이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²³⁾를 향한 길이 강하게 의식되고 있다.

④ 식량 비축 외에 유통, 가공 등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만 농업생산 관계 조문에도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식량 관리의 경위, 이 법의 법안 작성 담당 부국(국가양식·물자비축국(國家糧食·物資(備蓄局)과 그 상위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을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제4장부터 제7장까지의 식량 비축이나 유통, 가공(긴급 시의 대응을 포함)에 관한 장을 구성하는 등 조문의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다. 한편, 심의과정에서 추가 사항을 포함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장의 구성(제2장 경지보호, 제3장 농업생산)도 내실화하는 방향

21) ‘以我為主, 立足國內, 確保產能, 適度進口, 科技支撐’이라는 20개 문자를 말한다.

22) 이 글의 주 13) 참조

23)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동으로 누리자는 말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했던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으로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했지만, 도농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시진핑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 ‘공동부유(共同富裕)’이다. 2015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관련 회의에서 “빈곤을 제거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고 규정하였다. 2021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핵심 국정기조가 되고 있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

이 강하게 의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시장 주도로는 식량 생산 증강이 어려운 중국 농업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식량 안전보장 실현, 식량 안정공급과 관련된 목표 등은 국가의 지도하에 각 레벨의 지방정부가 식량 안전보장 ‘책임제’(경지 보호도 기본적으로 동일)에 의해 담보해 나갈 것(제3조)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가 식량 생산 기능이나 중요 농산품 생산 보호구의 건설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그 구체적인 건설·관리를 강화하여 목표 작물의 생산을 유도해 나갈 것(제25조), 전국의 지역을 식량 생산지역, 식량 소비지역, 식량 생산·소비 균형지역으로 구분한 후, 국가가 식량 재배 면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식량 생산자의 수익보장 구조(농업 지지 보호와 가격 형성의 구조)를 정비하고 식량 생산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식량 생산자의 의욕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시장에서의 수급 관계에 의한 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컨트롤하여 나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농업생산 중에서도 식량 생산에 대한 수익은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중에서는 식량 생산의 확보가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도 강하게 반영한 구성이다.

⑥ ‘대식물관’으로서 다양한 식품의 밸런스, 식품의 질 확보 등이 중시되고 있다.

‘식량안전보장’법에서도 국민 식량의 양적인 충족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부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확보나 그 안전성, 질적 충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상이 인식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후술하는 ‘3.2.3. 식량안보법의 주요 내용’ 중 ‘1) 제1장 총칙’의 제2조 부분 참조).

또한, 식물성 유지나 그 원료인 ‘유지’(대두를 제외하고)‘식량’에는 위치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서도 식량에 준하는 지렛대가 강하게 의식되고 있다(제73조).

⑦ 식량 수급의 전망이나 비축 등의 구체적 방향 설정은 명확하게 읽을 수 없다.

향후의 중국 인구 동태나 식생활 변화 등을 근거로 하면서 어떠한 수급 밸런스를 그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안에 ‘적당한 수입’(제2조)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관계되는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내용으로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식량의 안정공급을 확보한다는 자세(제1조, 제2조 등)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다.

식량 비축(제4장 참조)에 관하여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비축 규모 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원이 확정한다고 하며 구체적 내용에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식량

긴급대응에서도 지방 수준의 긴급사태에 이른 시점에서의 유통확보 등에 관한 조치의 발동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수준에서도 양적인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긴급수입 등의 대외적인 조치나 다소 긴 기간 동안의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대외적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초 안(案)에는 없고, 심의과정(第2稿)에서 추가되었다. 하지만 ‘(제4조) 국가는 국제식량안보와 관련된 ‘합작’(협력이나 연계)을 강화하여 식량의 국제무역 기능을 발휘시킨다.’라는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3.2.2. 중국에서의 ‘법치’와 식량안보법의 목적, 효과

시진핑 총서기는 법치(의법치국, 依法治国) = 법에 의해 나라를 통치함을 자신의 통치 사상의 근간으로 삼아 ‘시진핑 법치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총서기가 주도하는 ‘4개의 전면’(‘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통치’,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통치함) 중 하나로 들고 있다²⁴⁾.

시진핑 총서기 하에서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사중전회, 四中全會)에서 ‘전면적인 법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11월 당의 ‘중앙 전면 의법치국 공작회의(中央全面依法治国工作會議)’에서 ‘시진핑 법치사상’을 ‘의법치국(依法治国)’의 지도적 지위로 자리매김시켰다.

같은 회의²⁵⁾에서 시진핑 총서기로부터는 ① ‘당이 지도하는 것을 견지’할 것, ②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할 것(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와 인민 민주 전제의 국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 그리고 ‘법치’(법에 근거하는 나라의 통치)와 덕치(德治)(덕에 근거하는 나라의 통치)가 상호 결합, 상호 보완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덕은 당의 지도를 옹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치 인재를 육성하여 리드시키는 것으로 위치시켰다.

또한, ③ ‘법에 근거하는 나라의 통치’와 ‘당의 규칙에 근거하는 당의 통치’를 동격

24) 熊選國(2023)「論全面依法治國的戰略地位和作用」,『中国法学』2023年第2期: 5-24 .

25) 2020년 11월 18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시진핑 재중앙전면 의법치국공작회의상 강조건정불이주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도로위전면건설사회주의현대화국가제공 유력법치보장(習近平在中央全面依法治国工作會議上強調堅定不移走中國特色社會主義法治道路為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提供有力法治保障)’, <http://cpc.people.com.cn/gb/n1/2020/1118/c64094-31934590.html>

(패러렐(parallel))으로 취급하지만 전체의 자리매김 중에서는 당연히 당이 우위로 자리매김하여 그것들이 유기적 통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李昊, 2023)²⁶⁾는 이전부터 불문율이 존재하는 당 규칙의 법규화를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시진핑 정권의 특색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⁷⁾.

2018년 3월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 다음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소 고소에서 이끄는 것)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애초부터 법 아래에서 당이나 그 지도자를 제어한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량 안전보장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당은 법 밖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법률 안에 쓰여져 큰 역할을 가지는 것이 법문 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이 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식량 안전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전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이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제3조의 ‘식량안전 책임제 확립’에서는 식량 안전보장에 있어서 당정동책(黨政同責) 즉, 당과 정부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점이 법문 안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이다²⁸⁾.

이러한 법체계 안에서 지방정부나 국민에 대한 임무 하달과 지도 방침 등에 대한 명시에 주안점이 두어 그 방향에서의 조문 상의 기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26) 李昊(2023), ‘習近平政權における党の領導の「強化」’, 『習近平政權研究』第2章 公益財団法人日本國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research/JIIA_China_research_report_2023.html

27) 당 ‘영도(領導)’의 ‘제도화’, 즉, 당내 법규의 제정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는 각 분야에서 당의 ‘조례’등을 제정하는 것에서 명문화하는 대처를 진행시키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로서 2019년 8월 15일 신화사(新華社) ‘중공중앙인발(中共中央中央印發) 중국공산당 기구 편제 공작 조례(中國共產黨機構編制工作條例)’, <http://epaper.hljnews.cn/hljrb/20190816/435597.html?eqid=91fdd0c300028f290000000664643b92>). 또한, ‘당정동책(黨政同責)’에 대해서도 본래적으로는 당과 국무원의 연명 규정에 의해 제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공업 생산의 안전 생산 관리의 ‘당정동책’을 규정한 2018년의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양판공청(兩辦公庁)의 연명 통지(중공 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청(中共中央中央辦公庁·國務院辦公庁)《지방 당정 영도 간부 안전 생산 책임제 규정(地方政領導幹部安全生產責任制規定)》(2018년 4월 8일 시행), https://www.gov.cn/zhengce/2018-04/18/content_5283814.htm?eqid=bfbe46bb000011a80000000664803516)에서는 처음에 지방 각 레벨의 당위원회 책임 간부 직책이, 다음에 같은 레벨의 정부 책임 간부 직책이 열거되고, 이들에 관해 지방정부나 그 ‘기타 간부’가 당위원회나 정부의 책임자 직책을 분장하는 것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당과 정부 각각의 간부의 성적사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당정동책’을 엄밀하게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세한 운용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의미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갑자기 법률 문어상으로 ‘당정동책’이 등장하여, 당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8) 이 글의 주 25) 및 주 27) 참조

식량 안전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량 수입 정책의 방향이나 수급 밸런스 전망, 비축 정책의 양적인 틀을 포함한 운영방침 내용, 비상사태가 발동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등 당의 방침이나 국가 정책운영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관계하는 점에 대한 대처 방향이 법률 안에는 쓰여있지 않다. 엄연히 법률 외에 당(및 정부)이 톱-다운(Top-down) 방식에 의해 적절한 리더십을 존재시킨다는 의미이다.

식량 안전보장법의 경우 지방정부나 사업자·국민에 대하여 그 책무나 있어야 할 모습을 명시하고 지도한다는 방향을 내세운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국가가 무엇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조문이 있으며 국가의 강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 동시에 ‘근원 부분은 국가(당 중앙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담당한다.’라는 위치 설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나 사업자에게 무엇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을 나타내어 국가 통치 관리를 향한 법치(依法治国)의 실질을 담보하고 식량 안전보장 그리고 경지 보호에 대해서도 책임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2.3. 식량안보법의 주요 내용

1) 제1장 총칙

제1조에 법률의 목적으로서 ‘식량의 유효한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며 식량안전 리스크를 방지·제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식량 안전보장·식량 안전 리스크 제어 즉, 중국의 경제사회와 국가의 안전 보전이라는 인식이 이 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예로부터 기근 발생 등이 정권 붕괴의 계기가 되어 온 역사적 경위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2조에도 관련되는 14억 국민을 스스로 부양하는 것 이외에 국가 존립 기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절실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헌법에 근거하여’라는 문구가 2023년 12월의 세 번째 심의에서 삽입되었다. 이 문구 또한 ‘당의 지도’와의 관련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제2조에는 중국의 식량 안전보장 업무의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규정 전문은 ‘국가의 식량 안전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며 전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조화시키며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국내에 입각하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적당히 수입하며 과학기술을 버팀목으로 삼는다는 국가식량안전 전략을 실시하고 식량을 토지에 저장하고 기술에 저장하는 것을 견지하며 식량 생산·비축·유통·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용 식량의 절대적 안전보장을 확보한다.’고 장황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우선 업무 전체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부터 ‘과학기술을 지탱한다’까지에 대해서이다. 이 부분이 2013년 12월 시진핑 총서기 제1기 초기에 시진핑 하에서 개최된 당과 정부의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결정된 중국 식량안보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십자 전략’이다. 그중에서도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가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즉, 타국에 종속될 위험이 없을 것,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식생활을 영위하는’ 사태를 엄하게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농업 강국’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같은 조항 말미에서와 같이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용 식량의 절대적 안전보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래 사람의 식용 용도가 주를 이루는 쌀과 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00% 자급을 기본으로 하고 밀 수입은 어디까지나 고(高)글루텐, 저(低)글루텐 등 특정 용도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옥수수와의 국제 시세의 상대 관계에 따라 증감하는 사료용 밀이나 사료용 쇠미의 수입은 식용 식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는다.

대두에 대해서는 전체 자급률은 20% 정도이지만 착유용과 식용(두부 등 대두를 원료로 하는 식품 용도)을 구별하고 있다. 착유용은 식용 식량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식용 대두만을 중국산으로 완전자급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식량을 토지에 저장하고 기술에 저장한다.’라는 부분은 2016년 3월에 결정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새롭게 나온 표어로 경지 확보와 농업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은 창고에 보관함과 동시에 백성에게 보관한다.’는 표현이 개정된 상태로 사용된 것이다. ‘토지에 저장’의 종래 뉘앙스는 ‘당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면적에 여유가 있으면 휴경으로 지력을 요청하여 부족 시에 대비하는’ 측면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배하는 경지’ 그 자체를 서서히 확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같은 조항 후반부에서는 ‘국가 식량 안전보장은 대식물관을 구축하고 다원적인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방향에서 많은 경로를 통해 식품자원을 개발하고 인민 대중의 식품 품종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품질·영양이 건전한 소비 니즈²⁹⁾를 충족시켜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중앙1호문건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앞의 ⑥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식물관’은 ‘식량’만의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 것과는 일견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용어로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2023년 12월 세 번째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서 ‘인민 대중의’가 추가되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성이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가 ‘인민의 보다 충족된 먹거리를 만족시키는 큰 임무를 스스로 이끌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은 이에 관하여 ‘대식물관이 확립됨으로써 음식물 공급체계가 정비되고, 식량 산업체인·공급체인이 향상되어 각종 음식물의 공급균형이 실현된다.’, ‘시장지향에 적합한 농업의 공급사이드 구조개혁을 진행한다.’³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식량 편중의 폐해를 담당 부국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³¹⁾.

제3조에는 중국의 당·정부 시정 집행의 기본인 책임제의 식량 안전보장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조문화되어 있다. 그중에는 ‘당과 정부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 책임제는 어느 레벨의 조직이 식량 공급이나 농지 확보, 농촌진흥 등의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확히 한 후, 해당 조직이나 그 책임자의 실적 평가 기준을 평가 점수 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합격점을 명시하는 등 성적 평가³²⁾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삼농(농업·농촌·농민) 분야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29) 중국의 농식품 소비 니즈 변화에 대해서는 허덕, ‘중국의 식품·축산물 소비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식량·식품 공급정책 목표 달성도 중간 점검’, 『해외곡물시장동향』 2024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2023년 10월 16일 농민일보(農民日報), ‘유환훙(劉煥鑫, 국가양식·물자비축국장): 인진천행 대식물관경호보장 국가양식안전(認真踐行大食物觀更好保障國家糧食安全)’,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811745079680161&wfr=spider&for=pc>

31)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산업경제연구실의 중옥(鐘鈺) 주임은 ‘목하, 중국의 먹거리에는 3가지의 존과잉’ 상황(경지로부터 산출로의 의존과잉, 식량으로의 의존과잉, 국제시장으로의 의존과잉)이 있는데, ‘대식물관’의 실행은 이들 과잉 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2023년 12월 20일 신경보(新京報),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811745079680161&wfr=spider&for=pc>

32) 중국의 평가 시스템에 있어 ‘구속력’ 지수는 ‘예측 가능성’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 책임있게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측 가능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기업 등의 자발적인 시장 활동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 목표이다. 개발 목표와 ‘예측 가능성’ 지수의 차이점은 계획의 진행 상황과 달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계획문서에 기재된 목표지표가 구속력이 있는지, 예측 가능한지, 아니면 애초에 지수화조차 되지 않은 가치(기대되는 발전방향으로써의 발전목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정책적 입장과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허덕, ‘중국의 곡물 수급정책과 수급 동향·전망~옥수수과 대두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2025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에 대해서는 ‘성장(省長) 책임제’가 기본이며, ‘채람자(菜籃子³³)=장바구니 물가’가 ‘시장(市長) 책임제’로 간주되는 것과는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책임 최상위자 뿐만 아니라) 현(縣) 수준 이상의 지방정부에 해당 행정구역의 식량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즉, 정부 내부에서는 발전개혁, 자연자원(토지관리 계획 등), 농업·농촌, 식량·비축 등의 주관부문이 공동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4조에서는 국가의 거시통제 하에서 국가가 식량의 품목 구성과 지역별 배치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국제 양쪽의 시장과 자원을 배려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효율적인 식량 공급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2조의 ‘적당한 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가가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제협력·협조를 강화하고, 국제무역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관련된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밖에 제5조에서는 식량 안전보장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계획)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량 안전보장을 위한 자금 등의 적절한 투입이나 재정·금융 측면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매입·저장·운송·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단계) 간의 협조와 국가 식량안전 산업지대 건설 등에 의하여 식량 생산자와 지방정부 쌍방에게 경지 보호, 식량 재배, 식량 안전보장 등을 확실히 실시토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향촌진흥의 전면적 추진 등에 대하여 정하고 특히, 각 분야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입과 금융상품·서비스가 사회에 잘 스며들도록 장려한다는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제6조는 농업 보험제도 정비에 대한 규정이며 제7조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선전교육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표창·장려에 대하여도 조문을 각각 두고 있다.

2) 제2장 경지 보호

제2장은 경지 보호에 관한 내용의 규정들이다. 제2장에서는 ① 국토 공간 규정에 의거, 국토 공간 전체 내에서 용도 관리를 실시하는 가운데, 경지와 영구 기본 농전의 보호 ‘레드라인(red line)’ 등을 확정 실행함으로써 엄격하게 경지를 보호하기로 하였

33) 채람자(菜籃子) 물가란 장바구니 물가를 의미한다. 쌀·밀가루·기름·채소·육류·계란·우유 등 생활 물자의 생산과 운반, 가격 안정을 주된 목표로 한다. (출처: Economy Chosun, 허육의 법으로 보는 중국 2‘채람자(菜籃子·장바구니)’ 물가 잡기, 2021년 2월 7일 게재,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7/2021020700031.html)

다. 즉, 제10조에서는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임무를 확정함(경지 총량과 질의 확보)과 동시에 제12조에서는 앞의 제1조와 더불어 ② 경지보상 제도(경지 전용의 엄격한 억제와 전용 경지에 대한 확실한 대체 경지의 보충) 실시, 제13조에서는 ③ 경지 재배 용도 관리, 경지 이용 우선순위 실행, 제16조에서는 ④ 경지의 질 보호 제도 지역 정비(지방정부가 추진), 제17조에서는 ⑦ 알칼리 토양지의 종합 이용(국가가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윤작 휴경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흑토 토양이나 알칼리 토양의 활용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국가가 정하는 방향에 따른 경지보전의 구체적 임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활용해야 할 경지가 휴경되거나 국가의 승인 없이 퇴경환림(退耕還林,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킴) 등이 실시되는 것을 경고하면서 중앙에서 부과된 경지확보의 책임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나가려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제3장 식량 생산

제3장은 식량 생산에 관한 규정들이다. 식량 생산에 대해서는 제18조에서 우선 종자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로서 종자업 진흥 추진, 종자 형질 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 종자 형질 뱅크, 식물 신품종권 보호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19조에서는 지방정부에는 종자 비축제도 창설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등 농업 생산자재 안정공급과 적절한 사용·이용은 지방정부의 역할(제20조), 수자원 관리와 수리 인프라 정비는 국가의 역할(제21조), 농업기계 산업 발전과 기계화 작업조건 정비는 국가의 역할(제20조) 등 역할 관련 규정이다.

제23조에서는 식량작물 재배면적 증가가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단수 향상’을 중시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간작(작기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겹치는 복수작목의 동일 포장에서의 혼합재배)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식량 생산 강화를 위한 지역에 따른 보호, 부양책으로서 국가로서 식량 생산 기능구와 중요 농산품 생산 보호구 창설 강화(제25조), 식량 파종면적 확보(제26조), 신형 농업경영 주체에 의한 식량 생산을 보조 육성, 사회화 서비스에 대한 지원(제27조), 식량 생산지역, 대규모 식량 생산 현(縣)에 대한 재정 이전 교부 제도 정비 등(제28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제4장 식량비축

제4장은 식량비축에 관련된 규정들이다. 제29조에서는 국가가 정부 식량비축체계를 수립할 것, 정부비축은 중앙정부 비축과 지방정부 비축으로 구분할 것, 비축 규모 등은 국무원이 확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정부로부터 비축을 하청받은 기업·조직이 비축 식량의 양과 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과 상업성의 업무와의 구분 경리·경영 분리, 기록 의무, 대장의 정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제32조에서는 식량 가공기업이 사회책임 비축을 창설하거나 가정농장 등의 자주 비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 비축 인프라와 품질 검사 능력의 정비 강화, 비축에 대한 과학기술 측면의 혁신이나 관리의 정보화 강화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5) 제5장 식량 유통

제5장은 식량 유통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35조에서는 국가의 식량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시장질서 유지, 시장안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 유통 인프라 정비 보전 강화 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37조는 경영자의 대장 정비 의무, 제38조는 국무원이 정책적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제40조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식량시장 조정 제어에 대해, 제41조에서는 식량비축 지지, 시장안정을 위한 식량 리스크 기금제도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다.

6) 제6장 식량 가공

제6장은 식량 가공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42조에서는 식량 가공업의 발전 장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와 제44조에서는 국가 레벨, 또한 지방 레벨의 가공 구조 개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5조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제휴에 관한 규정 이, 제46조에는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7) 제7장 식량 긴급대응

제7장은 식량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47조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레벨로 나누어 책임을 지며, 지역별로 관리하는 '식량 긴급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 동

시에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식량 긴급 저장, 운반, 가공, 공급의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량의 긴급 수송을 확보하는 구조를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는 중앙정부 내에서는 전국적인 긴급대책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지방정부는 해당 구역의 상황에 근거한 식량 긴급대책을 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에서는 국가가 식량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지방정부가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하고, 제50조에서는 돌발사태 발생에 의한 식량시장의 수급 관계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변동에 대하여 상위 등급의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량 긴급상태의 출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긴급대응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한 식량 매입이나 매도, 비축식량 방출, 가공 식량 확보나 제한, 긴급 공급 포인트 설치, 필요한 식량이나 시설, 토지, 물자 등의 징용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40조).

8) 제8장 식량 절약

제8장은 식량의 절약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52조에서는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고 낭비에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유도 장려, 징계 교육을 조합함으로써 식량 절약 업무의 지도와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에서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식량 생산자는 작물의 생장 보호와 생산 작업관리의 강화에 의해 파종, 경작, 수확 등의 각 단계의 식량 손실과 낭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는 국가는 식량 사업 경영자의 식량 저장, 운반, 가공시설 정비의 효율을 제고(up)하여 식량의 손실 감모를 감소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가공단계에서도 과도한 가공 방지, 식품화되는 식량의 제품률 향상, 공업용 식량의 생산 구성 개선 등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식량식품 생산의 경영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식량의 낭비를 방지하며 감소시켜야 하며 또한, 개개의 국민과 가정에는 '문명적, 건강적, 이성적, 녹색의 소비이념 확립, 낭비 근절의 양호한 습관 육성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제56조).

또한, 각 조직 식당에서의 식량 절약, 낭비 행위 시정 철저 등을 요구하고 있다(제57조).

9) 제9장 감독 관리

제9장은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61조와 제62조에서는 지방정부에 있어서 감독 검사 실시(제61조)나 부·국간의 협조(제58조 관련)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 정비,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생산, 비축, 운송, 가공 표준 체계 정비와 이력추적 시스템 창설(제60조), 국가 레벨 감독 조치(제62조),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 안전심사(제63조), 경영자 신용기록 정비(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 제10장 법률 책임

제10장은 법률 책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65조부터 제72조까지에 걸쳐 위반에 대한 각종 처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등의 대응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11) 제11장 부칙

제11장에서는 식량의 범위(밀, 쌀, 옥수수, 대두, 잡량 및 그 식품)를 나타냄과 동시에 ‘잡량’을 고량, 보리, 메밀, 연맥(燕麦, 귀리), 나맥(裸麥, 쌀보리), 녹두, 감자, 고구마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제73조에서는 식물유와 원료의 안전보장에 관해 이 법의 ‘참조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2024년 6월 1일(제74조)로 되어있다.

3.2.4. 2024년 중앙1호문건에서 지목된 중국 식량안보의 향후 과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무국³⁴⁾은 ‘이번에 성립된 식량안전보장법은 전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견지하고 국가의 식량안전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며 식량 안전보장 제도체계를 확립 정비하고 모든 방향에서 식량안전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국가의 식량안전을 위하여 강력한 법치(법률치국)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당의 지도에 기초한 식량 안전보장을 위한 지배체제를 보장하는 도구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의미로 보면 이 법의 성립·시행을 통하여 식량 안전보장에 관하여 각 지역이나 국민, 관계업계에 대해서는 ‘법치’로서 컨트롤을 강화해 나가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당의 리더십’ 하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 등에 의해 실시되어 나가야 할 사항

34) 2024년 1월 3일 중국인대강(中國人大網), ‘위단은중국반원항실법치근기-해독량식안전보장법(為端穩中國飯碗夯實法治根基-解讀糧食安全保障法)’,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401/t20240103_434055.html

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 측면에서 몇 가지 논점이 있다. 즉, 이 법률 이외에 기본적인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몇 가지 논점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앞의 '3.2.1. 식량안보법의 내용과 구성' 중 법의 구성과 문언 선택에 있어 ①~⑦ 등에서 지적한 점을 토대로 다시 향후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향후 중국의 인구 감소나 고령화 추세와 식생활 변화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품목별로 식용 식량 수요 감소가 얼마나 진행될지?
- ② 쌀이나 밀의 식용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수익성 향상이나 농민의 수입 증가에도 기여하기 어려운 '식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 설정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 ③ 고령화, 건강 지향의 향방 등도 포함하고 있는 국민의 식육 소비 동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사료용 식량의 자급, 혹은 식육 자체의 수입을 위한 큰 방향의 재검토가 있을 수 있는지?
- ④ 이 법에서는 제4조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국제 식량안전 보장과 관련된 합작(=협력·제휴) 강화, 식량의 국제무역 기능 발휘'의 내용으로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량의 곡물이나 대두의 안정 수입 수단으로서 '5개년 계획'이나 '중양1호문건' 등에서 묘사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나 '중국판 곡물 메이저' 육성 등을 위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³⁵⁾정책'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향,

35) 일대일로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 (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로드맵은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① 정책 소통(政策溝通), ② 인프라 연결(設施聯通), ③ 무역 확대(貿易暢通), ④ 자금 조달(資金融通), ⑤ 민심 상통(民心相通) 등 5대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 소통'은 정치적 신뢰 및 부처간 실무적 협력에 따른 충분한 교류와 수렴을 통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 간의 발전전략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프라 연결'은 자원 확보 및 주요 거점별 육로, 수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간 산업 및 영역별 표준이 상이한 기초설비 건설과 기술표준화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환경까지 고려해 친환경적인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역 원활화'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투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원스톱(One-Stop) 전자통관 시스템 및 공동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규범을 마련해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자금 융통'은 아시아 통화 안정을 위한 금융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AIIB5), ADB6), BRICs7) 등)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심 상통'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류, 학술교류, 문화, 관광, 과학기술분야 등 전면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2017년 8월 '일대일로 건설 추진 공작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8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즉, 첫째, '해외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유라는 원칙을 지킨다. 또한 중점 지역·국가·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평등·호혜공영을 실현한다. 둘째, '일대일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실을 다진다.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자원 개발, 산업협력 개발, 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 등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셋째, 육상·해상, 국내·외, 정부·민간기업 간 '통합과 조율'을

전략, 외교정책 등이 추진되어 갈 것인지? 등이다.

위의 다양한 점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그 전제가 되는 중국경제 전체의 동향이나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체의 행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식량안보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과 중국 식량안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0> 중국 식량 안전보장의 현상과 과제

사항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안전보장법의 장·조)	실현 수단 (식량안전보장법의 장·조)	달성 상황	주요 과제
생산 안정	식량생산 최우선(2조, 3장)	생산 보조·매입 가격 제도, 안전 보장 책임제(목표 달성에 대한 지방 간부 책임 추궁)·당정 동책(3조, 6조, 25~28조 등)	계속중	'대식물관'과의 양립(수요에 따른 각종 작물의 공급 안정과 품질 확보), 식량 생산 지역에 대한 이익 보상(재정 이전 교부), 식량 생산자에 대한 '사회화 서비스'에 의한 지원
			더욱 강화	대외 불안정화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 강화('신 일천억 근(5천만 톤) 증산 운동', 유지(대두+채종·땅콩 등) 자급 강화 추진('유지병(油瓶)의 내용물도 자급'))⇒'돈 못 버는' 식량 생산에 대한 지역과 농가에 대한 더 많은 의욕 확보 방안의 필요성, 환경에 대한 부하 증대
	쌀·맥류의 완전자급	옥수수 (사료용) 기본 자급	거의 달성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식용 수소는 축소 전망, 사료용 쌀과 공업용 밀의 증대?
			자급률 저하 (2017년 98% →2021년 91%)	대두와의 경지 경합(타개책으로 동일 포장에서의 복합재배, 밀식·간작 권장 등)
			거의 달성(토탈 자급률은 15% (2021년))	'식용: 국내, 착유용: 수입'이 이미 정착된 가운데 증산, 유전자 변형 국내생산 취급
	경지면적 확보, 경지이용은 식량 우선(2장)	보호면적의 철저, 전용 억제와 대체 경지 보충 책임의 철저 (지방 간부 책임제)	계속중	경지의 질 저하·토양 열화, 한계 경지 관련된 환경문제 '퇴림환경(退林還耕, 숲을 갈아엎고 경지로 만들)', 경지의 고규격화(高規格化)
	종자 대책 강화(18·19조)	종자기업 지원 강화, 종자은행, 신품종권 보호 등	계속중	우량품종 확보, 기업 품종 개발력 강화, 해외 도입 두절 위기감 증대

위한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핵심 프로젝트를 이행'해 인프라·경제·무역 등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다양한 금융플랫폼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여섯째, '인문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학습을 추진한다. 일곱째, 일대일로 건설 성과에 대한 '홍보 확대'로 관련 학술·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논의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여덟째, '안전 보장 능력 제고'를 위해 안보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긴급 상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고정오, <https://terms.naver.com/>)

사항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안전보장법의 장·조)	실현 수단 (식량안전보장법의 장·조)	달성 상황	주요 과제
손모 방지	생산·유통·가공 ·저장 각 단계 (8장)	농기계의 보급·개량, 저장·운송· 가공기술 향상 등	계속중	식량 관리 부문의 부패 사안 다발, 원거리에서 의 대처 지연
절약 철저	절약 철저(8장), 남은 음식물 엄금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철저한 홍보 선전	계속중	과도한 절약·낭비 억제가 내수 확대에 부 정적 작용을 미칠 가능성?
비축	주요 식량의 연간 수요상당량 등 확보	국가비축, 지방비축, 민간비축 병용(제4장)	비축량은 기본적으로 충족으로 보임.	수탁기업의 업무 적정성, 양과 질의 보전, 다원적 관리에 의한 효율 저하, 비축량의 편 재 등
안정 수입	수입선 다변화, 인정화	수입국 인프라 지원(일대일로), 중국판 '곡물 메이저 육성	브라질 등 신규 수입선 개척	소수국에 대한 집중 지속, 미국 등과의 대립 이나 우크라이나 위기 지속, 기후변화 다발 화 등

자료: 식량안전보장법, 중국공산당 정부통지, 각종 보도 등으로부터 PRIMAFF(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작성.

4. 평가 및 시사점

중앙1호문건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으로 농촌진흥을 핵심 키워드로 제
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농촌진흥 전략 추진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 지도이념은 ‘신시대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은 2017년 10월 18~24일에 개최되었던 제19차 당
대회를 통하여 등장한 ‘신시대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사상’에서 제시한 국가발전
로드맵³⁶⁾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런 만큼 공
산당과 중국 정부에서 모두 이 사항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은 산적해 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과
제가 망라된 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전략은 2017년
10월에 개최되었던 19차 당대회 직후인 2018년에 중앙1호문건을 통하여 전략의 청사
진을 제시하였으며, 중기 실행 계획인 ‘농촌진흥 전략 계획 2018~2022년(乡村振兴战
略规划 2018-2022年)’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6)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현대화 및 중화민
족을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2020년 중등 소득수준 국가(小康社会) 실현 → 2021~2035년 사회주
의 현대화 실현 → 2036~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으로 이어지는 국가발전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25년 1월에는 새로운 중기 실행 계획인 '농촌 전면 진흥 계획 2024~2027년(乡村全面振兴规划 2024-2027年)'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통하여 전략의 전면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이다(표 11 참조).

한편, 농촌진흥 전략의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농촌진흥 업무를 총괄할 국무원 직속의 '국가향촌진흥국'을 설립하고, 농촌진흥전략 관련 기본법인 '향촌진흥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법률적 강제를 통한 전략 추진 체계 확립되게 되었다.

2025년 중앙1호문건은 6개 분야에 걸쳐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6개 분야란 ① 식량 및 중요 농산물 생산, ② 빈곤 구제, ③ 농촌산업, ④ 농촌개발, ⑤ 농촌 거버넌스, ⑥ 농촌개혁을 의미한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인 2024년 중앙1호문건의 내용 구성 패턴과도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이 글 전반에 걸쳐 설명하였고 강조도 한 바 있다. 물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①에 있지만 ②~⑥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각 정책의 목표별로 제시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제들이다. 이 과제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도 보았다. 하지만 2025년 새롭게 언급된 과제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도 같이 살펴보았다.

〈표 11〉 농촌전면진흥규획(2024~2027년) 개요

주요 목표	중점 추진 과제
① 도·농 발전 구도 최적화, 체계적 농촌 전면 진흥 추진	1. 도·농 발전 구도의 통합 및 최적화 2. 도·농 융합 발전 추진 3. 다층적 농촌 전면진흥 추진 4. 빈곤탈피 지역 전면 진흥 병행 추진
② 농업 현대화 가속화, 전방위적 식량안보 토대 구축	5. 식량 및 중요 농산물 공급보장 역량 제고 6. 농업 인프라 구축 강화 7. 농업기술 및 농기계·장비의 기여도 강화 8. 식량 생산 지원체계 및 역량 강화
③ 농촌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농가 소득 증대 촉진	9. 현대적 농촌산업 체계 구축 10. 농촌 지역 1·2·3차 산업 융합 발전 심화 11. 농가 소득 증대 조치 강화 12. 농촌 지역의 소비 전면적 촉진
④ 농촌 지역 인재 육성 강화, 각계 각종 인재 영입	13. 농촌 지역 인재풀 확대 14. 농촌 지역 인재 육성체계 완비 15. 농촌 지역 인재 확보 체계 구축
⑤ 농촌 문화 번영, 신시대 문명적 풍속 배양	16. 농촌 지역의 정신적 풍모 향상 17. 농촌 문화 생태계 리모델링 18. 농촌 문화의 영향력 강화

주요 목표	중점 추진 과제
⑥ 농촌 생태문명 건설 심화, 친환경 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	19. 친환경·저탄소 농업 발전 가속화 20. 농촌 지역 생태 환경 개선 21.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체계 완비
⑦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 농민 복지 향상	22. 농촌 지역 공공인프라 업그레이드 추진 23. 정주 환경 개선 지속 추진 24. 기초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25. 농촌 지역 서비스 시설 완비 26. 디지털 농촌 건설 가속화 27. 농촌개발 계획의 최적화
⑧ 농업·농촌 개혁 심화, 농촌 지역 발전 동력 활성화	28. 농촌 지역 기본 경영제도 공고화 및 완비 29. 토지제도 개혁 심화 30. <i>다원적 농촌진흥 투자 보장 체계 구축</i> 31. 농촌개혁 중점 과제 추진 강화
⑨ 농촌 지역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농촌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	32. 당조직 주도의 농촌 전면 진흥 추진 심화 33. 당조직 주도의 농촌 거버넌스 확립

자료: 농촌전면진흥규획 2024-2027년(乡村全面振兴规划 2024—2027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에서 재인용

중국은 2024년 「식량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안전 강화를 법제화하였다. 법의 목적은 ‘식량의 유효한 공급 보장과 국가의 식량안전 확보’를 통해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존립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전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추진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스스로 주도권을 쥔다’는 원칙 아래 자급 능력 제고, 과학기술 기반의 생산력 강화, 그리고 쌀·밀의 완전자급 및 식용 대두의 국내 생산 확대가 강조된다.

식량안전보장법은 식량 생산, 비축, 유통, 가공, 절약, 긴급대응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규정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제(특히 성장 책임제)를 명문화하여 실적 평가와 정책 집행의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지 보호(‘레드라인’ 설정), 종자산업 육성, 비축체계의 다층화(국가·지방·민간 비축 병행) 등을 통해 식량 공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국 본 법은 단순한 농업 관련 법률을 넘어 식량안보를 ‘국가안보 전략’의 일부로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구 감소, 고령화, 식생활 변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국제곡물시장 의존 심화 속에서 생산·비축·수입 전략의 조정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대식물관(大食物觀)’ 개념을 통해 식량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식품자원 개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이는 중국의 식량안보정책이 자급 중심에서 ‘전방위 식품안보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법제 기반은 2025년 중앙1호문건의 세부 추진 과제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 빈곤 퇴치 목적의 국가 투자로 형성된 자산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통일적인 자산 등기 관리 체계 구축(과제 12), ▲ 고령 농민공 취업 지원 강화, 지역 특색을 살린 현(縣) 지역 경제 발전 촉진 및 고용 규모가 큰 산업 발전 지원(과제 15), ▲ 조건을 갖춘 도시 지역부터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도시 이전 농업인구를 주택보장 정책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시 이전 농업인구의 자녀 중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자녀를 유입지 공립학교에 취학시키는 비율의 제고, 취업지역 내 보험 가입 시 호적 제한 제도 전면 철폐(과제 30) 등이다.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농촌진흥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농촌개혁이다.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농촌개혁을 또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당면한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촌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주로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즉, 농민들의 권리 강화를 통한 공유제 기반의 농업경영 제도 유지 및 공고화가 주요 목적이다.

농민들의 재산권 중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농지 도급 경영권(농지 사용권)이다. 농지 사용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서는 도급 기간 등 도급 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가 토지 도급 경영제 도입 직후, 제1차 농지 도급 기한은 15년(1983~1997년)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종료되는 1997년 무렵에 기한 연장 조치를 실시하면서 2002년 제정된 ‘농촌 토지 도급법(农村土地承包法)’을 통해 도급 기한을 30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 이후부터 제2차 농지 도급 기간(1998~2027년)이 종료되면 또다시 기한을 30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재연장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하였다.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2차 기한이 종료되는 2027년을 앞두고, 2025년부터 3차(2027~2057년) 농지 도급을 위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재산권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인 농가 주택지 사용권 행사와 관(官) 제도 개혁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도시 유출로 농촌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방치된 빈집을 임대, 지분 출자, 합작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중국 당과 정부는 농업 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제약했던 호적 제도를 개혁하였다. 하지만 농민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농촌 토지 및 집체 수익

관련 재산권 처리 문제가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재산권 포기 시 보장·보상체계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에 202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중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 내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한 차례의 ‘농민공 시민화 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내수 확대에 기여할 도시화(도·농 통합 발전)를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도시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로 이전한 농민들인 농민공들이 여전히 농지, 농가 주택지, 농촌 집체 경제조직 집단 소유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당과 정부는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분배의 몫 등과 같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체계가 농민공 시민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제도의 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업인구의 도시 이전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 도급 경영권 포기 시 보상을 필두로 한 농지 재산권 보장·보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농가 주택지 사용권, 농촌 집체 경제조직 집단 소유 자산의 수익분배권 등 기타 재산권의 보장·보상 조치도 추가로 마련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5년 봄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보고서,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현황 및 전망”, 「중국농업브리프」
 2022년 5월호
- 허 덕, ‘중국의 곡물 수급정책과 수급 동향·전망~옥수수과 대두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2025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사료수급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식량 수급과 ‘식품 안전 보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식품·축산물 소비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식량·식품 공급정책 목표 달성도 중간 점검’, 「해외곡물시장동향」 2024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생우 수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중국 양돈업 상황’, 「해외곡물시장 동향」 10권 4호(2021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중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표와 관련 문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6호(2021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중국 양돈업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년)’,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4호(2020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문 자료]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25년 4월호, 5월호와 6월호 및 7월호
- 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해외정보 ‘중국농업전망보고(2025-2034) 발표(최고기편)(중국)’(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4143.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해외수급 [닭고기/중국] 축산 정보 2025년 4월호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해외정보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5-2034)를 발표(우유·유제품편)(중국)’(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4144.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20년 5월호 「중국 육계산업의 현상과 닭고기 수급 전망」

2. 육계산업 개요 (1) 가금산업에 있어서 육계산업의 위치설정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123.html#title3)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勢」 해외정보 ‘중국 상무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의 조사를 개시(중국)’ 2025년 1월 28일 게시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4023.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勢」 해외정보 ‘중국 최대의 베이커리 전시회에 국내 주요 유제품 기업 등이 출전(중국)’ 2025년 6월 6일 게시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4132.html)

百崎賢之, ‘第2章 中国 一対外情勢不安定な中,食糧安全保障を最優先,「農業強国」を目指す一’, 「主要国農業政策・食料需給」プロ研資料,第6号, 2024년 3월

百崎賢之 (2022) 「第4章 中国—「次の百年」への最初の年, 内外多難の中, 食の安全保障と郷村振興を強調一」『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研究資料 第10号 令和3年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 タイ, ベトナム, インドネシア, 中国, インド, 西アフリカ」

百崎賢之, ‘第5章 中国. 一「ややゆとりある社会」完成目標の年に中国の食と農が直面した内外諸問題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6号, 2021.3

[중문 자료]

농민일보(農民日報), ‘유환훤(劉煥鑫, 국가양식-물자비축국장): 인진천행 대식물관경호보장 국가양식안전(認真踐行大食物觀更好保障國家糧食安全)’,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811745079680161&wfr=spider&for=pc>, 2023년 10월 16일

농촌전면진흥규획 2024~2027년(乡村全面振兴规划 2024—2027年).

당인건(唐仁健) 농업농촌부장, 1호문건과 관련된 기자회견(2023년 2월 14일)

신경보(新京報), 2023년 12월 20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811745079680161&wfr=spider&for=pc>

신화사(新華社), 「중앙 농촌공작회의 재경 소개 시진핑 대 ‘삼농’ 공작 작출 중요 지시(中央農村工作會議在京召開 習近平對“三農”工作作出重要指示)」

신화사(新華社) ‘중공중앙인발(中共中央中央印發) 중국공산당 기구 편제 공작 조례(中國共產黨機構編制工作條例)’, <http://epaper.hljnews.cn/hljrb/20190816/435597.html?eqid=91fdd0c300028f290000000664643b92>, 2019년 8월 15일

李昊 (2023), ‘習近平政權における党の領導の「強化」」『習近平政權研究』第2章 公益財団法人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research/JIIA_China_research_report_2023.html

인민일보(人民日報), ‘시진핑 재중앙전면 의법치국공작회의상 강조견정불이주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도로 위전면건설사회주의현대화국가제공 유력법치보장(習近平在中央全面依法治国工作會議上強調堅定不移走中國特色社會主義法治道路為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提供有力法治保障)', 2020년 11월 18일, <http://cpc.people.com.cn/gb/n1/2020/1118/c64094-31934590.html>

財政部·農業農村部·金融監管總局. 關於在全國全面實施三大糧食作物完全成本保險和種植收入保險政策的通知(財金[2024]45號, 2024.5.21.

財政部·國家發展改革委員會·農業農村部. 關於完善玉米和大豆生產者補貼政策的通知(財建[2020]41號, 2020.3.16.)

2018년의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양판공청(兩辦公廳)의 연명 통지(중공 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청(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지방 당정 영도 간부 안전 생산 책임제 규정(方党政領導幹部安全生產責任制規定)》(2018년 4월 8일 시행), https://www.gov.cn/zhengce/2018-04/18/content_5283814.htm?eqid=bfbe46bb000011a80000000664803516)

중국농업농촌부, '中共中央 國務院關於做好2023年全面推進鄉村振興重點工作的意見'.

중국 농업농촌부 신문판공실(農業農村部新聞辦), '농업농촌부 부서개편 전국 양유 등 주요 작물 대면적 단산제승행동(農業農村部部署開展全國糧油等主要作物大面積單產提昇行動)'

中國農業農村部, (2023a), 『中國農業展望報告』(2023년판), 中國農業科學技術出版社: 64-73.

中國農業農村部 (2023b) 「農產品供需形勢分析月報」(2022年 10月 - 2023年 12月)

중국인대강(中國人大網), '위단온중국반완향실법치근기 - 해독량식안전보장법(為端穩中國飯碗夯實法治根基 - 解讀糧食安全保障法)', 2024년 1월 3일,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401/t20240103_434055.html

陳錫文(2023), '當前農業農村的若干重要問題' 『中國農村經濟』 2023年第8期: 2-17.

何秀榮(2023), '農業強國若干問題分析' 『中國農村經濟』 2023年 第9期: 21 - 35.

각 연도 중앙1호문건(中央1号文件)

[기타 자료]

네이버 블로그 요노마, '중국의 행정구역 개요', 2024년 11월 18일 게재 (<https://blog.naver.com/prs9988124/223663117301>).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원형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행정구획총람, 2010. 8. 1., 황매희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소통 > 농림축산업용 LMO,

https://www.naas.go.kr/10_gmo/Gmo_Info.do?menu_code=1&tg=1&mcode=41)

백수와 함께하는 경제신문 읽는 법', <https://ecodemy.cafe24.com/pmi.html>)

Economy Chosun, 허육의 법으로 보는 중국 2 '채남자(菜篮子·장바구니)' 물가 잡기, 2021년
2월 7일 게재,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7/
2021020700031.html](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7/2021020700031.html))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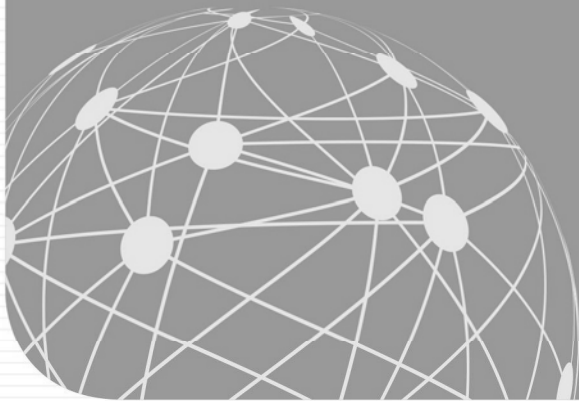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중국유업연감.

식량안전보장법,

중국공산당 정부통지, 각종 보도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로이터 12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박도연*

1. 해외곡물시장 9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1.1. 중국, 미·중 무역전쟁 속 아르헨티나·우루과이산 대두 수입 확대 (China boosts soybean buys from Argentina, Uruguay amid US trade war, sources say) – 2025.9.1.

두 명의 무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대두 수입업체들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산 수입 중단으로 발생한 물량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향후 1년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산 대두 구매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국 가공업체들이 2025/26 시즌 동안 남미 두 수출국으로부터 최대 1,0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일본에 미국산 쌀 추가 구매 요구로 무역 협상 난항(Trump demand for Japan to buy more US rice snagged trade talks, Nikkei says)

닛케이 신문은 토요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미국산 쌀 추가 구매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양국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 조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7월 합의된 미국산 일본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인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가운데, 일본 측 최고 관세 협상대표가 목요일 미국과의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행정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dypark@krei.re.kr

1.2. 인도, 축제 시즌 앞두고 8월 팜유 수입 16% 증가(India's August palm oil imports surge 16% to 13-month high ahead of festive season) – 2025.9.2.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인도의 8월 팜유 수입이 늘어나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두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팜유를 정유업체들이 축제 시즌을 앞두고 적극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식물성 오일 수입국인 인도의 수입 확대는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재고를 줄이고,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밀 수출가격, 수요 부진 속 추가 하락(Russian wheat export prices continue to decline amid weak demand)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이 지난주 신작 수확물 공급 증가와 부진한 수출 수요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KAR의 드미트리 릴코 소장은 단백질 12.5% 함량 밀의 9월 말~10월 초 FOB 가격이 톤당 230달러로, 전주보다 5달러 하락했다고 밝혔다.

1.3. EU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제안, 프랑스 반대 입장 완화(EU proposes Mercosur trade deal, French opposition softens) – 2025.9.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요일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 블록과의 무역 협정을 승인 절차에 회부했으며, 그동안 협정의 주요 반대국이었던 프랑스를 설득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럽연합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 블록은 협상이 시작된 지 약 25년 만인 지난해 12월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독일, 늦여름 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곡물 생산량 큰 폭 증가(Germany's 2025 grains crop up sharply despite late summer rain, farm ministry says)

독일 농업부는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독일의 밀 수확량이 늦여름 작황 직전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24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 또한 독일의 2025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8% 늘어난 약 4,47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1.4. FAO, 세계 식품 가격 2년 만에 최고 수준(World food prices at more than two-year high, FAO says) – 2025.9.8.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금요일 발표에서 8월 세계 식품 가격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류, 설탕, 식물성 기름 가격이 상승한 반면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주요 식품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FAO 식품가격지수는 7월 수정치 130.0포인트에서 8월 130.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9% 높은 수준이다.

중국, 8월 대두 수입 사상 최대 기록(China soybean imports rise to record high for August)

로이터가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8월 대두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수입업자들이 남미산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8월에 1,228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1,214만 톤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1.5. 홍수 피해 입은 인도·파키스탄, 작황 손실로 바스마티 쌀 가격 상승 (Flood-hit India, Pakistan face rising basmati prices amid crop losses) – 2025.9.9.

인도와 파키스탄의 바스마티 쌀 재배 지역에서 폭우와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축소가 예상되면서 바스마티 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향이 나는 바스마티 쌀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로 이 쌀은 일반 품종보다 거의 두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주요 수입국은 영국, 중동, 미국이다.

서류 혼선으로 우크라이나 유채·대두 수출 중단(Confusion over documents halts Ukrainian rapeseed, soybeans exports, union says)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생산자연합(UAC)은 월요일, 유채와 대두 수출에 부과된 10% 관세가 정부의 명확한 서류 절차 부재로 인해 사실상 수출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유럽 국가들에 유채와 대두를 수출하는 주요 공급국이다. 이번 관세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거래업자들은 장기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 미국, 대두 수출 부진으로 중국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US misses out on billions in China soybean sales midway through peak season) – 2025.9.10.

거래업자와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 농가들은 대두 판매 성수기임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으로 인해 중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판매 기회를 놓치고 있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10월 선적분으로 주로 남미산 대두 약 740만 톤을 확보했으며, 이는 중국의 10월 예상 수요의 95%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또한 11월에는 약 100만 톤(예상 수입량의 15%)을 예약한 상태라고 아시아 소재 거래업자 2명이 전했다.

Bunge, 중국행 아르헨티나 대두박 첫 수출 선적 완료 예정(Bunge to finish loading first export of Argentine soybean meal destined for China)

미국 곡물 무역기업 Bunge는 화요일,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3만 톤을 중국 수출용으로 선적 중이며, 해당 작업은 수요일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상 에이전시 NABSA가 밝혔다. 이는 중국으로 향하는 첫 대두박 화물이다. Bunge는 지난 7월에도 중국으로의 대두박 선적을 진행했으나, 지난달에는 상업적 이유로 해당 물량을 베트남으로 전환한 바 있다.

러시아 밀 수출가격 하락 지속(Russian wheat export prices continue to decline)

지난주 러시아 밀 수출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루블화 기준 국내가격은 3주간의 하락 이후 보합세를 보였다. IKAR 컨설팅 대표 드미트리 릴코는 지난 말 기준 9월 말~10월 초 선적 예정인 단백질 12.5% 함량의 러시아산 밀 가격이 톤당 228달러로, 전주 대비 2달러 하락했다고 밝혔다.

**1.7. 아르헨티나, 대두에서 옥수수 전환으로 사상 최대 생산량 전망
(Argentina corn on track for record season as farmers shift from soy) – 2025.9.11.**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농가들이 대두 등 다른 작물에서 옥수수로 재배를 전환함에 따라 2025/26 시즌에 사상 최대 옥수수 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옥수수 생육기에 정상적인 강우가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번 시즌 옥수수 생산량이 6,1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키스탄, 홍수 피해 후 미국산 수수 곡물 구매(Pakistan buys sorghum grain from US after floods, traders say)

유럽 거래업자들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심각한 홍수로 자국 작물이 피해를 입은 뒤 미국에서 수수 곡물 약 5선적분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거래업자들은 약 24만~30만 톤으로 추정했다. 해당 선적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1.8. 엑스파나, EU 연질 밀 생산 올해 사상 최고치 전망(Expana expects record EU soft wheat harvest this year) – 2025.9.12.

상품 리서치 기업 엑스파나(Expana)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EU의 올해 연질 밀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부 및 북부 EU 국가들의 수확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엑스파나는 최신 월간 보고서에서 2025/26 시즌 EU 연질 밀 생산량을 1억 3,610만 톤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8월 전망치보다 330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브라질 Conab, 대두·옥수수 생산 추정치 상향(Brazil's Conab raises soy, corn output estimates as season draws to a close)

브라질 Conab은 목요일 발표한 최종 곡물 생산 보고서에서 브라질 농가들이 2024/2025 시즌 동안 대두 1억 7,147만 톤, 옥수수 1억 3,967만 톤을 수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전망치 대비 대두 생산량은 182만 톤, 옥수수 생산량은 총 267만 톤 증가한 수치이다.

우크라이나, 9월 밀·옥수수 수출 최저가격 인하(Ukraine cuts wheat and corn minimum prices for exports in September)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목요일, 밀과 옥수수의 수출 최저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2월, 경제부가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곡물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1.9. USDA, 사상 최대 옥수수 수확 전망(USDA projects record US corn crop, most harvested acres since 1933) – 2025.9.15.

미국 농무부(USDA)는 금요일 발표에서 미국 농가들이 올가을 사상 최대 규모의 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수확량은 2년 전 기록했던 최고치를 약 15억 부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2년 만에 최대 경작 면적에서 나온 결과이다. USDA는 이번 대규모 수확으로 미국 내 옥수수 공급이 59% 늘어나 7년 만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옥수수 수출 역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간 수급 보고서에서 밝혔다.

러시아, 수출 부진에도 밀 수출관세 3배 인상(Russia hikes wheat export duty three-fold despite slow exports)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부터 밀 수출관세를 톤당 495.9루블로 기존보다 거의 3배 인상한다고 농업부가 금요일 밝혔다. 농업부는 이번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여름철 수출 비수기에는 관세가 낮아지고, 가을철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밀 수출관세가 톤당 4,768루블까지 치솟은 바 있다.

1.10. 가뭄으로 우크라이나 겨울 곡물 파종지 60% 차질(Drought hampers Ukraine's winter grain sowing on 60% of land, say forecasters) – 2025.9.16.

컨설팅 기관 APK-Inform은 월요일, 국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겨울 곡물 파종 예정 농지의 최대 60%가 건조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파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겨울 곡물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농가들은 건조한 토양에 종자를 파종한 뒤 겨울이 습하고 온화해 묘목이 발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 제분업체, 가격 경쟁력과 흑해 지역 지연으로 미국산 밀 수입 확대(Asia millers buy more US wheat on competitive prices, Black Sea delays)

곡물 거래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아시아의 제분업체들이 미국 공급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흑해 지역 선적 지연으로 미국산 밀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들은 약 50만 톤을, 방글라데시 바이어들은 약 25만 톤을, 스리랑카 제분업자들은 약 10만 톤을 확보했다고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업계 회의에 참석한 두 명의 곡물 거래업자가 전했다.

1.11. 미국 EPA, 바이오연료 의무 재할당 제안서에서 모든 선택지 열어둬 (US EPA keeps all options open in biofuel reallocation proposal) – 2025.9.17.

미 환경보호청(EPA)은 화요일, 소규모 정유소 면제(Small Refinery Exemption) 프로그램을 통해 면제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를 대형 정유소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PA는 50%와 100% 재배분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옵션을 제시했으며, 추가적으로 25%, 75% 또는 전혀 재배분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밀 농가, 손실 확대에 EU 곡물 최저가격 170유로 제안(French wheat farmers propose 170 euro EU floor price as losses mount)

프랑스 밀 농가 단체 AGPB는 화요일, 25년간 약 101유로로 동결된 EU의 곡물 최저가격을 톤당 170유로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적자를 겪고 있는 곡물 재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 세계적인 풍작으로 국제 밀 가격이 5년 만의 최저 수준에 근접하면서, 비료와 연료 등 생산 투입 비용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농가들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8월 해상 곡물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Russia's seaborne grain exports fell 16.4% in August)

화요일 업계 소식통이 공개한 해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8월 해상 곡물 수출량은 53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줄었다. 지난 시즌 해상 수출은 러시아 전체 곡물 수출의 약 90%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유채 수출, 서류 혼선으로 2주째 차질(Export confusion stalls Ukraine's rapeseed trade for second week)

우크라이나 농업단체들은 화요일, 유채와 대두 수출에 10% 관세가 도입된 이후 통관 서류 혼선으로 인해 유채 수출이 2주째 막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유럽으로 유채와 대두를 수출하는 주요 공급국이며,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2. 우크라이나 관세청, 유채·대두 수출 통관 재개(Ukraine's customs starts clearing rapeseed, soybean shipments after pause, analyst says) – 2025.9.18.

ASAP Agri는 수요일, 우크라이나 관세청이 새로 도입된 10% 수출 관세를 적용해 유채와 대두 선적의 통관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소규모 물량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약 2주간 통관 서류 혼선으로 인해 유지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프랑스 밀 수출 전망 상향 조정됐으나 높은 재고 부담 지속(French wheat export forecast raised but high stocks hang over market)

프랑스 농업청(FranceAgriMer)은 수요일, 2025/26 시즌 프랑스 연질 밀 수출 전망치를 이집트와 아시아로의 초반 선적 증가를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밀 재고가 21년 만의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EU 최대 곡물 생산국인 프랑스는 2024년의 부진한 수확에서 회복되며 올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한 잉여 물량을 흡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13. 미국 농가, 추가 지원 없으면 ‘재정적 재앙’ 직면(EXCLUSIVE—China snaps up Australian canola after trade spat with Canada, sources say) – 2025.9.19.

미국 농가들이 가을 수확철에 접어들며 낮은 곡물 가격과 무역 전쟁이 생계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농업 지역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연말까지 농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원들과 행정부 간 논의는 공화당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IGC, 2025/26 세계 밀 생산 전망 상향(IGC increases 2025/26 world wheat crop forecast)

국제곡물위원회(IGC)는 목요일 월간 보고서에서 호주, 러시아, 캐나다의 생산 전망 개선을 반영해 2025/26년도 세계 밀 생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GC는 글로벌 밀 생산량을 기존보다 800만 톤 늘어난 8억 1,900만 톤으로 전망했다.

1.14. S&P 글로벌, 2026년 미국 옥수수 재배면적 감소 · 대두 증가 전망 (S&P Global forecasts fewer US corn plantings, more soy in 2026) – 2025.9.22.

S&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금요일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 농가의 옥수수 재배면적이 올해보다 4.3% 줄어든 9,450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두 재배면적은 3.6% 늘어난 8,400만 에이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농가들은 옥수수와 대두 모두에서 풍부한 공급과 미·중 관세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으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 2025/26 시즌 곡물 및 부산물 수출 사상 최대 전망(Argentina grains, byproducts exports could hit record in 25/26 season, exchange says)

사리오 곡물거래소는 금요일, 아르헨티나의 2025/26 시즌 곡물 및 부산물 수출이 1억 510만 톤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시즌의 1억 160만 톤뿐만 아니라, 2018/19 시즌의 기록인 1억 410만 톤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1.15. 아르헨티나, 외화 확보 위해 농산물 수출세 일시 중단(Argentina suspends agro-export taxes to scoop up dollars) – 2025.9.23.

아르헨티나 정부는 월요일, 해외 판매를 촉진하고 약세를 보이는 페소화를 방어하기 위해 곡물과 그 부산물, 쇠고기, 가금류 등에 부과하던 수출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의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의회 내 입법 추진에서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안전 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앙은행은 급감하는 외환보유액을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 아르헨티나 대두 구매 재개(EXCLUSIVE-China buys Argentine soybeans after tax drop, leaving US farmers sidelined)

세 명의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들이 최소 10건의 아르헨티나산 대두 선적을 예약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곡물 수출세를 철폐한 데 따른 조치로 최대 수출 시장에서 배제되고 저가격에 시달리는 미국 농가에 또 한 번의 타격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한시적 수출세 철폐 조치는 자국 대두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거래업자들은 4분기 중국 재고 확보를 위해 신속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통상이 시기는 미국산 대두가 주로 선적되는 기간이지만 현재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1.16. 풍작과 대량 재고에도 인도네시아 쌀값 급등(High rice prices jolt Indonesia consumers despite good crop, hefty stocks) – 2025.9.24.

인도네시아의 쌀 가격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풍작과 막대한 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입가격을 인상하고 조달 품질 기준을 완화한 결과, 시장에서 쌀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대표 품종인 중간 등급 쌀의 가격은 8월 기준 킬로그램당 15,950루피아로, 올해 초 대비 약 5% 상승했다. 이는 2024년 3월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발생해 국내 생산이 위축되었을 당시의 최고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1.17. 브라질 CADE, 대두 모라토리엄 항소 심의 일정 확정(Brazil's CADE sets date for key vote on soy moratorium appeal) – 2025.9.25.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CADE) 재판부가 대두 모라토리엄 프로그램의 이행 중단을 명령한 조치에 대해 Cargill과 Bunge를 포함한 곡물 트레이더 및 유지종자 산업 협회 Abiove가 제기한 항소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요일 관보에 게재된 공지에 따르면, CADE 재판부 소속 6명의 위원은 9월 30일부터 해당 항소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 러시아 농업 당국자, 기상 악화와 연료비 상승이 밀 파종 지연 초래(Russian former agriculture official blames weather, high fuel costs for slow sowing)

전직 러시아 농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요일, 디젤 가격 상승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러시아의 겨울 밀 파종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체 경작지의 절반만 파종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의 농업 부문은 서방 제재 속에서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악천후와 높은 금리, 수출세 인상, 그리고 연료 및 비료 가격 급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세 재부과(Argentina reapplies export taxes on grains and by-products)

아르헨티나 조세청(ARCA)은 수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곡물과 그 부산물, 쇠고기, 가금류에 대한 수출세가 70억 달러의 판매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다시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월요일, 해외 판매를 촉진하고 약세를 보이는 폐소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두·옥수수·밀 및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관련 부산물의 수출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출세 면제로 밀 수입 확대 전망(Brazil importing more Argentina wheat after export tax exemption)

분석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곡물 및 부산물에 대한 수출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 이후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산 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최대 밀 공급국으로, 브라질은 자국 수확량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해외곡물시장 10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2.1.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농산물 통계 중단(Farmers, traders 'flying blind' as US shutdown blocks key crop data) – 2025.10.10.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전 세계 곡물 및 대두 거래에 핵심적인 미국의 농업 통계가 중단되면서, 거래업자와 농가들은 수확기에 생산량 추정치, 수출 판매 통계, 시장 보고서 등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 공백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발생했다. 농가들은 낮은 곡물 가격과 건조한 기후, 작물 질병으로 인한 옥수수 및 대두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2025년 밀 재배 면적 6% 이상 축소(Russia will reduce wheat sown area by over 6% in 2025, deputy agriculture minister says)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올해 겨울밀과 봄밀 재배 면적을 6% 이상 줄이는 대신 유지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안드레이 라진 러시아 농업부 차관이 목요일 밝혔다. 차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농가들이 낮은 국제 밀 가격, 높은 국내 수출관세, 러시아 남부 주요 생산지의 가뭄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밀 대신 유지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15년 만에 카자흐스탄산 밀 구매(Egypt state buyer makes rare Kazakhstan wheat purchase)

관계자와 항만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 국영 곡물 구매기관이 최소 15년 만에 카자흐스탄산 밀을 구매했다. 이는 이집트가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문 조치로 평가된다. 항만 자료에 따르면, Future of Egypt는 약 1만 1,000톤과 2만 1,000톤 규모의 카자흐스탄산 밀 두 선적분을 구매했으며, 이 물량은 9월 중순경 이집트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속 중국 9월 대두 수입, 사상 2위 기록 (China's September soybean purchases reach near-record as trade war with U.S. drags on) – 2025.10.13.

로이터가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9월 대두 수입량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미국산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남미산 대두 구매가 급증한 결과이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9월에 1,287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1,137만 톤보다 13.2% 증가한 수치라고 중국 해관총서가 밝혔다.

2.3. 프랑스, 알제리·중국 수요 급감 속 밀 수출 공백 메우려 애써(France tries to plug wheat export gap as Algeria, China stay away) – 2025.10.14.

분석가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알제리와 중국의 수요 붕괴로 수출처가 좁아지면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밀 재고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느린 선적 속도를 틈타 이집트와 아시아로 일부 수출을 확보하며 상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최대 밀 생산국인 프랑스는 최근 알제리와의 외교 긴장과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 축소로 인해 두 나라로의 밀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400만 톤의 잉여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주요 곡물 수확 차질에 신속한 조치 촉구(China urges swift action as rain disrupts key grain harvest)

중국 부총리는 월요일, 주요 곡창지대인 황화하이(Huang-Huai-Hai) 지역에서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가 가을 수확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간 곡물 생산 목표인 약 7억 톤 달성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귀중 부총리는 가을 곡물의 수확과 매입, 가을·겨울 파종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 브라질, 대두 생산량 사상 최대 1억 7,800만톤 전망(Brazil new soy crop seen at record 178 million tons, Conab says) – 2025.10.15.

브라질 Conab은 화요일, 2025/26 시즌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1억 7,764만 톤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전망과 거의 동일하지만 전년 대비 약 600만 톤 증가한 수준이다. Conab은 대두 재배 면적이 3.6% 확대되어 4,900만 헥타르(1억 2,108만 에이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두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브라질의 수출량은 새 마케팅 연도에 1억 1,200만 톤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U 2025/26 연질밀 수출, 10월 12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EU 2025/26 soft wheat exports down 23% by October 12)

유럽연합(EU)이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26 시즌(7월 시작) 이후 10월 12일까지 EU의 연질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이는 EU 최대 생산국인 프랑스의 통계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EU의 연질밀 수출량은 551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주 496만 톤에서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12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5. 트럼프, 중국과의 식용유 교역 중단 시사했으나 이미 급감한 거래 영향은 제한적(Trump targets China cooking oil trade – but sales were already tanking) – 2025.10.16.

트럼프 행정부는 화요일, 중국과의 일부 교역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식용유 거래를 지목했다. 그러나 거래업자와 분석가들은 지난 1년간 중국으로의 관련 수출이 이미 급감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교역 분야에서 중국과의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농업청, 수출 증가 전망에 곡물 재고 전망치 하향 조정
(FranceAgriMer cuts grain stock forecasts as export prospects rise)**

프랑스 농업청(FranceAgriMer)은 수요일, 2025/26 시즌 프랑스의 연질밀, 보리, 옥수수의 기말 재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 곡물 모두에 대한 수출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EU 역외 연질밀 수출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785만 톤으로 유지됐으나, EU 역내 수출 전망치는 이전 674만 톤에서 704만 톤으로 상향 조정됐다.

러시아, 인도네시아로의 밀 수출 재개(Russia resumes wheat supplies to Indonesia, state agriculture watchdog says)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1월 이후 중단됐던 인도네시아로의 밀 수출을 10월부터 재개했다고 러시아 국가 농업감독청이 수요일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러시아산 곡물 수입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감독청은 인도네시아 검역청이 8월에 러시아산 곡물에 대한 안전 인증서 연장을 승인하면서 10월 5만 2,000톤의 밀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2.6. 중국, 브라질산 대두 프리미엄 상승으로 구매 지연(China holds off on soybean purchases due to high Brazil premiums, traders say) – 2025.10.17.

세 명의 거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의 높은 프리미엄으로 인해 12~1월 상당 부분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기 수요 충당을 위해 정부 비축분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최근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대량 구매해 11월 선적분까지는 확보했지만 12~1월 선적용으로는 여전히 약 800만~900만 톤의 추가 물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호주, 작황 전망 상향으로 사상 최대 수확 기대(Western Australia could reap record harvest as crop estimates rise again, GIWA says)

서호주의 이번 시즌 밀 생산량이 한 달 전 예상치보다 약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 전체의 대규모 수확 전망을 뒷받침하며, 세계 시장 가격

에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GIWA는 또한 카놀라 생산 전망을 40만 톤, 보리 생산 전망을 20만 톤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2.7. ADM, 가격 부진 속 미국 농가 대두 판매 유인 시도(ADM seeks to lure soy sales from US farmers as prices languish, sources say) – 2025.10.20.

세계 최대 곡물 거래업체 중 하나인 ADM(Archer-Daniels-Midland)이 최근 대두 가격 하락으로 판매를 미루는 미국 농가들을 대상으로 납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 곡물 트레이더와 ADM 직원이 전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ADM은 가을 수확 성수기에는 드물게, 농가들이 일리노이주 디케이티(Decatur)에 위치한 자사 대두 가공시설에 대두를 납품한 뒤 보관료 없이 나중에 판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7년 만에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제로(China imports no US soybeans in September for first time in seven years)

중국이 9월 한 달 동안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수입량이 '0'을 기록한 사례이다. 반면, 남미산 대두 수입은 전년 대비 급증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전년 동월의 170만 톤에서 0톤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바이어들이 미국산 화물 구매를 회피한 결과로 풀이된다.

2.8. 일본 새 총리, 트럼프에 픽업트럭과 대두 포함한 구매 패키지 제시 예정 (EXCLUSIVE—Japan's new leader to woo Trump with pickups and soybeans) – 2025.10.22.

일본의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다음 주 열릴 미·일 통상 및 안보 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픽업트럭, 대두,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구매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고 두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다만 준비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방위비 목표에는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국, 중국으로의 신규 대두 수출 전무(No new US soy sales to China, nothing being loaded, say US soy groups)

미국 대두협회와 미국대두수출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의 미국산 대두 신규 판매 계약은 전혀 체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주간 선적 예정 물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화요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수확된 대두가 수출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대부분 저장시설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2.9. 인도네시아 군의 농장 장악에 팜유 산업 공포 확산(ANALYSIS—Fear grips Indonesian palm oil industry as military seizes plantations) — 2025.10.23.

6월 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한 민간 팜유 농장에 군인들이 진입해 해당 농장이 정부 통제 하에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농장 경영진이 전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멜라티 한잘리판 농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진행 중인 군 주도의 광범위한 농장 장악 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약 1,600만 명의 종사자들에게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짐바브웨, 수확량 하향 조정 후 곡물 수입 제한 완화(Zimbabwe eases grain imports restrictions after downgrading harvest)

짐바브웨 정부가 2024/25년 수확량 전망을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한 뒤, 두 달 전 시행했던 옥수수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제분업체의 수입을 허용했다.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2000년 이후 반복되는 가뭄과 상업농 붕괴로 인해 주식 곡물인 옥수수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절 백인 농가에 강탈당했던 비옥한 토지를 2000년대 초 흑인 농민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된 영향도 크다.

2.10. 미국 옥수수 수확량, 역대 최대 가능성(INSIGHT-The US corn crop could be the biggest ever. That's terrible news for America's farmers) – 2025.10.27.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통계를 담당하던 인력을 해고하면서 그동안 시장의 핵심 지표 역할을 해왔던 미국 농무부(USDA) 통계의 품질이 유지될지 농가와 거래업자들은 의문을 제기해 왔고, 이에 따라 작황 점검 투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 축소 조치로 인해 USDA 직원 약 1만 5,000명, 즉 전체 인력의 약 15%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고 기관을 떠난 상태이다.

유럽, 양호한 기상 여건에 겨울 곡물 파종 촉진(Favourable weather boosts winter grain sowing in Europe)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유럽 전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지난 두 시즌 초반의 비 피해와 달리 겨울 곡물 파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장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종 면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 해바라기씨 · 해바라기유 · 박류 수출 관세 2028년 8월까지 연장 (Russia extends export duties on sunflower seeds, sunflower oil and meal until August 2028)

세계 주요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금요일 국내 가공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바라기 씨 · 유 · 박에 대한 수출 관세를 향후 두 시즌 동안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11. 중국,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미국산 대두 구매(China buys US soybean cargoes ahead of Trump-Xi meet, sources say) – 2025.10.29.

두 명의 무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 COFCO가 미국산 대두 선적 3건을 구매했다. 이는 올해 미국 수확분 가운데 중국의 첫 구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이다. 양국이 무역 관세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의 구매 중단은 미국 농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

실을 초래했다. 미국 농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해 온 바 있다.

EU 2025/26 연질 밀 수출, 10월 26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EU 2025/26 soft wheat exports down 21% by October 2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26 시즌 연질 밀 수출량이 10월 26일 기준 625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주 587만 톤보다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루마니아가 255만 톤으로 EU 최대 연질 밀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고, 그 뒤로 프랑스(103만 톤), 리투아니아(84만 1,878톤), 독일(58만 4,543톤), 라트비아(49만 4,722톤) 순으로 집계되었다.

2.12. 아르헨티나 유채종자 노동조합, 임금 협상 난항 속 다음 주 파업 가능성 (Argentina oilseed union could strike next week with salary deal far off) – 2025.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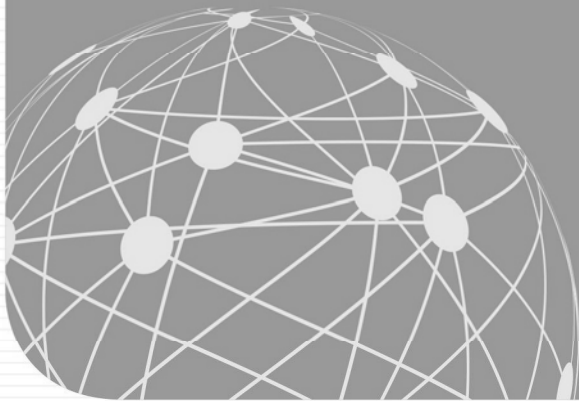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유채종자 노동조합(SOEA)과 업계 협회(CIARA)의 임금 협상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SOEA 관계자가 수요일 밝혔다. 그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최대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이며, 해당 산업의 노조는 기업들과의 노동 분쟁 이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11월 1일부터 노란 완두콩 수입에 30% 관세 부과(India to impose 30% import duty on yellow peas from November 1)

인도 정부는 수요일 늦게 발표한 공지에서 11월 1일부터 노란 완두콩 수입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선적서 날짜가 2025년 10월 31일 이전인 물량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7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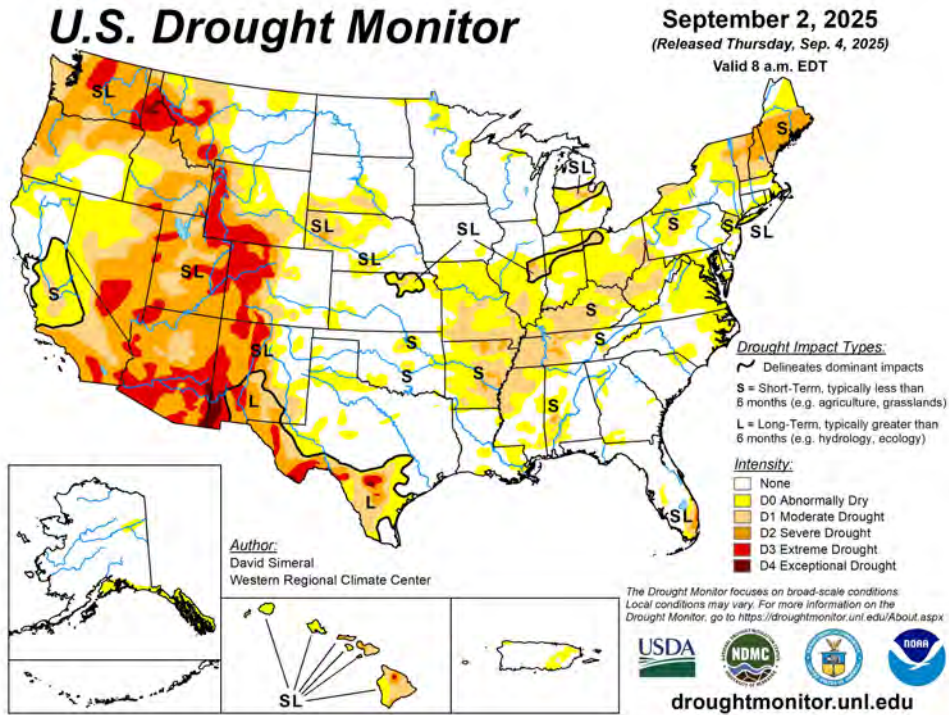
이충식(국제NGO,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미국

■ 2025년 8월 31일 ~ 9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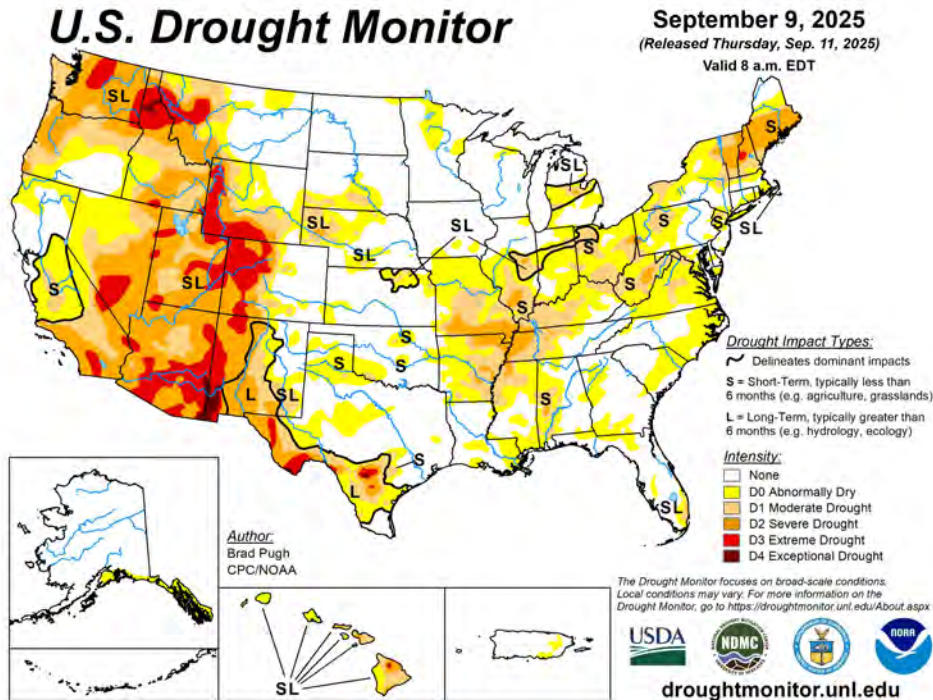
일련의 한랭전선이 국가 동쪽 절반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소나기는 광범위했지만 강도가 강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플로리다 반도, 애팔래치아 남부, 미주리 중부 계곡, 오대호 상부 지역에서는 총 2인치 이상의 강우량이 많은 곳에서 관측되었다. 한편, 서부에서는 북미 몬순 순환과 동태평양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 로레나의 잔여 수증기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막 남서부에서 남부 로키산맥에 걸쳐 국지적으로 많은 소나기가 내렸다. 국소적인 소나기가 캘리포니아, 대분지, 북서부 일부까지 북서쪽으로 확장되었다. 국가의 나머지 지역 - 로키 산맥 북부와 고원, 중서부 일부, 남동부 하부 대부분 - 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 밀의 초기 파종 작업과 같은 야외 농작업과 여름 작물 성숙에 유리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북서부(해안 지역 제외)에서 평년보다 5~15°F 높았으며, 이는 동쪽으로 멀리 몬태나 서부까지 확장되었다. 반대로 쌀쌀한 기상 조건이 미국 중부와 동부 대부분을 덮었으며, 중앙 평원에서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고 10°F 낮았다. 남서부에서는 남쪽으로 멀리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 동부까지 일주일 내내 기온이 80°F 아래로 유지되었다. 북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의 일부에서는 서리와 약한 결빙이 발생했지만 옥수수와 대두 같은 미성숙한 여름 작물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정도로 기온이 낮지는 않았다. 북부 평원에서는 보리와 봄밀과 같은 소립곡물들이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고, 많은 지역에서는 수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 leecs2447@gmail.com



■ 2025년 9월 7일 ~ 9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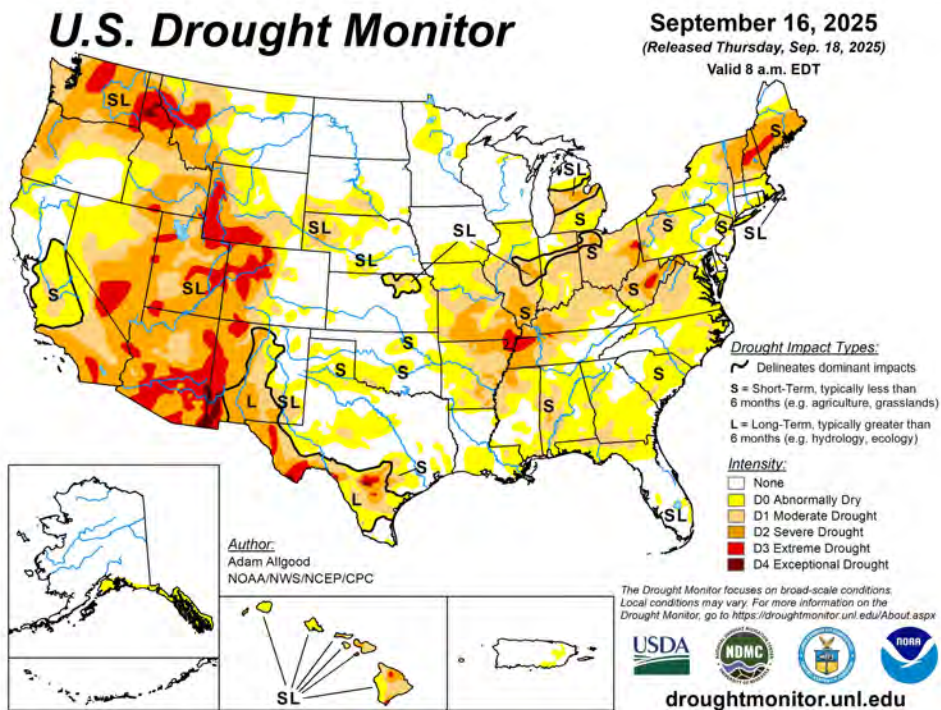
국가 동부 절반 대부분은 서늘하지만 건조한 날씨를 경험하여 야외 농작업과 여름 작물의 성숙에 유리했다. 플로리다 반도만은 예외적으로 동부 해안 일부 지역에 잦은 소나기가 내려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한랭전선과 북미 몬순 순환의 상호작용으로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한 날씨가 발생했다. 오리건과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오대호 상부 지역에 이르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는데 이 지역은 또 남부 로키 산맥과 고원에서 북쪽으로 뻗어 올라온 길게 뻗은 강수대와 교차했다. 또한 텍사스 남부에도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남부 및 대분지와 함께 워싱턴 주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여 나라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전주와 비교할 때 서늘한 기상 조건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동부 3분의 1 지역의 많은 곳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낮았다. 반대로 북부에서는 워싱턴 중앙에서부터 북부 평원까지 지속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높았다. 주 후반에는 따뜻한 기온이 대평원의 나머지 지역을 거쳐 상부 중서부까지 확장되었다.



■ 2025년 9월 14일 ~ 9월 20일

미국 중부 전역, 특히 대평원과 상위 중서부에는 상당한 양의 강우가 발생했다. 이번 강우가 몬테나 일부와 텍사스 대부분을 비껴가고 현장 작업을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겨울 밀 파종 직후 토양 수분을 보충하는데 기여했다. 주말이 끝날 무렵에도 중남부에서 동북부로 이어지는 더 건조한 지역에까지는 비가 아직 도달하지 않아 많은 목초지와 미성숙 여름 작물들이 심각한 가뭄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렸다. 플로리아 남부와 텍사스 남단을 제외한 딥사우스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어서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 유리했다. 중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비열대성 폭풍 시스템이 이어지던 건조한 기상 패턴을 끊어버렸다. 더 서쪽에서는 동태평양 열대폭풍 마리오의 잔재에서 흘러나온 수분으로 인해 계절에서 벗어난 소나기가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그리고 남서부 일부 지역에 내렸다. 곳곳에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린 북서부 지역에서는 가을에 파종할 작물의 활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릴 필요가 있고 북캘리포니아에서 산간 서부지역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한편, 늦철 더위가 대서양 연안과 그 주변을 제외한 미국 동부 전역을 지배했다. 따뜻한 날씨가 미국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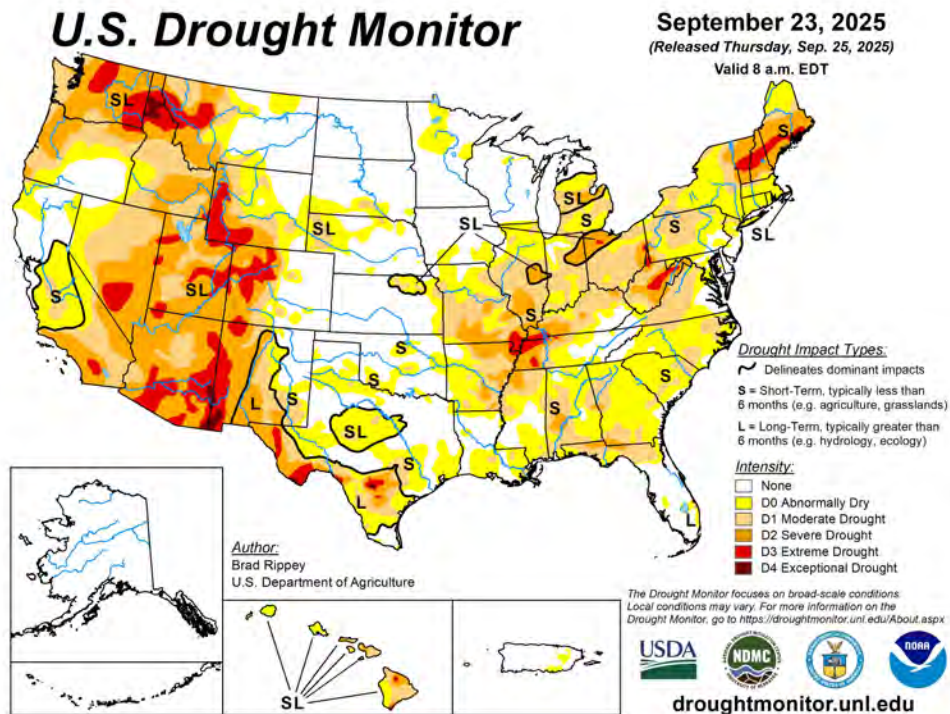
때 지역을 덮었으며, 먼 동쪽으로 오대호 주들에까지 이르렀다. 주간 평균 기온은 미시시피 계곡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5~10°F 높았고 다른 지역까지 퍼졌다. 특히 워싱턴 중부와 동부에서 중서부 상부까지는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최소 5°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대로, 중부와 남부 대서양 연안 주들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F 낮았다. 또한 중앙 로키산맥에서도 평년 미만의 조건이 만연했으나 나머지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따뜻한 기온이 나타났다.



■ 2025년 9월 21일 ~ 9월 27일

중남부에서 북동부에 걸쳐 내린 비로 제한적이거나 가뭄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토양 수분의 증가는 시기가 늦어서 여름 작물 생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강우(오자크 고원에서 메인주 남부에 이르기까지 총 2~4인치 이상)는 초지에 도움이 되었으며, 최근 파종된 월동밀의 생육 전망을 개선했다. 북부 평원과 중서부 최북단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미국 중부와 동부의 아주 광범위

한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렸다. 중남부 평원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비가 내렸으나, 겨울밀 파종은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서부 지역에서는 늦철 몬순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비가 내렸고, 그 중의 일부가 애리조나 주와 그 주변에서 돌발홍수를 일으켰다. 남서부 지역의 일부 소나기가 큰 우박과 피해를 동반한 강풍을 발생시켰다. 한편, 북서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건조한 여름이 지나간 뒤 산발적인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으나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뜻한 공기가 전국 대부분을 덮으면서, 북부 대평원지대에서부터 오대호 주(州)들에 이르는 지역의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10°F 높게 나타났다. 텍사스 일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북부 및 중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중앙 로키산맥 지역과 플로리다 남부, 그리고 미국 태평양 북서부 일부 지역 등 몇몇 지역에서는 평년과 거의 비슷한 기온이 관측되었다.



2. 유럽

■ 2025년 8월 31일 ~ 9월 6일

추가적인 소나기로 인해 프랑스의 가뭄이 더욱 완화되었고, 중부와 북부 유럽 대부분에서는 겨울 작물에게 유리한 수분 공급이 유지되었다. 북해 상공에 거의 정체된 상층 저기압은 유럽 북부 절반에 걸쳐 여러 차례 대기 교란을 퍼뜨리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까지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를 발생시켰다. 이 많은 작물 지역에서는 총강우량이 10~50mm(국지적으로는 그 이상)에 달해 프랑스에서는 가뭄을 완화시켰고 다른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 파종과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양호하거나 매우 좋은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유럽 남부에서는 관측 기간 동안 날씨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 스페인에서는 건조하지만 서늘한 기상 조건(평년보다 최대 4°C 낮음)이 여름 작물 수확과 다른 계절 야외 농작업에는 유리했으나 2025~26 수문년의 시작이 평년보다 느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반대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15~14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로 인해 겨울 곡물 활착을 위한 토양 수분은 높아졌지만 여름 작물 수확은 지장을 받았다. 발칸 반도에서는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세르비아 남부에서 루마니아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25~100mm의 중간 내지 강한 비가 떠 모양으로 내려 가뭄을 완화하고 겨울 밀, 보리, 유채 파종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그러나 발칸반도의 나머지 지역은 건조하고 더워서(34~37°C) 가뭄을 악화시켰고 표토는 겨울 작물의 출현과 활착에 필요한 수분이 마른 상태로 유지되었다.

■ 2025년 9월 7일 ~ 9월 13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림으로써 프랑스의 가뭄은 완화되었고 중부와 북부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강화했다. 2주 연속으로 북해 상공에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층 저기압이 유럽 북부 전역에 계속적으로 기류 교란을 보내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와 뇌우를 발생시켰다. 주간 총 강우량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5~75mm였으며, 국지적으로 100mm를 초과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 남아 있던 가뭄은 거의 사라졌으며, 다른 지역의 수분 공급은 겨울 작물 파종과 활착에 적당하거나 풍부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남유럽에서는 2주 연속으로 모니터링 기간

동안 날씨가 크게 달랐다. 스페인에서는 건조하지만 서늘한 날씨 조건(평년보다 최대 2°C 낮음)이 여름 작물 수확과 기타 계절적 야외 농작업에는 유리했으나 2025~26년 수문년이 평년보다 느리게 시작될 것으로 예고했다. 반대로 이탈리아에서는 10~125mm의 습한 날씨가 겨울 곡물 활착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지만 여름 작물의 수확에는 지장을 주었다. 발칸 반도에서는 보통 내지 아주 강한 비(10~200mm)가 지역 서부의 수분 저장량을 올려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다뉴브 강 계곡 하류에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평년보다 2~5°C 높음)가 야외 농작업에는 유리했으나 가뭄을 악화시켰다. 반대로 헝가리*에서는 보조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기간 동안 5~40mm의 강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가뭄을 완화했고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서부 및 북서부 유럽 대부분은 평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인 반면 발칸반도와 발트 3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C 높았다.

■ 2025년 9월 14일 ~ 9월 20일

중부와 북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추가 강우로 월동작물에 대한 수분 공급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반면, 지중해 분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한 주의 초반과 후반에 한 쌍의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폴란드 및 발트 3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했다. 유럽의 주요 농업지대 대부분에서는 주간 총강우량이 10~50mm에 달했으며, 영국 서부와 노르웨이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100mm를 넘는 강우가 기록되었다. 한편 남유럽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의 파종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리스와 도나우강 계곡 하류 지역에서는 가뭄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더 서쪽에 있는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와 함께 늦철의 심한 더위가 동반되었으며, 중부와 남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에 이르렀다; 실제로, 9월 셋째 주의 기온은 안달루시아와 카스티야라만차에서 연중 이 시기 기준으로 관측 사상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 2025년 9월 21일 ~ 9월 27일

비가 흠뻑 내린 중부 유럽과 대조적으로 북부 농경지는 날씨가 건조했고, 남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었다. 북유럽에 자리한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유럽 대륙 북부 3분의 1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와 평년보다 최대 3°C 낮은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름 작물 수확과 겨울 작물 파종이 원활히 진

행되었다. 한편, 이 고기압은 중부 유럽 상공에 머물던 폭풍 시스템의 이동을 막아, 프랑스* 동부에서 이탈리아, 독일 중·남부, 발칸 서부, 그리고 폴란드 남서부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중간에서 매우 강한 비(10~100mm, 지역적으로는 그 이상)를 내리게 했다. 이 비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활착을 위한 토양 수분 공급을 증가시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홍수를 초래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북서부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주간 총강수량이 200mm를 넘었으며 최고 262mm에 달했다. 반대로, 헝가리와 도나우강 하류 계곡에서는 맑은 날씨와 평년보다 최대 5℃ 높은 이상고온 속에서 가뭄이 심화되었으며, 겨울 작물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더 서쪽에 있는 이베리아반도에서는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해 2025~26 수문연도의 시작이 평년보다 더더지고 있다. 다만, 그 전주에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던 날씨가 이번 주 들어 평년보다 3~6℃ 낮은, 급격히 서늘한 날씨로 바뀌었다; 그러나 관측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허리케인 가브리엘의 잔재가 포르투갈 북부와 스페인 서중부 인근 지역에 국지적인 강한 소나기를 몰고 왔다.

3. 호주

■ 2025년 8월 31일 ~ 9월 6일

서부 경작지에는 소나기가 내렸으나 다른 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건조했다. 관측 기간 후반, 서호주에서는 강한 한랭전선이 10~60 mm의 비를 촉발하여 생식기에 접어들어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육 전망을 양호 내지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반대로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강한 고기압 지역이 하늘을 맑게 유지해주어 영양기(남부) 및 생식기(북부) 밀, 보리, 유채의 생육을 촉진했다. 주 후반에 특히 더 따뜻한 공기가 남동쪽으로 강하게 유입되기는 했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았다(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2℃ 낮음).

■ 2025년 9월 7일 ~ 9월 13일

중부와 서부의 많은 경작지에는 약한 소나기가 내렸으나 동부에는 중간 내지 강한 비가 내려 겨울 작물에 꼭 필요한 토양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강력한 폭풍 시스템이 호주 동부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사우스웨일스 중부에는 10~65mm의 중

간 내지 강한 비가 넓은 띠 모양으로 퍼져 내렸고, 남동 해안을 따라 100mm가 넘는 강우가 있었다. 이 비는 남부의 영양기 작물에서 북부의 생식기 작물에 이르기까지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적시에 개선해주었다.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빅토리아 북서부, 남호주의 남부에도 2~20mm의 가벼운 소나기가 내려 겨울 작물에 여전히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서호주에는 2~22mm의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내려 생식기에 있는 겨울 밀, 보리, 유채의 수확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국가의 주요 경작지 대부분의 기온은 평년 대비 1~2°C 이내로 유지되었다.

■ 2025년 9월 14일 ~ 9월 20일

전국에서 많은 주요 작물지대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 월동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육 전망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호주 남부를 동쪽으로 통과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서호주 주요 농업지대에는 5~40mm의 비가 내렸다. 동일한 기압계의 영향으로 호주 남동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1~30mm의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내렸고,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와 빅토리아 북동부의 대분수산맥 고지대에서는 50~11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남부와 남동부의 생장 단계 작물과 서부 및 북부의 생식 단계 작물 등, 겨울밀·보리·유채의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랭전선 통과 전의 이상고온이, 통과 후 급격히 유입된 찬 공기에 의해 상쇄되어 해당 주의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2025년 9월 21일 ~ 9월 27일

대륙 전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큰 기온 변동이 지속되었다. 광범위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호주의 서부, 남부, 동부 지역 전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졌으며 눈에 띄는 강수는 남동 해안과 그 인접 지역에 국한되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C 높게 나타났으며, 주 후반에는 동부 호주에 이례적인 고온이 유입되기는 했으나 주 초반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2°C 낮은 추운 날씨가 관측되었다. 겨울 밀, 보리, 유채의 생육 단계는 지역별로 다양했는데, 서부와 북부의 따뜻한 재배지에서는 종실 비대 단계에 있었고, 기후적으로 더 서늘한 호주 남동부의 농경지에서는 영양기에 머물러 있었다.

4. 동아시아

■ 2025년 8월 31일 ~ 9월 6일

이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가 내리기는 했으나 강수 양상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25~100mm)가 특히 쓰촨성과 산시성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2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까지 내리기는 했지만, 중국은 평균 25mm 미만에 그치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체로 건조했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25~200mm의 풍부한 강우가 발생했다. 일본 동해안에 특히 강한 비가 내렸는데, 열대성 폭풍 페이파가 남부와 중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다시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부 지역에서 200mm를 초과하는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1~5°C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C 후반에 달했다. 그러나 야간 최저 기온이 10°C 초반에서 20°C 중반에 이르면서 더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신장에서는 기상 조건이 면화 작물에게 계속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5~20°C에 이르는 야간 저온이 평균 30~40°C에 이르는 낮 최고 기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었기 때문이다.

■ 2025년 9월 7일 ~ 9월 13일

열대성 폭풍 타파(Tapha)와 몬순 활동으로 이번 주에 계절 강우가 다시 찾아와 지난주에 더 건조했던 지역에 단비를 제공했다. 가장 강한 비는 중국 남부에 집중되었는데, 광범위한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10~100mm)와 국지적으로 최대 30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기록되었다. 중국 북부로 갈수록 소나기는 산발적이고 약했다(50mm 미만). 한반도와 일본도 광범위한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 25~2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국지적 지역에서는 200mm를 초과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계절에 맞지 않게 높은 기온을 경험하여 평년보다 1~5°C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강한 더위가 나타나 낮 최고 기온이 30°C 후반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밤 기온은 10°C 초반에서 20°C 중반 사이로 떨어졌다. 중국 최북부 지역은 야간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였고 몽골 일부 지역은 영하로 내려갔다. 신장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5~20°C로 유지되어, 낮 동안 30~40°C에 달하는 고온에서 잠시 숨통을 트어줬다.

■ 2025년 9월 14일 ~ 9월 20일

열대폭풍 '미탁'이 중국 광둥성 홍콩 동쪽에 상륙해 200mm를 넘는 폭우를 일으킨 뒤, 이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강우와 국지적 건조가 병존했고 아울러 기온은 계절에 맞지 않게 높았다. 한반도와 일본 대부분에도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서 대부분 지역의 강우량은 25~200mm에 달했고 일부 지점들은 200mm를 초과하였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100mm의 소나기는 흔했고 일부 지점에서 100~30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반면 몽골과 몽골 국경 인근의 중국 북부 지역, 중국 남부 일부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나 10mm 미만의 매우 적은 비에 그쳤으며,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50mm를 밑도는 수준으로 더 약하고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6°C 높은 이상고온이 지속되어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에 달했으나, 밤에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이 유지되어 작물의 성숙에 유리한 생육 조건이 조성되었다. 신장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상 패턴이 관측되었으며, 밤 최저기온이 5~15°C로 내려가 낮 동안 20°C 후반에서 30°C 대의 더위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켰다.

■ 2025년 9월 21일 ~ 9월 27일

주 중반에 광둥성에 상륙한 태풍 라가사는 소멸 과정에서 중국 남부 해안 일부 지역과 윈난 내륙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를 내렸다. 그러나 중국 동부와 남부 전역의 평균 강우량은 10~100mm 수준이었다. 한편, 동아시아 여름몬순이 점차 약화되며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로 전환되었다. 다만, 헤이룽장 지역에서는 25mm 미만의 산발적인 소나기가 관측되었다.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서도 25~100mm의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총 강우량이 100mm를 넘었다. 이 지역 대부분은 평년보다 1~5°C 높은 기온을 보였으나, 중국 동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C 낮게 나타났다. 북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평균 20°C 초반에서 중반 수준이었고, 밤 최저기온은 10°C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후반에서 30°C 중반에 이르렀으며, 밤 최저기온은 10°C대에서 20°C 초반 수준이었다.

5. 러시아

■ 2025년 8월 31일 ~ 9월 6일

관측 기간 동안 이 지역은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져 남부의 가뭄을 악화시켰으나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지역의 주요 재배지 대부분은 건조했으며 의미있는 강우는 남부 지구의 동부(10~40mm)와 아울러 불가리아의 북쪽 및 동쪽 일부 (10~90mm)에 길게 걸친 강수대에 국한되었다. 그 외에는 맑은 하늘이 이어졌고, 주 초반에는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에 걸쳐 최고 기온이 35°C에 이르거나 그 이상을 기록했다. 러시아 남부에서는 국지적으로 38°C에 달했으나 이후 9월 3일에 더 서늘해진 공기가 도착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남쪽 절반에서는 여름 작물의 건조와 수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겨울 작물 파종, 출현,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은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 2025년 9월 7일 ~ 9월 13일

모니터링 기간 동안, 서부와 최남단 재배 지역까지 소나기가 스며들기는 했으나 이 지역 대부분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지역의 주요 경작지 대부분은 건조하여 몰도바 남동부에서 우크라이나 중부 및 러시아 서중부에 이르는 지역의 가뭄을 악화시켰으나 여름 작물의 수확은 촉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서부와 몰도바 북부에는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10~45mm)가 내려 겨울 작물의 활착에 필요한 표토 수분을 개선했으며,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남쪽 일부 지역에는 이보다 약한 소나기(2~30mm)가 내려서 제한적이거나 가뭄을 완화해주었다.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5°C 높았으나 러시아 서부에서는 평년과 비슷했다.

■ 2025년 9월 14일 ~ 9월 20일

서부와 남부의 작물지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린 반면, 러시아 서중부 지역은 일시적인 건조 상태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한 상층 기압 요란의 영향으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서부·중부, 몰도바에서 10~40mm의 광범위한 강우와 뇌우를 유발했다. 흑해 연안을 따라 이동한 기압 요란과 함께 소나기가 내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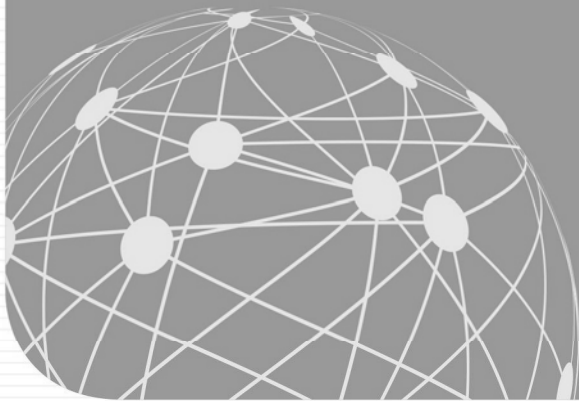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남러시아의 북카프카스 지역과 남부 지방의 남단 지역에서는 10~50mm의 강우가 보고되었다. 이번 강우로 흑해 연안 지역의 가뭄이 완화되었고 서쪽과 북쪽의 지역에서는 월동작물 생육에 적당하거나 풍부한 토양 수분 공급이 유지되었다. 반대로 러시아 서중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단기 가뭄 우려가 커졌지만,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의 파종은 빠른 속도로 촉진되었다.

■ 2025년 9월 21일 ~ 9월 27일

건조한 날씨와 변동이 큰 기온이 가뭄을 악화시켰지만, 발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북유럽에 자리했던 강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북서부로 확장되면서, 이 지역 전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그 결과, 로스토프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서중부 지역 전역에서는 단기 가뭄이 심화되었고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이전 주에 내린 유익한 남부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가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주 초반에는 최고기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이르는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7일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중앙지구의 서쪽 끝 지역에서는 -2℃ 이하의 강한 서리가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한랭한 날씨가 농업에 거의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63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167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45,280	354,626	16,138	15,837	359,156	118,926	3.62
1994/1995	147,289	364,055	19,380	21,058	363,742	117,561	3.67
1995/1996	148,297	368,655	18,127	19,820	366,462	118,061	3.69
1996/1997	150,165	380,339	16,666	19,110	375,701	120,255	3.75
1997/1998	151,725	387,370	24,232	26,646	377,493	127,718	3.79
1998/1999	153,303	394,960	25,219	25,671	388,174	134,052	3.83
1999/2000	155,850	409,295	20,263	22,843	397,663	143,104	3.91
2000/2001	152,727	399,325	22,073	24,035	393,757	146,710	3.89
2001/2002	151,671	399,518	25,969	27,019	412,115	133,063	3.92
2002/2003	147,634	377,979	26,292	28,696	405,442	103,196	3.81
2003/2004	149,502	392,368	25,014	27,494	410,934	82,150	3.91
2004/2005	151,367	401,016	25,971	28,316	405,889	74,932	3.94
2005/2006	154,161	418,045	26,534	29,775	412,334	77,402	4.04
2006/2007	154,418	420,026	28,585	31,356	418,299	76,358	4.05
2007/2008	154,843	434,115	30,025	31,542	426,644	82,312	4.16
2008/2009	158,540	450,140	27,422	29,071	435,792	95,011	4.23
2009/2010	155,963	440,889	28,256	31,421	435,237	97,498	4.21
2010/2011	158,473	451,393	33,061	35,216	443,941	102,795	4.25
2011/2012	160,063	469,557	35,516	39,956	455,213	112,699	4.38
2012/2013	160,273	476,040	36,738	39,407	462,514	123,556	4.43
2013/2014	163,537	481,893	39,088	43,342	472,529	128,666	4.40
2014/2015	163,128	483,233	41,710	43,867	473,527	136,215	4.42
2015/2016	161,643	477,571	38,690	40,735	467,846	143,895	4.41
2016/2017	164,607	492,462	41,664	47,892	478,439	151,690	4.47
2017/2018	164,179	495,262	47,321	47,885	481,552	164,836	4.50
2018/2019	163,760	498,359	44,311	44,248	485,376	177,882	4.54
2019/2020	161,934	498,705	42,611	43,566	492,218	183,414	4.60
2020/2021	165,506	509,407	47,100	52,229	498,601	189,091	4.60
2021/2022	166,751	514,233	55,673	58,023	516,593	184,381	4.61
2022/2023	167,095	516,928	57,579	55,505	522,880	180,503	4.62
2023/2024	167,512	523,730	53,386	56,835	521,386	179,398	4.67
2024/2025	172,205	540,932	58,185	61,122	529,015	188,378	4.70
2025/2026 (전망치)	171,715	541,072	58,789	62,145	538,824	187,270	4.7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221,030	558,555	98,561	103,717	547,467	182,663	2.53
1994/1995	213,327	523,121	99,877	98,215	543,525	163,921	2.45
1995/1996	216,712	537,498	97,188	99,197	543,624	155,786	2.48
1996/1997	227,070	581,286	98,254	106,943	563,994	164,389	2.56
1997/1998	226,370	610,176	103,533	104,400	575,783	197,915	2.70
1998/1999	219,174	590,495	99,635	101,319	577,432	209,294	2.69
1999/2000	212,633	587,392	106,718	113,435	580,897	209,072	2.76
2000/2001	215,187	582,813	99,344	101,195	583,912	206,122	2.71
2001/2002	214,180	583,791	106,234	105,783	586,787	203,577	2.73
2002/2003	212,688	570,058	103,712	105,341	602,181	169,825	2.68
2003/2004	207,218	556,088	101,107	108,519	581,491	137,010	2.68
2004/2005	215,789	627,061	110,440	111,081	605,692	157,738	2.91
2005/2006	217,445	619,105	111,572	117,394	616,353	154,668	2.85
2006/2007	212,444	596,834	113,934	111,559	619,099	134,778	2.81
2007/2008	217,020	611,710	113,496	116,390	614,378	129,216	2.82
2008/2009	223,433	684,262	137,703	144,121	636,775	170,285	3.06
2009/2010	225,754	687,531	133,605	136,764	650,872	203,785	3.05
2010/2011	216,838	650,300	131,945	133,040	653,373	199,617	3.00
2011/2012	220,910	698,743	150,239	157,644	690,834	200,121	3.16
2012/2013	216,100	660,810	143,166	136,148	687,339	180,610	3.06
2013/2014	219,781	718,132	158,953	165,935	691,037	200,723	3.27
2014/2015	221,403	732,116	159,410	164,253	702,416	225,580	3.31
2015/2016	223,412	739,036	170,106	172,972	713,929	247,821	3.31
2016/2017	222,541	757,269	183,660	186,778	734,193	267,779	3.40
2017/2018	217,945	760,308	184,225	185,449	739,566	287,297	3.49
2018/2019	214,697	729,893	174,108	176,237	731,254	283,807	3.40
2019/2020	215,241	759,308	188,376	194,592	739,042	297,857	3.53
2020/2021	220,216	772,759	194,694	203,541	776,517	285,252	3.51
2021/2022	221,651	780,820	200,540	203,727	787,612	275,273	3.52
2022/2023	219,662	790,475	212,798	221,952	781,943	274,651	3.60
2023/2024	222,749	792,340	223,238	222,238	797,287	270,704	3.56
2024/2025	222,521	800,856	199,434	209,572	799,001	262,421	3.60
2025/2026 (전망치)	220,121	816,199	210,556	214,720	810,396	264,060	3.7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30,678	475,859	56,973	58,861	507,267	129,444	3.64
1994/1995	135,151	559,592	68,911	66,126	538,473	153,348	4.14
1995/1996	135,001	516,694	65,702	70,422	532,036	133,286	3.83
1996/1997	141,444	592,897	64,846	65,572	559,138	166,319	4.19
1997/1998	136,217	574,161	63,206	63,347	573,137	167,202	4.22
1998/1999	138,905	605,805	66,556	66,938	581,262	191,363	4.36
1999/2000	138,789	608,082	70,859	75,541	600,356	194,407	4.38
2000/2001	136,996	591,538	75,144	76,722	609,231	175,136	4.32
2001/2002	136,883	601,652	71,878	74,579	622,678	151,409	4.40
2002/2003	137,516	604,110	76,240	76,746	628,071	126,942	4.39
2003/2004	141,340	627,532	76,819	77,135	649,457	104,701	4.44
2004/2005	145,151	716,904	76,450	77,659	689,240	131,156	4.94
2005/2006	144,814	699,896	80,624	80,971	707,287	123,418	4.83
2006/2007	149,244	715,299	90,837	93,933	726,865	108,756	4.79
2007/2008	160,615	798,462	98,191	98,917	781,130	125,362	4.97
2008/2009	159,115	806,306	82,581	83,721	794,479	136,049	5.07
2009/2010	158,657	833,716	90,281	96,618	831,943	131,485	5.26
2010/2011	166,338	849,170	93,624	91,557	867,864	114,858	5.11
2011/2012	175,808	910,355	100,631	116,948	886,048	122,848	5.18
2012/2013	184,038	903,265	99,467	95,374	884,676	145,530	4.91
2013/2014	189,059	1,033,821	125,071	131,458	956,924	216,040	5.47
2014/2015	189,364	1,061,041	125,026	142,718	979,452	279,937	5.60
2015/2016	188,721	1,021,192	139,948	120,690	1,007,024	313,363	5.41
2016/2017	197,179	1,129,359	138,443	161,869	1,068,472	350,824	5.73
2017/2018	194,590	1,087,284	152,771	149,489	1,099,155	342,235	5.59
2018/2019	192,948	1,132,822	166,378	182,736	1,131,924	326,775	5.87
2019/2020	195,660	1,128,285	167,564	172,579	1,135,503	314,542	5.77
2020/2021	200,784	1,134,439	185,027	182,926	1,153,724	297,358	5.65
2021/2022	207,709	1,221,050	184,472	206,433	1,182,318	314,129	5.88
2022/2023	202,445	1,165,718	173,416	180,332	1,167,526	305,405	5.76
2023/2024	208,811	1,231,058	197,441	192,568	1,225,803	315,533	5.90
2024/2025	204,090	1,228,907	182,956	193,804	1,249,409	284,183	6.02
2025/2026 (전망치)	209,607	1,286,575	193,198	201,705	1,280,853	281,398	6.1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60,254	117,565	28,178	27,729	120,785	18,783	1.95
1994/1995	62,143	137,636	32,762	32,052	132,409	24,720	2.22
1995/1996	61,056	124,683	32,462	31,656	131,671	18,538	2.04
1996/1997	62,423	131,932	35,631	36,364	134,238	15,499	2.11
1997/1998	68,522	157,963	38,164	39,320	145,318	26,988	2.31
1998/1999	71,292	159,831	38,550	37,929	158,731	28,709	2.24
1999/2000	71,872	160,298	45,522	45,708	158,761	30,060	2.23
2000/2001	75,573	175,775	53,089	53,704	170,991	34,229	2.33
2001/2002	79,616	184,897	54,357	52,745	183,656	37,082	2.32
2002/2003	81,577	196,827	62,885	61,156	190,784	44,854	2.41
2003/2004	88,509	186,479	54,037	55,936	189,043	40,391	2.11
2004/2005	93,350	215,491	63,564	64,827	204,561	50,058	2.31
2005/2006	93,035	220,777	63,417	63,637	214,999	55,616	2.37
2006/2007	94,975	235,776	69,559	70,912	224,929	65,110	2.48
2007/2008	91,149	219,309	78,573	78,707	229,624	54,661	2.41
2008/2009	96,609	212,295	77,875	76,707	222,484	45,640	2.20
2009/2010	102,764	260,986	87,512	92,105	239,225	62,808	2.54
2010/2011	103,823	265,046	89,743	91,354	252,757	73,496	2.55
2011/2012	103,046	241,166	94,658	91,826	259,436	58,058	2.34
2012/2013	110,367	268,923	97,131	100,405	265,393	58,314	2.44
2013/2014	113,199	283,320	113,282	112,798	278,276	63,842	2.50
2014/2015	119,160	321,444	124,356	126,442	303,891	79,309	2.70
2015/2016	120,877	316,072	134,044	132,837	316,894	79,694	2.62
2016/2017	120,550	350,805	145,002	147,736	332,155	95,632	2.91
2017/2018	125,189	343,632	154,165	153,403	340,282	99,744	2.75
2018/2019	126,050	363,451	145,923	149,222	345,646	114,250	2.88
2019/2020	123,973	341,728	165,318	165,823	360,281	95,192	2.76
2020/2021	130,226	369,626	166,396	165,176	367,364	98,674	2.84
2021/2022	131,578	360,538	154,763	154,428	366,023	93,524	2.74
2022/2023	137,360	378,360	168,509	171,830	366,682	101,881	2.76
2023/2024	140,662	396,355	178,284	177,809	383,575	115,136	2.82
2024/2025	146,809	424,200	178,166	183,471	410,448	123,583	2.89
2025/2026 (전망치)	144,670	425,867	186,214	187,782	423,891	123,991	2.9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7,000	0	6,287	245	1,507
1994/1995	6,950	0	6,600	265	1,592
1995/1996	8,200	0	8,277	265	1,250
1996/1997	8,867	0	8,876	270	971
1997/1998	10,357	1	9,235	275	1,819
1998/1999	13,468	0	13,423	325	1,539
1999/2000	13,712	0	13,309	335	1,607
2000/2001	13,718	5	13,730	325	1,275
2001/2002	16,559	0	16,586	325	923
2002/2003	18,663	0	18,468	365	753
2003/2004	19,761	2	19,221	425	870
2004/2005	21,601	0	20,650	500	1,321
2005/2006	25,012	1	24,222	535	1,577
2006/2007	26,061	1	25,625	594	1,420
2007/2008	27,071	3	26,816	640	1,038
2008/2009	24,363	4	24,025	730	650
2009/2010	26,624	2	24,914	830	1,532
2010/2011	29,312	0	27,615	1,000	2,229
2011/2012	27,945	0	26,043	1,450	2,681
2012/2013	26,089	0	23,667	1,850	3,253
2013/2014	27,892	0	24,972	2,100	4,073
2014/2015	30,928	1	28,575	2,402	4,025
2015/2016	33,500	0	30,333	2,672	4,520
2016/2017	33,600	0	31,323	2,867	3,930
2017/2018	28,750	1	26,265	2,996	3,420
2018/2019	31,500	27	28,833	3,125	2,989
2019/2020	30,241	1	27,461	3,200	2,570
2020/2021	31,318	1	28,325	3,275	2,289
2021/2022	30,287	135	26,589	3,325	2,797
2022/2023	23,648	67	20,764	3,450	2,298
2023/2024	28,535	1	24,891	3,500	2,443
2024/2025	33,228	205	29,200	3,500	3,176
2025/2026 (전망치)	33,072	10	30,100	3,600	2,55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4,491	0	10,661	4,122	1,203
1994/1995	15,837	0	10,445	4,927	1,668
1995/1996	17,096	100	12,226	5,364	1,274
1996/1997	15,728	192	10,557	5,365	1,272
1997/1998	15,729	244	9,587	6,360	1,298
1998/1999	16,651	69	9,813	6,665	1,540
1999/2000	16,478	98	9,950	7,086	1,080
2000/2001	17,725	184	10,673	7,063	1,253
2001/2002	19,407	342	11,862	7,580	1,560
2002/2003	21,449	350	13,657	8,055	1,647
2003/2004	22,450	282	14,792	7,750	1,837
2004/2005	22,740	252	14,256	8,960	1,613
2005/2006	21,920	195	12,895	9,328	1,505
2006/2007	24,110	167	12,715	10,718	2,349
2007/2008	24,890	180	12,138	12,257	3,024
2008/2009	24,700	83	13,109	12,700	1,998
2009/2010	26,120	86	12,985	13,200	2,019
2010/2011	28,160	58	13,987	13,700	2,550
2011/2012	29,510	30	14,678	13,900	3,512
2012/2013	27,310	32	13,242	14,500	3,112
2013/2014	28,540	26	13,948	15,300	2,430
2014/2015	31,300	18	14,290	15,700	3,758
2015/2016	30,750	25	15,407	16,450	2,676
2016/2017	31,280	35	13,762	17,000	3,229
2017/2018	34,300	19	16,033	17,311	4,204
2018/2019	32,746	22	16,095	17,500	3,377
2019/2020	35,991	10	17,499	18,000	3,879
2020/2021	35,940	18	16,577	18,800	4,460
2021/2022	39,091	12	20,207	19,700	3,656
2022/2023	41,488	6	21,334	20,000	3,816
2023/2024	41,859	18	22,722	20,000	2,971
2024/2025	43,890	5	23,250	20,500	3,116
2025/2026 (전망치)	44,776	10	23,200	21,500	3,20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7,682	68	4,972	22,828	136
1994/1995	30,182	64	6,205	23,974	203
1995/1996	29,508	91	5,524	24,085	193
1996/1997	31,035	108	6,451	24,694	191
1997/1998	34,633	60	8,722	25,964	198
1998/1999	34,285	101	6,979	27,305	300
1999/2000	34,102	65	6,912	27,289	266
2000/2001	35,730	50	7,335	28,363	348
2001/2002	36,552	134	7,271	29,545	218
2002/2003	34,649	157	5,728	29,096	200
2003/2004	32,953	259	4,690	28,531	191
2004/2005	36,936	134	6,659	30,446	156
2005/2006	37,416	128	7,301	30,114	285
2006/2007	39,037	142	7,987	31,166	311
2007/2008	38,359	128	8,384	30,147	267
2008/2009	35,473	80	7,708	27,899	213
2009/2010	37,836	145	10,125	27,795	274
2010/2011	35,608	163	8,238	27,489	318
2011/2012	37,217	196	8,845	28,614	272
2012/2013	36,174	222	10,111	26,308	249
2013/2014	36,909	347	10,504	26,774	227
2014/2015	40,880	302	11,891	29,282	236
2015/2016	40,525	358	10,843	30,037	239
2016/2017	40,630	313	10,505	30,314	363
2017/2018	44,657	438	12,717	32,237	504
2018/2019	44,283	620	12,141	32,901	365
2019/2020	46,358	580	12,549	34,444	310
2020/2021	45,872	712	12,406	34,179	309
2021/2022	47,005	594	12,303	35,323	282
2022/2023	47,621	575	13,196	34,946	336
2023/2024	49,084	623	14,564	35,068	411
2024/2025	52,537	689	16,420	36,809	408
2025/2026 (전망치)	54,635	612	17,418	37,806	43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880	0	2,200	680	0
1994/1995	2,200	0	1,580	620	0
1995/1996	3,200	0	2,600	490	110
1996/1997	2,920	0	2,450	580	0
1997/1998	3,800	0	2,600	1,200	0
1998/1999	4,295	0	2,800	1,325	170
1999/2000	3,520	0	2,571	1,090	29
2000/2001	3,600	7	2,097	1,305	234
2001/2002	3,520	14	2,175	1,260	333
2002/2003	2,720	3	1,295	1,575	186
2003/2004	4,480	2	3,272	1,270	126
2004/2005	4,000	13	2,573	1,290	276
2005/2006	5,680	3	5,035	835	89
2006/2007	5,200	3	4,433	805	54
2007/2008	6,640	5	5,856	810	33
2008/2009	6,480	8	4,217	1,920	384
2009/2010	6,240	7	3,527	2,540	564
2010/2011	7,480	8	5,169	2,775	108
2011/2012	8,240	7	4,877	3,320	158
2012/2013	8,640	7	4,943	3,530	332
2013/2014	6,960	7	3,252	3,640	407
2014/2015	6,160	7	1,521	4,500	553
2015/2016	4,400	46	409	4,460	130
2016/2017	7,200	11	2,019	4,674	648
2017/2018	6,160	11	1,863	4,739	217
2018/2019	7,680	49	2,185	5,530	231
2019/2020	6,890	23	1,166	5,780	198
2020/2021	8,000	236	2,395	5,850	189
2021/2022	6,800	646	940	6,273	422
2022/2023	8,240	29	1,871	6,625	195
2023/2024	9,040	29	1,966	7,075	223
2024/2025	8,800	50	1,800	7,075	198
2025/2026 (전망치)	8,200	50	900	7,345	20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567	1,016
2016/2017	11,060	17,353	734	27,792	891
2017/2018	11,455	16,992	770	27,742	826
2018/2019	11,850	17,197	753	27,892	1,228
2019/2020	12,324	16,329	874	28,342	665
2020/2021	12,482	16,504	847	28,342	462
2021/2022	12,166	16,536	764	27,742	658
2022/2023	11,297	15,997	737	26,742	473
2023/2024	11,455	16,537	652	26,942	871
2024/2025	11,850	19,900	700	30,642	1,279
2025/2026 (전망치)	12,087	17,550	600	29,242	1,07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539	0	1,395	136	718
1994/1995	1,553	0	1,427	149	695
1995/1996	1,896	0	1,590	175	826
1996/1997	1,966	0	1,993	204	595
1997/1998	2,281	0	1,966	213	697
1998/1999	3,141	0	3,111	224	503
1999/2000	3,121	0	2,843	236	545
2000/2001	3,190	0	3,080	247	408
2001/2002	3,876	0	3,630	327	327
2002/2003	4,394	0	3,920	387	414
2003/2004	4,729	0	4,238	394	511
2004/2005	5,128	0	4,757	396	486
2005/2006	5,998	0	5,597	397	490
2006/2007	6,424	0	5,970	459	485
2007/2008	6,627	0	5,789	1,026	297
2008/2009	5,914	0	4,704	1,420	87
2009/2010	6,476	0	4,453	1,915	195
2010/2011	7,181	0	4,561	2,520	295
2011/2012	6,839	0	3,794	3,020	320
2012/2013	6,364	93	4,244	2,245	288
2013/2014	6,785	9	4,087	2,844	151
2014/2015	7,687	22	5,094	2,401	365
2015/2016	8,433	0	5,698	2,840	260
2016/2017	8,395	0	5,387	3,085	183
2017/2018	7,236	1	4,164	2,981	275
2018/2019	8,044	0	5,268	2,625	426
2019/2020	7,700	0	5,404	2,180	542
2020/2021	7,932	0	6,137	2,045	292
2021/2022	7,664	93	4,873	2,650	526
2022/2023	5,991	0	4,137	1,660	720
2023/2024	7,251	2	5,533	1,770	670
2024/2025	8,499	75	6,750	1,980	514
2025/2026 (전망치)	8,459	5	6,450	1,980	54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3,468	379	1,345	2,418	336
1994/1995	3,776	125	1,460	2,500	277
1995/1996	4,081	149	1,600	2,665	242
1996/1997	3,736	130	1,273	2,646	189
1997/1998	3,728	245	1,184	2,753	225
1998/1999	3,960	228	1,441	2,741	231
1999/2000	3,943	147	1,137	2,931	253
2000/2001	4,333	69	1,533	2,932	190
2001/2002	4,700	146	1,775	2,935	326
2002/2003	5,205	85	2,394	2,895	327
2003/2004	5,560	26	2,718	2,959	236
2004/2005	5,630	3	2,414	3,091	364
2005/2006	5,430	28	2,466	3,091	265
2006/2007	5,970	4	2,462	3,395	382
2007/2008	6,160	67	2,388	3,955	266
2008/2009	6,120	6	1,909	4,275	208
2009/2010	6,470	37	1,449	4,980	286
2010/2011	6,970	0	1,668	5,205	383
2011/2012	7,310	0	1,885	5,390	418
2012/2013	6,760	6	1,251	5,534	399
2013/2014	7,074	0	1,378	5,705	390
2014/2015	7,759	11	1,510	6,215	435
2015/2016	7,627	63	1,550	6,288	287
2016/2017	7,755	60	1,241	6,570	291
2017/2018	8,485	45	1,511	6,940	370
2018/2019	8,505	24	1,085	7,500	314
2019/2020	9,348	66	1,156	7,850	722
2020/2021	9,335	249	1,262	8,150	894
2021/2022	10,153	32	2,409	7,700	970
2022/2023	10,580	29	2,686	8,300	593
2023/2024	11,055	80	1,352	10,200	176
2024/2025	11,622	75	1,525	10,110	238
2025/2026 (전망치)	11,826	40	1,300	10,450	35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328	31	695	5,869	500
1994/1995	7,082	8	1,217	5,857	516
1995/1996	6,913	43	450	6,108	914
1996/1997	7,145	24	922	6,471	690
1997/1998	8,229	27	1,397	6,922	627
1998/1999	8,202	38	1,076	7,101	690
1999/2000	8,085	37	624	7,284	904
2000/2001	8,355	33	636	7,401	1,255
2001/2002	8,572	21	1,143	7,635	1,070
2002/2003	8,360	21	1,027	7,748	676
2003/2004	7,748	139	425	7,650	488
2004/2005	8,782	12	600	7,911	771
2005/2006	9,248	16	523	8,147	1,365
2006/2007	9,294	17	851	8,426	1,399
2007/2008	9,335	30	1,320	8,317	1,127
2008/2009	8,503	41	995	7,378	1,298
2009/2010	8,897	47	1,524	7,173	1,545
2010/2011	8,568	72	1,466	7,506	1,213
2011/2012	8,954	68	664	8,396	1,175
2012/2013	8,990	89	981	8,522	751
2013/2014	9,131	75	852	8,577	528
2014/2015	9,706	120	914	8,599	841
2015/2016	9,956	130	1,017	9,145	765
2016/2017	10,035	145	1,159	9,010	776
2017/2018	10,783	152	1,108	9,698	905
2018/2019	10,976	180	880	10,376	805
2019/2020	11,299	145	1,287	10,122	840
2020/2021	11,350	137	786	10,574	967
2021/2022	11,864	137	803	11,262	903
2022/2023	11,897	170	171	12,070	729
2023/2024	12,289	282	280	12,317	703
2024/2025	13,147	170	1,134	12,178	708
2025/2026 (전망치)	13,676	170	318	13,449	78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50	41	0	711	0
1994/1995	495	60	0	555	0
1995/1996	712	60	0	772	0
1996/1997	657	49	0	706	0
1997/1998	859	236	0	1,095	0
1998/1999	972	833	0	1,805	0
1999/2000	792	587	0	1,300	79
2000/2001	810	1,085	19	1,750	205
2001/2002	792	1,215	4	2,000	208
2002/2003	612	1,159	5	1,850	124
2003/2004	1,008	689	5	1,700	116
2004/2005	900	1,554	11	2,400	159
2005/2006	1,278	1,453	13	2,650	227
2006/2007	1,170	1,249	8	2,450	188
2007/2008	1,494	621	16	2,100	187
2008/2009	1,458	892	2	2,300	235
2009/2010	1,404	1,354	1	2,750	242
2010/2011	1,683	817	0	2,550	192
2011/2012	1,854	1,190	10	2,900	326
2012/2013	1,944	1,081	0	3,000	351
2013/2014	1,566	1,804	1	3,350	370
2014/2015	1,386	2,815	3	4,100	468
2015/2016	990	4,269	3	5,250	474
2016/2017	1,620	3,534	1	5,150	477
2017/2018	1,386	2,984	7	4,670	170
2018/2019	1,728	3,000	8	4,750	140
2019/2020	1,550	3,626	16	5,125	175
2020/2021	1,800	3,251	11	4,950	265
2021/2022	1,530	4,231	15	5,825	186
2022/2023	1,854	3,968	11	5,400	597
2023/2024	2,034	3,308	16	5,175	748
2024/2025	1,980	5,100	20	6,615	1,193
2025/2026 (전망치)	1,845	4,100	15	6,420	70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660	306	973	1,955	211
2017/2018	2,755	288	1,074	1,935	245
2018/2019	2,850	419	977	2,255	282
2019/2020	2,964	483	910	2,380	439
2020/2021	3,002	493	1,061	2,430	443
2021/2022	2,926	458	970	2,305	552
2022/2023	2,717	623	915	2,405	572
2023/2024	2,755	586	662	2,630	621
2024/2025	2,850	650	900	2,655	566
2025/2026 (전망치)	2,907	650	850	2,705	56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25년 10월 1일

발 행 2025년 10월 1일

발행인 한두봉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프리비

전화 061-332-1492 팩시밀리 061-332-1491

E-mail: pri_be@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